

대구 기업 73.8% “작년 설보다 어렵다”

지역 경제 지표·체감 ‘공공’

대구 6000명·경북 1만3000명
실업자 수도 1년 새 큰 폭 증가
대한상의 “저성장 고착화 원년”

올해 대구경북 경제 흐름이 점점산중이다. 지표와 체감도 모두 공공 얼어붙어 당분간 지역 경제가 침체의 터널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연말 고용 실적이 1년 6개월 만에 최저

치를 기록한 데 이어 설을 앞둔 기업들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져 예년의 설 특수 분위기는 사그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대구경북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의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실업자가 6천 명 늘어난 5만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지난 2021년 6월(5만 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전월(2만8명)보다는 1.7배 뛰었다.

경북도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0.8%p 오른 3.6%로 집계됐다. 실업자는 1만3천 명 증가해 5만3천 명에 달했다. 직전 실업자 최대치는 11개월 전인 지난해 1월 6만1천 명이었다.

지역 노동시장이 세계 경제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설 경기 전망도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대구상공회의소가 4, 5일 대구 기업 27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설 경기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기업 10곳 중 7곳이 ‘지난해 설 경기보다 더 악화됐다’고 답했다. ‘악화됐다’는 기업 비중은 73.8%로 지난해(53.7%) 대

비 16.1%p 상승한 것.

‘악화됐다’(복수 응답)고 답한 기업의 55.0%는 ‘고금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물류비 상승’(50.5%)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인 경제 상황도 나빠질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나오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계는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기업들은 ‘올해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데 76.2%가 동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경기

전망에 대해 지난해 11월 ‘경기 둔화가 가능성이 있다’로 발표했다가 12월 ‘가능성이 높다’로 정정하더니 ‘1월 경제동향’을 통해서는 ‘경기 둔화가 가시화됐다’고 못 박았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새로운 수출 환경 등 기존 경제 방식과 전략이 통하지 않는 형국이어서 지역 기업이 힘겹다”며 “규제 개선,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인력 양성 등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천 기자 psj@imaeil.com

‘대구로 택시’ 앱 카카오톡 맹추격

홍시장 “가입률 100% 늘려라”

상반기 PnP 지사 설립도 추진
대표 입국하는대로 실무 회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재 30% 수준인 대구형 택시 앱 ‘대구로 택시’ 가입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카카오톡 등 대형 플랫폼에 맞서 ‘대구로’를 보다 활성화하려면 택시 가입률 확대가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 시장은 또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창업 지원 기관인 플러그엔플레이(PnP) 대구지사 설립도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 시장은 1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구로 택시 가입률이 100%가 되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11일 현재 ‘대구로 택시’ 가입 택시는 5천988대로 집계됐다. 시에 등록된 택시 1만5천674대 가운데 38%가 가입한 셈이다. 실제 운행 중인 택시가 1만4천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42% 수준이다.

가입률 증가의 관건은 앱을 통해 운행하는 하루 평균 ‘호출 건수’다. 대구로 가입 택시의 하루 평균 호출 건수는 1.5건. 시는 호출 건수가 하루 평균 5건을 넘어가면 가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호출 건수가 늘어나면 4천700대가 운행 중인 카카오톡 가맹 택시(카카오 블루)의 대구로 택시 전환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올 상반기 내에 PnP 대구지사를 설립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7일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참관한 홍 시장은 PnP 측과 글로벌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구지사 설립에 합의했다.

시는 조만간 PnP 코리아 대표이사 입국하는 대로 실무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창업지원기관 12곳과 엔젤투자자 13곳 등 창업 지원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해 PnP 측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성현 기자 shjang@imaeil.com

서문시장 온 김건희 여사 尹대통령 때보다 더 들썩

갑작스러운 등장에 상인들 ‘깜짝’
시민들 몰려들면서 금세 북새통
“설 앞두고 소상공인 격려차 찾아”

“진짜 김건희 여사다.” “너무 예뻐요!”

11일 낮 12시 18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구 중구 서문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이곳저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김 여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상인들과 시민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여사는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격려하기 위한 민생 행보에 나섰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학생 봉사단과 급식 봉사활동을 한 뒤 서문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났다.

김 여사가 인사를 하며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상인들은 박수를 치고 이름을 부르며 열렬히 환대했다. 김 여사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통로는 순식간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김 여사는 입구 쪽에 있는 대구서문카스테라 점포에 들러 10여 팩을 구매한 이후 부산어묵장들이 점포에서 어묵 국물과 곤약을 먹고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했다.

한 상인이 “이런 데서는 처음 드시는 것 아녜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아니예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시민들을 향해 양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남영숙(59) 씨는 “김 여사가 시장에 와서 깜짝 놀랐다”며 “아침에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들긴 했지만 대통령 부인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김 여사가 시장 안으로 이동하자 가게 안에 있던 상인들은 밖으로 나와 발 디딜 틈 없이 줄지어 섰다. 김혜진(35) 씨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셨을 때보다 시장이 더 들썩이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서문시장 방문 배경에 대해 “대구의 가장 큰 시장이자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 등으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상황을 좀 살펴보고 싶어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오전에 대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어르신 120여 명에게 배식하며 겨울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앞줄 맨 오른쪽) 여사가 1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떡볶이, 납작만두 등을 맛보며 상인과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안성환 기자 asw0727@imaeil.com

또 새해 인사를 나누며 목도리·땃신 등 방한용품 등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회원들

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전국을 돌며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

했다.

김 여사가 혼자서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현 기자 sontag@imaeil.com

설
렘 가득한 선물 ▶12~17면





성주촌 공식 운영

성주참외공식쇼핑몰

www.sjchamoe.com

칠곡할매들 尹 대통령 만나다

총장 때 SNS서 글꼴 사용
새해 연하장에 애정 과시
오늘 서울 나들이에 나서

‘칠곡할매글꼴’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일명 칠곡할매들이 12일 서울 나들이에 나선다. 이번 나들이에선 할매글꼴로 새해 연하장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칠곡할매들 주변 지인과 지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칠곡할매들은 이날 단체로 서울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 칠곡군수도 지난 7일 열린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이를 가볍게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면 자신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대통령께 이들 할매들이 어떤 메시지를 각자의 이름 글씨체로 손수 써서 전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칠곡할매들의 인연은 2020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소셜



칠곡군 권안자 할머니가 윤석열 대통령이 칠곡할매글꼴로 연하장을 만든 데 대해 칠곡할매글꼴 주인공들을 대표해 감사사를 전하고 있다.

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칠곡할매글꼴을 사용하면서 시작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각계각층에 보낸 연하장 글씨를 칠곡할매 중 한 분인 권안자체로 만들어 전국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또 한 번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할매들과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면 SNS로 인연을 맺은 지 2년 만에 감격스러운 대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칠곡할매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젊은 날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실’을 통해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웠고, 칠곡군은 할머니들의 글씨 400개 중 5종을 뽑아 2020년 12월쯤 칠곡할매글꼴을 만들었다. 이때 선정된 어르신이 추유을(89), 이원순(86), 이종희(81), 권안자(79), 김영분(77) 할머니다.

칠곡할매들은 글꼴을 만들고자 4개월간 각각 2천 장에 달하는 손 글씨를 써가며 연습했다. 할머니들의 이름을 따 권안자체, 추유을체, 이종희체, 김영분체, 이원순체로 빛을 보게 됐다. 이후 글꼴은 한컴오피스·MS워드·파워포인트 등에 정식 글씨체로 등록됐고, 국립한글박물관은 칠곡할매글꼴 5종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한 칠곡 군민은 “칠곡할매와 윤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면 칠곡군의 평생교육과 인문학의 힘이자 승리이고, 우리의 자랑이다. 또한 작은 것이라도 곳곳을 쟁겨보고 소통하는 윤 대통령의 애민 리더십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hello@imaeil.com

누가누가 잘 그리나



11일 대구 남구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열린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 미술 실기고사장에서 회화전공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유화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jymaeil@imaeil.com

우동기 “4월쯤 지방정부 조직·인사권 대폭 풀 것”

“경험해보지 못한 자치제 시작”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4월쯤 지방정부에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을 대폭 풀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산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환경청, 노동청, 중소기업청 등 특별행정관서의 지방이양과 무늬만 자치경찰제인 자치경찰제를 이원적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자치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에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며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기관은 2단계로 지방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했다.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 메이트제 도입과 특별회계 등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등 지방과 관련된 교육 정책도 언급했다.

지방대학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부모에게 비자를 줘 그 지역에서 번 돈으로 유학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신이민정책도 제안했다.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도 거론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는데 민간자본이 장기간, 10년간 투자했을 때 소득세를 완전히 감면해준다는지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것을 가상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기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범어에일린의뜰 5억 떨어져 신저가 하락액 전국 최대 폭

(85㎡)

대구 부동산 침체 현실 반영
10위에 ‘남산역화성파크드림’
신고가 상승액 50위엔 없어

전국 아파트 신저가 하락액이 가장 큰 곳은 대구 ‘범어에일린의뜰’ 전용면적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1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주)방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제 기간 및 최근 1년 신고가와 신저가 자료를 내놨다. 전제 기간은 2006년 이후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신저가 하락액 1위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에일린의뜰’ 전용면적 85㎡였다. 지난해 12월 19일 6억5천만원에 거래됐는데 직전 거래 때인 2021년 7월 24일엔 매매가가 11억7천220만원이었다. 5억2천220만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전국 아파트 신저가 하락액 상위 50위권에는 대구 아파트 한 곳이 더

이름을 올렸다. 중구 남산동의 ‘남산역화성파크드림’ 전용면적 74.2㎡는 2018년 12월 21일 4억9천2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후 거래가 성사된 2022년 12월 20일엔 매매가가 2억8천만원으로 2억1천200만원 떨어졌다. 하락액 순위로는 전국 10위를 기록했다.

전제 기간 하락률로 따져도 하락액 1위인 ‘범어에일린의뜰’ 전용면적 85㎡가 -44.5%로 1위였다. 2위는 하락액 10위였던 ‘남산역화성파크드림’ 전용면적 74.2㎡(-43.1%). 대구 아파트가 하락률 1, 2위를 차지한 것이다. 3위는 부산의 ‘비룡벨로스텔라’ 53.0㎡로 -42.1%로 집계됐다.

반면 전제 기간 신고가 상승액을 기준으로 상위 50위권에는 대구 아파트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저가 하락 부문에서 대구 아파트가 상위권에 있다는 건 대구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침체됐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가뜰이나 높은 금리가 더 오를 조짐이어서 당분간 시장이 활기를 띠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통합형 수능 우려 난이도 조절할 것”

이주호 ‘문과 침공’ 해소안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과생들이 문과에 지원하는 ‘문과 침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대학 입학처장 간담회를 열고, “수능 과목으로 인해 입시에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대학 등과 소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둘러싸고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2년째를 맞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와 관련해 입시 전형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은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융합형 인재 교육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2022학년도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국어, 수학은 물론 탐구에서도 계열 구분 없이 선택 과목을 골라 응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학과에 인문·자연 계열 구분을 그대로 두고, 자연 계열 학과 의 경우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 탐구에서는 2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포스코홀딩스 실리콘밸리 진출 사무소 열고 벤처기업 발굴 시작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개소했다.

11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산호세에서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포스코 측은 이번 사무소 개소에 대해 포항·광양·서울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공간 체인지업그라운드와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미국으로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승혁 기자 psh@imaeil.com

제44회 세계양봉대회 대상수상



전국택배 080.999.9898 | 안상규벌꿀

안상규 | 양봉신지식인 1호/이동양봉 경력 41년/청와대 최초 벌꿀 공식 공급/벌수염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
제44회 세계양봉대회 대상수상/2020~2022 국회양봉환경프로젝트 총괄 www.beeman.co.kr

안상규벌꿀은 시중유통을 하지 않으며 직영점(고산점, 동명점, 수성못점, 상서점, 구미점, 여의도점)에서만 판매 합니다

尹 “선의 의존 평화는 가짜…도발엔 강력 자위권”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장병 훈련 자체가 중요 작전
실효적 전쟁 대비 연습돼야

中 비자 중단 외교 문제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제 종전선언이냐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외교부와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라며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매너리즘에 빠진 군 교육 훈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며

“30년 전에 했던 교육 훈련 체계를 갖고 지금 할 수는 없다. 고생시키는 체력 훈련을 훈련이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이 군에서의 교육과 훈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장병에 대한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많은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어 입국에 대한 우리나라 출입국 및 방역 조치와 관련, 중국이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등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선 ‘외교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긴장 같은 것들이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 이는 외교 문제도 아니고,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aeil.com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장 신년인사회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현장최고위
하루 만에 민생 행보

“국민과 역사 반드시 승리”
친명계 “야당 대표 죽이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루 만에 민생 행보를 재개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 대표는 11일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날)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낚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역사의 전진을 믿으며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통째로 구멍 났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정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실은 만사를 제쳐놓고 당권주자 줄세우기, 권력 장악에 골몰하고 있다.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며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도 쏟아냈다.

친이재명계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압호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성남FC 사건은 죽은 사건을 되살려 정적을 죽이려는 조선 시대 사화 같은 사건”이라며 “현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죽이기는 사회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잔인함, 악랄함, 비열함의 종합선물세트”라고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중진인 김태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인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검찰 권력이 망나니 칼춤을 자행하고 있다”며 “(촉구단을 운영하며 매년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강원FC의 구단주 김정복 인천시장, 대구FC의 홍준표 대구시장도 제3자뇌물공여죄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영훈 기자 green@maeil.com

유승민 “洪시장 그렇게 할 일 없느냐” 홍준표 “연탄가스처럼 올라와 이간질”

劉 아시아포럼21-洪 SNS 설전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서로를 향해 날이 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과 관련해 해명하다 자신을 ‘배신자’라고 칭하며 최근에도 비판을 이어오는 홍 시장을 언급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홍준표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 달변 삼키고 쓰면 벨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친박하고 반박한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에게) ‘출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였다’, ‘탄핵당해도 싸다’라고 말했던 것이 홍 시장”이라며 “그런 홍 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대구시장이 그렇게 할



12년 전인 2011년 7월 13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당 최고위원이었던 유승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일이 없나?”라고 물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제가 대구가 고향이라서 늘 관심 있게 본다. 30년째 대구가 1인당 GRDP 꼴찌인 것을 고민해야지, 페이스북에 남 비난하고 대구시장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자리인지 몰랐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즉각 답했다. 당일 오전 9시 47분쯤 페이스북에 “드디어 첫 반응이 나왔네”라고 시작하

는 글을 올렸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GRDP 꼴찌를 만든 장본인이 적반하장으로 대구를 팔고 다니니 가관”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의 대구 경제 관련 언급을 가리키며 “내가 중앙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당 상임 고문이기 때문이고, 관여하는 시간은 하루 30분도 되지 않는다. 그 외 시간은 대구 시장만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나라의 존망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페이스북 등을 통한 중앙정치 언급에 대해 재차 설명하면서 “연탄가스처럼 틈새만 있으면 올라와서 당원과 국민을 이간질 하는 그 못된 버릇은 새해가 됐으니 모두 버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젠 개과천선하시라”고 했다. 이수현 기자

나경원 30.7% 1위…김기현 18.8%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안철수 ‘수도권 연대론’ 강조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 대표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팡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묻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 전 의원이 30.7%로 가장 높았다.

김기현 의원(18.8%), 유승민 전 의원(14.6%), 안철수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5.3%), 윤상현 의원(2.4%), 조정태 의원(1.9%)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된다.

최근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지만, 나 전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가장 높은 지지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처럼 여론조사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이날 서울시장 신년인사회에 총출동해 저마다 총선 승리를 외치며 각축전을 벌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기현 의원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연일 세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지지율”이라며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수도권 연대론이 부상, 김 의원과 경쟁을 벌이는 구도로 흐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위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p). 유선 전화 면접(11.0%)·무선 ARS(89.0%)에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영채 기자 pyc@maeil.com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2023 癸卯年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경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경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박순득

부의장
안문길

위원장
이동욱

위원장
전봉근

위원장
김상호

위원장
손말남

부위원장
김화선

부위원장
권중석

부위원장
김인수

부위원장
김개태

의원
강수명

의원
박미옥

의원
양재영

의원
윤기현

의원
이경원

*진위한 임상 사포닌 CK 함량 비교 **피부차별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적용 실험 결과 (4주 후 사용 결과) | 대상: 30~60세, 31명 | 시험기관: 피연케이티뷰임상연구센터㈜ |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 ~ 2021년 05월 03일

폐짓값 폭락에 우는 노인들 “종일 주워 1만5천원”

불황에 수요 급감 생계 막막
1년새 kg당 153→84원 하락

“한달 꼬박 일해 30만~40만원
국수 한 그릇 사먹기 힘들어”

“폐짓값이 떨어졌다고 못 그만두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
하니까.”

지난 6일 오후 4시쯤 대구 서구 원대
동 한 고물상 바닥에 매립된 대형저울이
A(71) 씨가 모아온 폐지 더미를 207kg
으로 측정했다. 고물상은 폐지 1kg당
70원으로 계산해 A씨에게 1만5천원을
건넸다.

돈을 받아든 A씨의 장갑은 검은 때가
타 새까맸다. A씨가 이날 집을 나선 시
간은 오전 5시. 장장 11시간을 일해 점
심도 빵으로 때우면서 번 돈은 1만5천
원이었다. 시급으로 따지면 1천300원
인 셈이다. 그나마 이날은 수레에 고철
과 책이 섞여 있어 가격을 더 받은 ‘운
수 좋은 날’이었다.

A씨는 항상 오전 5시면 집을 나선다.
전날 모아온 폐지나 플라스틱, 고철 등
을 수레에 실은 뒤 서문시장 등 중구 일
대를 쉼 없이 누빈다.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만큼 수레를 채우고 나서야 그는
서구 원대동에 있는 고물상으로 발걸음
을 옮긴다.

A씨가 더우나 추우나 폐지를 수집한
지는 벌써 10년째다. 하루 1만원, 일주
일에 6일을 일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30만~40만원 남짓이다. 최근 폐
짓값은 폭락한 반면 물가가 너무 올라
생활은 급격히 힘들어졌다. 그는 “너무
힘들게 번 돈이라 막상 쓰려면 아깝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국수 한 그릇
먹기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2023년 새해, 폐지 수집 노인들이 어
는 때보다 춥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
다. 경기 침체로 종이 수요가 급감하면
서 폐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2020
년 3월 kg당 55.6원으로 최저치를 찍은
폐짓값은 지난 2021년 12월 kg당 153
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
난해 말 기준 84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폐짓값 폭락의 여파로 압축장과 제지
공장에도 폐지가 쌓이고 있다. 환경부
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제지
회사의 폐지 재고량은 14만4천톤(t)에
이른다. 폐지 재고는 지난 2021년 평균
10만1천t이었으나 지난해 연말 20t까
지 늘었다.

업계는 폐짓값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



폐지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 11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 인근 도로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쌓은 수레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안성환 기자

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경기침체
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새 학
기와 이사철이 몰린 봄에는 폐지 공급
이 더욱 늘기 때문이다. 중구 한 고물상

업주는 “일주일애 2~3번 정도 압축장
에 폐지를 넘기는데 거기서도 재고가
너무 많다고 양이나 횟수를 제한한다”
며 “폐지는 1kg당 마진이 10~20원밖

에 안 된다. 그렇다고 어렵게 수집해 온
분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다”고 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maeil.com

김주원 수습기자 kjw@maeil.com

동급생 괴롭히고 생중계…처음 아니다

“PC방에서 옷 벗기고 댄스 강요”
가해 중학생 관련해 추가 증언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확대

대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
고 SNS 라이브 방송을 한 중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매일신문 1월 10일 보
도)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로도 확
대되고 있다. 과거에도 피해 학생을 성
추행하고 괴롭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동급생을 모텔로 불러 옷을 벗기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보통신망법 위
반 혐의에 집중됐던 수사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공동폭행 등으

로 넓히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동부경
찰서 관계자는 “최초 신고 내용을 바탕
으로 어떤 행동들이 죄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0
분쯤 동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을 성추행
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정
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중학생 3
학년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괴롭힘은 없었다’는 초기 진술
과 달리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 학생 2명은 라이브 방송 당시
피해 학생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적인 행
동을 강요했다.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노래를 강제로 사기기도 했다.

방송을 본 한 학생은 언론에 “(피해
학생이) 엄청 맛있게, 울면서 목숨을 끊
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모

텔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모텔에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소리
를 질렀으며, 방에는 주류도 있었던 것
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이 예전부터 괴롭힘을 당했
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
공개한 동영상에는 피해 학생으로 추정
되는 인물이 PC방에서 상의를 벗고 ‘제
로투 댄스’를 추는 모습이 담겼다. 동급
생 여러 명에서 웃는 장면도 찍혔다. 영
상 촬영자는 “끝까지 추라”며 재촉하기
도 했다.

채원영 기자



‘위국헌신’ 故심정민 소령 1주기 추모식

“국민 안전 위한 선택 본 받아야”
능인고 내일 흉상제막식 열어

화성시 관항리 주민들과 학생들의
목숨을 살린 고(故) 심정민 소령의 1주
기 추모식이 11일 서울 전쟁기념관에
서 열렸다. 1년 전 오늘, 심 소령은 수
원 제1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했으
나 곧 전투기의 엔진 고장을 직감했다.
탈출할 수 있었으나, 바로 앞에 수원과
학대학교와 민가가 있음을 재차 확인
하고 기수를 태봉산 골짜기로 돌린 후
전투기와 함께 산화했다.

1991년
신병 추모사업회 이사장은 “위국헌
신 군인의 명예를 선택한 심 소령의 정
신은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각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화가 진행되던 1시 40분쯤부터 약
15분간 추락지점이 보이는 태봉산 상

공에서는 선후배 조종사들의 추모 비
행이 시작됐고 이 영상이 정면에 있는
스크린에 공개됐다.

추모회 참석자들, 특히 유족들은 국
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목숨을 바친
영웅에 대한 국가의 정성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심 소령의 큰 누나인 심정희 씨는 유
족을 대표한 인사말에서 “동생의 몸은
이승을 떠났지만, 그 정신만은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기를 간구한다”
고 말했다.

추모식이 끝난 후 유족과 심 소령의
일부 동료들은 공군이 준비한 버스 편
으로 대전 현충원 제7묘역을 찾아 심
소령의 큰 뜻을 또 한 번 기렸다.

한편 오는 13일 오전 대구 능인고 교
정에서는 심 소령의 흉상제막식이 열
릴 예정이다. 이후로 기자

매일안내

1등광고

매일안내

광고문의 및 접수

T.(053)251-1234, 080-711-2001

F.(053)255-7886

광고료 입금계좌

대구은행 069-05-138135-001

농협 703-01-341142

예금주 : 매일신문사

부동산

빌라/원룸

공단역 이곡동 (5분)
대지325원 원룸10 투룸6가구
보7700만원 월660만원
매14억(조정) 010-3528-3307
No. 7-17-261 달서구 동아부동산 정동섭

상가

일반상가

신축 요양병원매매
대440 건1850 용안고
5억인수 베드 250개
현재 환자 130명 053) 552-5000
No. 27170-2019-00025 서구 대동부동산 김영기

포항북구일반상업
바다근점
대160㎡ 건115㎡
2층 8x8m 매2억
(시세반, 재개발) 010-5523-3641

대지/임야/공장
비산동 땅
1,136㎡(344)
10m도로 21억
동 준공임지적 462㎡(140)
12억5천 정비공장 가능, 공
장·창고 신축자리 010-3225-1189
No. 27170-2018-00043 서구 뉴성당부동산 김영현

※ 성서공장 매매
대지 500 · 1000
581-7733
No. 27290-2017-00023 달서호림 청림부동산 안영석

※병원 상가 신축
부지
유동인구바글바글(현 모텔·월2000
만)대지450 당2500만 전속중개물건
(사전내사 예약필) 053) 521-0418
No. 27170-2020-00012 서구 은누리부동산 안영석

창녕 촌집 급매
919m² 동명 1억1천만원
010-8678-2269
No. 27290-2018-00072 달서구 이곡역부동산 설태우

모텔
모텔매매 15억 인수
대1110㎡
객49 (용·보별) 월매 9천만원 이상/
매매 6억인수 대340㎡ 객30
월매4500(단독위치) 053) 521-4949
No. 27170-2019-00025 서구 대동부동산 김영기

기타 부동산
상인동 커피숍
264㎡
(80)
보2천 월100/골프장 매매 타석9개
룸2개 보5천 월330 가격절충
010-9294-9006

대구 최고 스크린
골프장 매매 역세권 위치
최고
스타벅스 신축매매 627-5002
No. 7-17-4749 달서구 청안공인중개사사무소 하성모

부동산 교환

※교환 전문 상담
대지·상가·모텔·
임야 다량보유 010-8825-3413

모집

배달직

배달원 급구
경산시 일량음 010-2517-1109

배달원 구합 평리동, 비산동,
내당동 오토바이 소유자
우대 남녀노소 가능010-2802-6313

배달원 모집 남대구·
교대
영대지국 010-8567-4171

배달원 급구 대신동일대
남녀노소
252-7741-010-2511-1274

배달원모집 중구
휴학생우대,
초보가능 중로지국 257-2902

배달원 급구 963-7355

배달원 급구 파동 일대
남녀노소
767-3649

배달원모집 안심·2동
일대
남녀노소가능 962-3290

배달원 달성농공목포음면소재
지,남여노소,정년,퇴직자,
오토바이소유자 우대010-3521-9876

배달원모집 용산동·
아곡동일대
남여노소, 주부우대010-2534-5529

배달원모집 성당/두류동
일대 남여노소
감삼동류3지국 010-3071-3529

배달원 급구 범어4동일대
업체최고대우
중범여지국 010-3515-6388

아파트 배달 원 시지, 노
변동 남고산
지국 791-3061-010-2873-8885

대명4동 일대 남여노소,
오토바이 소지자
서대명지국 010-3511-0195

배달원모집 만촌1동
754-4370

만촌3동 일대 배달원
모집
남녀노소 최고대우 010-3513-0826

신문배달 고산 1,2,3동 시지
지역 남여노소 최고
대우 794-0228-010-7929-8533

배달원 동구 방촌동
남여노소가능, 오토바
이 소유자 우대 010-5584-8331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배달원
숙식 제공 불로지국 985-1137

배달 사원 오토바이소유자 및 송
현1·2동가주자 환영 송현1
동지국 625-6315-010-2809-0030

배달원모집 봉곡/이천동
오토바이소유
자 특대우 남부지국 471-9478

배달원모집 오토바이
소유자
노원동 3공단 010-6509-9174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2년단11736 대구가정법원

파생속인 : 망 김대중 (1934.06.11.생)

사망일 : 2022.10.31.

최후주소 : 대구 달서구 대명동 29, 802동 1804호 (도원동, 나래마을)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 1. 12.

청구인 : 김현학

주소 : 대구 달서구 대명동 33, 103동 804호 (성당동, 성당태왕아너스메트로)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994

폭행

피고인 권우를

위 피고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 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3. 1. 10.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지나

매일안내

광고문의

080-711-2001

매일신문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에는 한 호텔 건물이 군데군데 도색이 벗겨진 채 수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김도훈 기자

신규사업 지지부진 찾지않는 보문단지

호텔·신라밀레니엄파크 방치
민간 사업자 부지 매입 후
수년간 착공 않고 하세월
부동산 투기 악용 우려도

11일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한 호텔 건물. 건물은 군데군데 도색이 벗겨진 채 방치돼 있다. 마당 구석엔 한 때 보문호를 운항했던 낡은 유람선 2척도 흉물스런 모습으로 놓여 있었다.

1979년 개장해 특급호텔로 이름을 떨쳤던 이곳은 2015년 모기업의 부도로 폐업한 뒤 9년째 방치되고 있다. 2016년 부산의 건설업체 (주)유림이엔씨가 이곳을 인수한 뒤 리모델링해 다시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금껏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보문관광단지 내 민간 사업자의 신규 사업이 지지부진해 단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단지 내 핵심 상업시설인 보문상가(2만5천여㎡)나 드라마 '선덕여왕' 촬영지로 유명한 신라밀레니엄파크(17만4천여㎡)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문상가는 2019년 (주)모다아노침이 매입했다. 모다아노침은 의류아울렛인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업체다. 모다아노침은 앞서 2013년 매입한 상가 인근 땅(1만5천여㎡)을 함께 활용해 대형 복합아울렛을 조성하려 했으나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신라밀레니엄파크는 2016년 모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절차를 밟으

며 방치돼 왔다. 이후 2020년 2월 경주 힐튼호텔 운영사인 우양산업개발이 경매로 낙찰 받았다. 당초 우양산업개발은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편의시설을 추가해 다시 관광 명소로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으나 만 3년이 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문관광단지를 관리·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 공사는 지난달 22일 해당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 촉구를 호소한 게 전부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이 부동산 투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자가 부지만 매입해 놓고 시간을 끌며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훗날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자의 빠른 착공을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공사가 사업자와의 계약서에 착공 기한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다. 이후 국민권익위가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합리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지침을 내리면서 사라지게 됐다.

경주지역 한 인사는 "계약이란 것 자체가 쌍방 합의에 의한 것이고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의 사업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hoon@maeil.com

설 앞두고…찾아가는 백신 접종·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대구시 4대 분야 시민안전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00억원

일상 회복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시가 연휴에 대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오는 27일까지 ▷걱정없는 '시민안전' ▷부담없는 '민생안정' ▷불편없는 '시민편의' ▷소외없는 '온기나눔' 등 4대 분야, 17개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재해와 감염병 확산 저지에 집중한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자연재해 위험지역과 다중집합시설 등 58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화재에 대비해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강화하고, 산불 방지 비상근무를 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추가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비상방역상황반도 운영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연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휴일에도 문을 여는 원스톱진료기관 180여곳을 확보하고, 각 구·군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12곳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120달구벌콜센터와 대구시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24곳, 33개 성수품 가격 동향을 매일 관리한다.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이달 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14~24일에

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24곳의 주차를 허용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민 불편을 자아내는 교통 혼잡 및 생활 쓰레기 수거 대책도 마련했다.

연휴 기간 교통중립상황실을 통해 혼잡 예상 구간 116곳을 집중 관리해 교통 체증에 대비한다. 공공기관 등 주차장 650여곳, 3만7천여면은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은 22일 설 당일 외에는 정상 운영된다.

장성현 기자 shjang@maeil.com



큰고니 무리 유유자적

11일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신지 연못에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고니'가 무리지어 물살을 가르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 월동 중인 큰고니 무리를 볼 수 있는 안심습지로부터 5km 가량 떨어진 이곳에서도 큰고니 50여 마리가 목격돼 눈길을 끈다.

우태욱 기자 woo@maeil.com

경북 '위라벨' 전국 꼴찌, 대구는 평균 턱걸이

일·생활·제도 모든 분야 불만족

경북 지역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이른바 '위라벨 지수'다. 대구 지역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수준도 전국 평균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11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일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각 지역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조사해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지수는 100점 만점에서 54.7점으로, 전년(53.4점)보다 1.3점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64.1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62.0점), 세종(60.8점)이 뒤를 이었다.

경북(47.3점)은 하위권인 울산(47.3점), 강원(48.9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북은 ▷일(12.7점) ▷생활(15.1점) ▷제도(14.6점) ▷관심도(4.9점)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지난 2020년 전국 16위(47.9점)에서 더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54.8점)는 전국 10위로 중위권에 들어갔지만 전국 평균(54.7점)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대구는 ▷일(13.5점) ▷생활(15.1점) ▷제도(16.6점) ▷관심도(9.5점) 등을 기록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maeil.com

조계종 사찰 관람료 감면 결정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방문객에게 받는 관람료를 감면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식은 연구 용역이나 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진우 스님은 정부 예산이 한정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인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말하는 정부 지원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올해 5월 4일 시행된다. 이를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심한재 기자 gjswo0302@maeil.com

1 • 등 • 광 • 고

매 일 안 내

광고문의 및 접수
Tel.(053)251-1234, 080-711-2001
Fax.(053)255-7886

광고료 입금계좌
▶대구은행: 069-05-138135-001
▶농협: 703-01-341142
▶예금주: 매일신문사

행복한 미래가 있는
결혼정보
초·재혼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개인, 웨딩샵, 스튜디오
광고문의: 251-1234

국내 **한국결혼상담** 초혼
국제 **재혼**
전문(의사, 법조인, 공직)
010-3810-3003 대구 중구 태평로 273
010-8181-8024(육소장 전문직 상담)

국내 **수임결혼정보** 초혼
재혼
(초혼) 의사·교사 등 대구경북·서울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 공직, 안정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9245(관음동111호) 010-2006-38

유익한
생활정보
광고문의: 251-1234

파산 면책 / 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804호
010-6429-3814

병원·의원·약국 개원
컨설팅전문 임대/매매/양도양수
金興助 김흥조 상무이사
☎ 010-7317-4579

진산철학관
사주, 점성, 궁합, 결혼, 부부운, 건강운,
사업운, 학업, 승진, 전직, 시험운, 이사,
매매운, 택일, 사생, 병영임이 고생하는분,
친월상담, 즉석선지, 한양대 생활역학 171 출입
장소: 지하철2호선 내동역 2번 출구 / 밀사구 파도고개로 207
파도고개 방향 350m 우측(미용실 2층)
전화: 654-7145, 010-8566-8497

13인승 대형개인택시
골프·외전 및 관광도~!!
가족 및 계모임, 단체는
13인승
솔라티 택시!
010-5877-3336 / 010-3824-5775

33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대표이사 권오섭
청구도시락
출장부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훈기나는
조림식 전기온돌 판넬
전식온수온돌
바·닥·난·방
■누수가 생기는 곳, 당일시공·당일사용■
연료비 약 40% 절약, 품질은 X-L파이프 수명과 동일
W우진산업 우진출기나
www.woojinondol.com
40년 전통 배터난방 전문 생산공장 053)581-0111~2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의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2112-2(명덕역1번출구)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 당일내)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 ~ 120만
80년 연구한 가발! 셀모가발 010-6250-3899
(국제기능대학 산업석사, 가발명장 중서)

가발명장 1호
천정일
가발명장 1호
셀모가발 010-6250-3899
(반월당 23번 출구앞)

Hello, 2023 행복하소서 건강하소서

2023년 계묘년(癸卯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환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대구경북 지도자 재평가 필요...‘박정희 신공항’ 명명 추진”

양재곤 제16대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신임회장

지난달 29일 취임한 양재곤 제16대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신임회장은 설립 30년 만에 자기자본 725억원(2021년 기준)에 달하는 종합건설기업을 일군 기업가다. 기업의 꾸준한 성장을 이룬 바탕에 대구경북이 배출한 지도자들의 정신이 있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원효로1가에 위치한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에서 만난 양 회장은 “대구경북이 배출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을 인생의 참고서처럼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 근본”이라는 현장 구절처럼 늘 국가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양 회장은 남은 삶의 일부라도 “나라를 위해 의롭게 쓰자”는 결심에 시도민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취임 소감은?

▶지난달 29일 취임식에 바쁜 일정에 도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화환을 보내주셨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대통령 축하사를 대독해 주셔서 특별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상임부회장들과 25개 각 시군 향우회장님, 사무처 직원들과 현충원 헌화 및 분향을 했다. 큰 조직을 이끄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잘 해결해 시도민회가 평안하도록 하겠다.

—시도민회장이란 중책 맡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회장을 맡겠다 생각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

▶시도민회는 정치적 결사체는 아니지만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박정희 대통령

께서 제정·반포하신 국민교육헌장을 인생의 참고서처럼 간직하고 있다.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 근본’이라는 현장 구절을 생각하며, 늘 국가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곤 했다. 되돌아보면 애국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작금의 사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다. 이에 자유대한민국의 안정과 계승 발전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삶의 일부라도 “나라를 위해 의롭게 쓰자”는 결심을 한다.

—앞으로 시도민회 운영 방안과 역점 사업은?

▶시도민회 본부에 10여 분의 고문단과 20여 분의 상임부회장단이 있다. 25개 각 시군 향우회장단, 본 사무처 임직원들과 동호회 등으로 풍성하고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회원들과 인화 단결할 것이다. 회원들과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며 발전시켜 나야할 것이다.

대구·경북은 역사적으로 호국충절의 고장이었다. 지금도 자유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보수의 성지로 자타가 공인한다. 이러한 정신은 세계사에서 유례 없는 발전을 통해 세계 6대 강국을 이룩하는 데 바탕이 됐다. 그 중심에 대구경북이 배출한 대한민국의 빛나는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현대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일환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명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한다. 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위치한 구미시 상모동이 지적에 있다. 미국 뉴욕시에 존 F. 케네디 공항이나 프랑스 파리에 샤를 드골 공항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공항에 붙이면 세계적으로 환영받을 일이 될 것이다. 또 대구·경북 시도민의 자존감



10일 서울 영등포구 원효로1가에 위치한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에서 만난 양재곤 회장은 “대구경북이 배출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을 인생의 참고서처럼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 융성이 나의 발전 근본’ 국가 보탬 되고자 중책 맡아 정전 70주년 선양사업 구상

회원 대상 인문학 강좌 개설 대구경북의 정신 계속 주입 시도민회 활기 불어넣을 것

회복과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또 현재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유골이 자택에 있다고 하는데, 생전 공과를 떠나 사자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한다. 국립대전현충원이라도 모셔야 한다. 전 대통령 유골의 안장 문제를 임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시도민회 회원 대상으로 좋은 강사진이 참여하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 대구·경북의 정신을 즐기게 주입할 생각이 다. 25개 시군과 협의해 약 200명의 상임이사회를 구성해 시도민회에 활기를 더할 생각이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이다. 시도민회에서 관련 선양사업 의향이 있는지?

▶제 고향인 의성군은 6·25 당시 인민군에 점령을 당했었다. 어릴적 탄피를 주워 옛으로 바피떡은 기억이 있을 정도니, 칠곡 다부동 전투만큼 치열하지는 않아도 상당한 전투가 있었을 것이다. 올해 임원들과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을 방문해 다부동 전투를 지휘하신 백선엽 장군과 전몰자들을 기릴 것이다. 이외에 선양사업도 구상 중이다.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도민회 차원의 대응방안은?

▶산업과 과정에서 공장이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인구가 이동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산아제한을 하면서 인구 증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한 것도 문제였다. 지방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시도민회를 비롯해 민간에서 농촌 돌아가기 운동을 하거나 국가가 나서 선분별 정책을 펴는 것도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사람이 모여드는 관청이나 시설을 이전하고 있지만 이는 중소도시에 국한될 뿐 분산 효과가 농촌과는 무관해 보인다. 이는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더 주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세워야 한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제2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것과 같이, 고향 지도자들이 대구·경북을 인공지능·바이오·신재생에너지·우주항공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메카로 일으키길 기대해본다. 일자리가 있으면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최근 저출산 문제도 심각

하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국가 백년대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세계적 불황으로 향후 여러분의 생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모에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 나의 부모는 세상에 돌도 없는 소중한 부모인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한다. 세상의 수많은 덕목 중에 남을 위해 적선하고 봉사하는 게 가장 큰 덕목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의 성의가 가장 가치 있게 쓰일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국민의 성향이 돌로 쪼개진 듯하다. 정치기들이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반드시 힘을 모아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송신용 기자 ssyt006@maeil.com 이민호 기자 lmh@maeil.com



10일 서울 영등포구 원효로1가에 위치한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에서 만난 양재곤 회장. 강경석 객원기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 9821	1	북구 팔각천동로24길40, 101동 16층 1613호 [동천동, 철곡2차영남타운]	아파트	120,000,000	
2022타경 562	1	북구 구암로22길14, 103동 8층 806호 [태전동, 철곡메디타운]	아파트	120,000,000	2022타경1008, 2022타경115537 [중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21타경 9784	1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1090-2 397㎡	대	355,229,000	일괄매각, 제치외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20길 54 단층 173.84㎡ 주택장 25.92㎡ 제치외 계단실 8.2㎡
2021타경 115566	1	중구 동인동4가 479-13 66.0㎡	대	133,306,080	일괄매각, 제치외 중구 국제보성로150길 9-3 단층 61.44㎡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114242	1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144 1868㎡ [이세희]	1	66,196,000	지분매각, 조경수 317/2825지분전부, 감정평가서상최저매각가격은조경수감안한가격, 공무와달리현황 전
	2	경산시 양량읍 내리 420-3 131㎡	전	29,47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9,475,000원
2022타경 100783	1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661 959㎡	답	812,490,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소 664 2245㎡
		동소 696-2 1733㎡	전	812,490,000	지각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자동차, 중기]					
2022타경 5802	1	사용본가치:대구 남구 봉곡로 135, 101동 905호 [봉곡동, 강변호성백련가약아파트]	자동차	26,000,000	보관:대구북구검단동1393-106, 자동차차기없어정상시작:2019
[기타]					
2021타경 7108	1	북구 노원동1가 22-4 725.5㎡	공장용지	2,715,296,860	일괄매각, 제치외 북구 노원동1가 29-1 169㎡
		북구 침산남로7길 49 [노원동1가, 주건축물 제1동] 1층 소매점397.49㎡ 2,3층 공장각397.49㎡ 4층 공장, 사무소298.68㎡ 제치외 기계실 13.7㎡	공장용지	2,715,296,860	건물포함매각, 목록3건물은실제22-4, 29-1, 31-1지상소재, 목록3의1층 소매점현황 '공장 및 소매점', 목록5 기계기구소재불명
		북구 노원동1가 31-1 55㎡	공장용지		
		소재지 북구 노원동1가 22-4 [침산남로7길 49]의 3별지 공장및광업재단 지당별 제6조 목록 제2017-331호, 제2017-332호	기계기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권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목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3. 1. 26.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3. 2. 2. [목] 14:00
4. 매각장소 : 대구지방법원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
5. 매각방법

- ①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밀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을 출납하거나 지급보증장(계좌)을 제출한 등서[일괄 보증서]를 준비하여 합니다.
- ②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최저의 가격을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개찰을 실시합니다.
-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저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① 최고와 최저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매각결정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경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분이자, 배당금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유예하며, 따라서 매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합인서 및 등록세영수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거관리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합니다.
 -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특성신장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② 임차인들과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 통지서, 현상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 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입찰방법에 나오는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고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도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소유권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하는 물건이며, 속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어 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개시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⑨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물품 가지는 가능한 법원은 법원상 제공하도록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권익을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내용으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결제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관상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개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추어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12.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훈

1 • 등 • 광 • 고

매 일 안 내

광고문의 및 접수 Tel. (053)251-1234, 080-711-2001 / Fax. (053)255-7886

광고료 입금계좌 ▶ 대구은행 : 069-05-138135-001 ▶ 농협 : 703-01-341142 ▶ 예금주 : 매일신문사

등산복 / 작업복 / 골프웨어 / 남성복 / 여성복 / 상품 다양

매스컴에서 극찬한 바로 그곳~ **KY어패럴** **생산원가이하 최저가 공장형 상설매장!** (국내 유명브랜드) (KY 어패럴 본사 1층 800평) (매주 수시 신상품)

전품목 매장 방문시 **추가할인**2017년 4월 14일 TV조선 '행복한 저녁'
(봄맞이 초저가 창고 대 방출!)2016년 6월 8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
(가격파괴 창고형 의류 판매장!)2015년 9월 1일 KBS2 '생생정보'
(불황타파! 초저렴의류 할인매장)2015년 7월 16일 MBN '리얼다큐 숨'
(대한민국 최저가를 찾아라)2015년 5월 6일 채널A '관찰카메라24시'
(창고 대개방~! 쇼핑v특구)

생산원가이하 최저가 공장형 상설매장!

매스컴에서 극찬한 바로 그곳~ **KY어패럴**

2015년 5월 06일
채널A '초특가로 모십니다'
2015년 7월 17일
MBN '리얼다큐 숨'
2015년 9월 01일
KBS2 '생생정보'

2016년 6월 08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
2017년 4월 14일
TV조선 '행복한 저녁'

정상 판매가격에서
최대 90%
할인판매

2015년 5월 6일
'초특가로 모십니다'

이월 제품
오버 생산 제품
수시 입고

2015년 7월 17일
MBN '리얼다큐 숨'

단체복 주문가능
소매·도매 판매
대량구매 문의가능

2015년 9월 1일
KBS2 '생생정보'2016년 6월 8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2017년 4월 14일
TV조선 '행복한 저녁'

KY KY어패럴

문의
전화

053)591-6328

성서공단네거리
대구 비즈니스센터
뒷편KY(케이와이)
어패럴성서로 45길
성서복합
유통단지비즈니스센터
대구
은행

성서공단네거리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 주소 : 대구 달서구 갈산동 산 57-1

KY어패럴은 연중 무휴이며 설, 추석 당일 및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휴무합니다.

영천시의회 ‘시민체육대회 예산 삭감’ 시의원-관련 단체 대립각

“웃값 안준다고 쓰는 생떼” VS “체육회 길들이려는 꼼수”

경북 영천시의회에서 삭감된 올해 일부 예산(안)을 두고 시의원과 관련 단체 간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영천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시민체육대회 4억원(10억원→6억원)과 이통장 피복비 4천980만원(전액) 등 83건, 65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영천시 체육회와 이통장연합회 등이 반발하며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시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체육회와 16개 읍면동 체육회 회장단은 최근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반납하고 행사를 열지 말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추경예산안 심의 때도 11월로 계획했던 행사 예산 10억원이 전액 삭감되자 ‘시민위에 군림하

대회·이통장 피복비용 깎자 예산 반납 후 행사 무산 추진

“하루 행사에 월세 수익 낭비” “작년 이어 또 설명 없이 줄어”

는 영천시의회는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시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행사다.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까지 통과한 예산을 한마디 설명도 없이 또 다시 삭감한 것은 체육회 길들이기 차원의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통장연합회도 지난달 21일 긴급 이사회를 갖고 시민 여론을 무시하는 시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 ‘이통장

들이 주관하는 어떤 행사에도 시의원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항의 공문까지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강경 대응 입장이다. A시의원은 “행사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인구가 영천보다 훨씬 많은 다른 시·군 체육대회 예산도 이 정도는 아니다”며 “하루 행사에 수 억원의 세금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되물었다.

B시의원은 “월 30만원의 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이통장 415명을 위해 작년에만 지원된 예산이 ▷단체장해보료 5천900만원 ▷체육대회 3천만원 ▷산업시설비 7천만원 ▷건강검진비 5천만원 등 2억3천만원을 넘는다”며 “(이통장협의회가)웃값 안준다고 생떼를 쓰는 격”이라고 했다.

강선일 기자 ksi@maeil.com

달성군 도심 힐링숲…명곡 산림욕장 개장

다양한 놀이·생태 체험공간 조성

대구 달성군이 11일 도심에서 오감을 활용해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오감만족 산림욕장인 ‘명곡숲 산림욕장’을 개장했다.

달성군은 숲이 국민의 여가활동의 주요 대상이 됨에 따라 산림휴양과 생태

교육 등 다양한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화원을 명곡리 일대에 도심형 산림욕장(4.6ha)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인 ‘명곡 산림욕장 여가복지 조성사업’으로 선정돼 완성됐다.

명곡숲 산림욕장으로 진입하는 마중 공간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해 만남의 장을 조성했고, 산림욕장 내 숲 놀이터 공간에는 유아·청소년의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야외 숲 체험 공간과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마련했다.

수변데크 명상길과 정자쉼터 등을 조성해 군민의 심신 치유 및 건강 증진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옥진 기자 penchok@maeil.com

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30% 돌려드려요

경북도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일부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인하를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경북은 경주 성동·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의 국내산 수산물, 건어물 및 젓갈류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 방문자는 이들 점포에서 제품을 산 뒤 환급 부스에 들러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수산물 구매금액(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 기준)

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최대 금액은 1인당 2만원이다.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도 신분증만 있으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한편 경북도는 20일까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펼친다.

임상준 기자 news@maeil.com



안동 암산 얼음축제.

매일신문 DB

빙어 낚고! 썰매 타고! 4년 만에 신나는 겨울

이상고온과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영남권 대표 겨울축제인 ‘안동 암산 얼음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암산얼음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 동안 안동 암산유원지 일대에서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암산 얼음축제는 지난 2020년 이상고온 현상으로 취소됐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중단이 결정됐었다.

올해 축제는 빙어낚시·스케이팅·썰매타기·팽이치기 등 다양한 온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얼음빙벽 및 포토존 조성, 얼음조각 전시, 안동의 젊은 층을 겨냥한 구성된 ‘한(寒)식구’ 운영 등을 통해 신나는 겨울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을 예정이다.

안동시 암산 얼음축제 28일 개최 빙벽 포토존·젊은 층을 겨냥한 운영 올해부터 사계절별 축제 본격화

안동시는 암산 얼음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고품격 사계절 축제의 본격 운영에 나선다.

가을에 탈춤축제와 함께 열린던 ‘안동민속축제’를 분리해 봄 개최로 변경하고, 3년 동안 중단됐던 벚꽃축제와 함께 봄 대표 축제로 만들기로 했다.

여름에는 지난해 처음 개최했던 ‘안동 썸머페스티벌’을 확장해 물놀이장과 물총싸움, EDM파티 등을 통해 무더운 한여름을 시원하게 날릴 계획이다.

가을에는 안동의 대표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을 개최해 안동

하회별신굿 탈놀이 공연, 해외 공연단 초청공연, 탈놀이단 공연, 각종 전시행사 등 볼거리와 탈춤 따라 배우기, 대동난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겨울 축제인 ‘안동눈빛축제’도 ‘암산얼음축제’와 연계해 눈썰매장, 먹거리 장터, 체험 및 플라마켓 등 자연과 추억을 활용한 가족형 축제로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영남권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잡은 안동 암산 얼음축제는 방향을 맞춘 아이들에게는 동심을,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추억을 전해주는 축제로 준비하겠다”며 “축제를 통한 관광거점도시 활성화로 일년 내내 북적이고 들쭉이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진 기자 jinee@maeil.com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의성계란현봉수(義城鷄卵峴烽燧)가 지난 10일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봉수는 조선시대의 중요 군사통신시설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경국대전, 관찬, 사찬, 지리지 등의 문헌 기록으로 확인되는 실증 유적이다.

의성에서 확인된 봉수 유적은 간접산, 대암산, 소이산, 영니산, 승원, 대야곡, 성산, 계란현, 마산 등 총 9개다. 이 가운데 봉수제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가 기간통신망으로 이용되던 봉수는 승원, 대야곡, 성산, 계란현, 마산 봉수 등 모두 5개다.

조선 軍 통신체계 의성 계란현봉수 국가 사적 올랐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의성계란현봉수는 제2로 직봉 노선상의 봉수로 건립 시기는 1760년으로 추정된다.

타일형의 방호벽과 불과 연기를 피울 수 있는 3개의 연조를 갖춘 전형적인 봉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봉수를 정비하면서 추가된 유적으

로 봉수의 시대적 변천사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봉수 노선 중 제2로 직봉 노선상에 노선 14개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봉수 노선은 최단 시간에 변경의 급박한 상황을 중앙에 전달하는 통신체계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계란현봉수 유적의 국가사적 지정으로 의성이 고대에서 중세시대까지 교통 요지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문화재청,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봉수유적의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lily@maeil.co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개> *요크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 318	1	구미시 형곡로70, 6층 602호 [형곡동, 우성크리스탈] 83.735㎡ [대항력있는임차인있음 [배당에서보충금전액변제되지아니하면전액매수인인수함]]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갑구순위번호12번가압류채권[근로복지공단]은최우선채권임
2022타경 366	1	구미시 새마을로28, 3층 302호 [형곡동, 동신아파트] 84.54㎡	아파트	105,000,000 97,000,000	
2022타경 10407	1	구미시 흥안로46, 105동 3층 301호 [목계동, 목계에덴아파트] 60㎡ [대항력있는임차인있음, 배당에서보충금전액변제되지아니하면전액매수인인수함]	아파트	105,000,000 97,000,000	
2022타경 10490	1	구미시 산동읍 신당인원1로135, 1008동 13층 1301호 [구미중흥에스-클래스에코시티] 84.8922㎡	아파트	425,000,000 425,000,000	
2022타경 10599	1	김천시 고대실3길45-14, 103동 9층 904호 [부곡동, 한일부곡타운] 59.79㎡	아파트	64,000,000 64,000,00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2타경 10780	1	구미시 형곡로29-10, 3층 301호 62.22㎡ [대지권의독자확인토지][구미시형곡동117-10]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 303.4㎡ 이나도지대장상 '대' 303.3㎡ 임]	다세대	55,000,000 55,000,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22타경 189	1	구미시 고아읍 오로라 96 651㎡ [‘휴경지’이며 ‘맹지’, 연고미상분묘소채, 농지전용형의 불거친일반누기지역농지로서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포함] 등인허가시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함]	전	88,536,000 88,536,000	전용허가불러지일경유에는합후원상회복령이발하여질가능성있음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22타경 493	1	구미시 송원서로8길 6 지하 다방157.06㎡ 1층 소매점128.54㎡ 2층 위락시설147.89㎡ 3층 사무실156.74㎡ 3층 주택156.74㎡	근린시설 및주택	944,989,600 944,989,600	일괄매각, 제치와 건물포함, 임대차 관계미상전임차임차인이존재함[대항력여부불명]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약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이반으로 실회하는 경우 그 공약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앞의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약자 우선 매수신고금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3. 1. 26. [목] 10:00

3. 매각결정일자 : 2023. 2. 2. [목] 14:00

4. 매각장소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층 입찰방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에 비치된 기입양식표에 서명·인도,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낙찰여부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기금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계약서를 제출한 문서[일괄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확인서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최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와 최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명단을 해당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저가매수신고인들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와 최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항상 매각결정기일에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은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양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통지서를 원부하고, 국민주택전환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속박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있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권 주체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 지상권 등임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채권인입고를 하고, 가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채권자를 위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민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를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방에서 낙찰 후 매각하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도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철회를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들에 매각하기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축적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분증과 도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경매공고→매각공고→선박]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만 제공할 예정임 제공하지 않거나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요청이 신청되어 있고, 대금관리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공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법보좌관 조동혁

제일레저를 검색하세요 ▼

검색

www.jeilleisure.co.kr

전국 최고의 럭셔리 매장 600평 초대형 매장

이월상품 · 특가상품 · 중고상품
(잡자는 뉴싯대보상교환)



뉴시용품전문점
제일레저

대구 동구 팔공로 535 (지묘동 83-1)

고객문의센터
(매장 연중무휴)

T. 1644-4496
H. 010-6569-5524

소득 요건 없는 '4%대 고정금리' 대출 나온다

특례보증자리론 30일 출시

우대조건 충족 시 3% 중후반
주택 가격 9억, 한도는 5억원
DSR 미적용...갈아타기 가능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증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용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증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증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시종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게 특징이다.

무엇보다 기존 보증자리론(소득 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증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증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황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증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리퍼브 가구 최대 70% 할인

소속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26일까지 8층 문화홀에서 신세계 리빙·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까사미아 클리어런스' 할인 행사를 연다. 대구점 단독 행사로 진행하며 소파, 주방용, 침실용 상품을 최대 50%, 리퍼브 상품을 최대 7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대구 신세계 제공

DGB Index <11일>

코스피 2,359.53 (+8.22P)

코스닥 709.77 (+13.72P)

국고채금리 (3년물, 연%) 3.472 (-0.084P)

환율 (원·달러) 1,246.2 (+1.5원)

금값 (1g) 75,490 (+110원)

DGB대구은행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DGB대구은행



대구청년, 실리콘밸리를 만나다

글로벌기업 엔지니어들과 멘토링

“기다리지만 말고, 목표 갖고 앞으로”

“개발자 되려면” “사업 확장하려면”
2기 출신 CES혁신상 창업자 만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난 제5기 대구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이하 청년체험단)은 10일(현지시각) 실리콘밸리 글로벌 기업을 둘러보고 이곳에서 전 세계 첨단산업을 이끄는 멘토들의 시각을 묻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체험단은 이날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컴퓨터 GPU 설계 회사로 독립형(외장) GPU 시장 점유율 80%를 넘는 압도적 1위이자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 그래픽 칩셋 1위 기업이다.

청년체험단은 이곳에 근무하는 한국인 폴 신 박사를 만나, 그의 소개로 엔비디아 업무 공간을 직접 둘러봤다.

질의응답에서 전자공학을 전공 중인 하동균 씨가 “엔비디아가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인데 특히 눈여겨볼 분야는 어디인가요?”라고 묻는 등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의 질문이 주를 이뤘다. 컴퓨터 관련 학문을 공부 중인 배지연 씨도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하는 방법”을 물었다.

창업자 단원들은 “엔비디아는 어떤



제5기 대구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은 1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한인 엔지니어와 만나 평소 궁금했던 실리콘밸리의 업무 환경과 글로벌 기업이 바라보는 미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준표 기자

방법으로 사업 확장을 해나가는지”,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소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썼다.

오후에는 로스앨토스의 커뮤니티 시설로 이동해 이베이, 인텔, 링크드인 등 글로벌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1인 기업을 위한 툴을 제공하는 씨아(CEEYA) 창업자 박기상 대표를 만났다. 박 대표는 단원들에게 “기다리지만 말고 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며 “뚜렷한 목적의식 >확고한 정체성 >협동성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조언했다.

이어 애드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몰로코의 이충구 부장이 닐슨, 링크드인, 넷플릭스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녁 시간에는 이준호 플라스크(Plask) 대표가 청년단을 방문했다. 그는 포항공대 2학년이던 2019년 2기 청년체험단에 참여했다. 이듬해 2월 포항에서 플라스크를 세웠다. 플라스크는 CES 2023에 삼성전자 C-Lab 지원을 통해 참가, 혁신상을 받았다.

홍준표 기자 pyoya@maeil.com

남선알미늄, 방화용 단창 개발 성공

이중창에 비해 저렴한 가격
숙박시설·물류센터 등 활용

SM그룹 제조 계열사인 남선알미늄이 알루미늄 방화용 단창 개발에 성공했다. 남선알미늄은 11일 알루미늄 방화용 단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방화창 성능 시험 기준인 '20분 이상 비차열(연기·화염 차단)'을 내·외측 모두 통과했다. 낮을수록 우수하게 여기는 열관류율(열통과율) 시험도 1.442로 통과해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남선알미늄은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 소재 제품으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물류센터 등 방화창이 필수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립 부분이 깔끔하고, 대형 규격 방화창 제품을 포함해 다양한 크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남선알미늄 관계자는 “기존 이중창에 비해 저렴한 단창을 출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을 넓혔다”며 “올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해 알루미늄 방화창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정은빈 기자 bean@maeil.com

네이버 '유희 당근마켓' 최대 주주

네이버가 '스페인판 당근마켓'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알라팜'의 최대 주주가 됐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알라팜에 7천500만 유로(약 1천3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집행을 마쳤다.

앞서 네이버는 2021년 2월 1억1천500만 유로(약 1천550억 원)를 투입해 10여%의 지분을 매입했고, 약 2년 만에 추가 투자를 하며 총 지분 30.5%를 확보했다. 이로써 네이버는 종전 최대 주주인 알라팜 창업자·경영진을 넘어 단일 투자자 기준으로 최대 주주에 올랐다.

연남

칠곡가톨릭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 A등급

2022 응급의료기관평가
최우수등급 획득! 대구지역 전체 2위!

칠곡가톨릭병원은 안전성, 효과성, 공공성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응급진료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24시간 전문의 5인이 진료하는 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DAEGU CATHOLIC UNIV. CHILGOK CATHOLIC HOSPITAL

알뜰한
가격

실속
살리고!

올해는 양극화 뚜렷

올해 설 명절 선물은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중저가 제품과 고급스러움을 내세운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도)' 제품군으로 소비가 쏠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유통 업계는 설 명절 기간을 앞두고 실속형 혹은 프리미엄을 강조한 선물세트를 대거 출시했다.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층과 차별성 있는 상품을 찾는 이들을 각각 겨냥한 '투 트랙' 전략이다.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한 백화점 업계는 10만원대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선보였다. 더현대 대구는 한우 선물세트를 역대 최대 물량(1만5천세트)으로 준비했다. 100만원 이상 초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50% 늘리고, 품목 수도 기존 40종에서 80종으로 늘렸다.

더현대 대구 관계자는 "최근 프리미엄 선물을 찾는 고객 수요가 늘었다. 선물세트 예약 판매 기간 상당 건수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며 "고물가·고급리 상황에 실속 있는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과 고급 선물을 찾는 소비자가 동시에 늘어난 추세"라고 했다.

친환경 마케팅도 계속됐다. 유통·식품 업계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윤리적·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일자 친환경 포장재를 속속 도입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신세계그룹 계열사다. 신세계백화점은 한우·과일 등 선물세트 85%를 재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으로 기획했다. 지난해 일부 점포에 도입한 종이로 만든 과일 바구니도 이번에는 전 점포에서 만날 수 있다.

대구 신세계 관계자는 "선물 수요가 많은 명절에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친환경 패키지를 확대 도입했다. 재생 소재 사용을 확대해 '작한 소비'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명절 선물을 '기프트콘(모바일 상품권)'으로 주고받는 이들도 늘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 규모는 2019년 3조3천200억원에서 지난해 5조9천500억원으로 84.2% 성장했다.

이 같은 추세에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과일 선물세트 2종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출시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뜰 소비'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기프트콘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이 늘면서 모바일 거래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고 전했다.

정은빈 기자
 bean@imaeil.com

상품
차별화

품격
높이고!

최고급 수제 청주 고구마 증류 소주

경주법주 & 금복주

경주법주(주)는 설을 맞아 대표명주 '경주법주', 은은한 향과 깊고 풍부한 맛의 '화랑', 세계 최고 79% 도정율의 최고급 수제 청주 '경주법주 초특선'을 선보인다.

'경주법주'는 100% 우리쌀과 우리밀 누룩으로 장기간 저온 발효, 숙성해 탁월한 맛과 깊은 향을 자랑한다. 술이 돼 나오기까지 100일이나 걸려 '백일주'라 불리기도 한다. 700㎖ 유리병, 900㎖ 도자기, 선물용 백호세트(700㎖ 2병, 원접 1병 포함) 등이 있다. 외국 국가원수의 방문과 각종 국가 차원 행사에 만찬용, 선물용으로 제공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명주로 자리매김했다.

'화랑'은 국내산 찹쌀(100%), 자체 생산한 누룩으로 150일 간 저온 장기 숙성, 향이 은은하고 맛이 풍부하다.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려 일상적으로 즐기기에 좋다. 375㎖ 날병 또는 세트로 구입할 수 있다. 3본입 세트(375㎖ 3병, 전용잔 2개 포함)는 선물용으로 적합하다. 패키지 디자인은 꽃잎 이미지와 화(花)자를 모티브로 했다.

국내 최고급 청주 '경주법주 초특선'은 몽드 셀렉션에서 7년 연속 금상을 받았다.

연간 한정 수량으로 생산되며 쌀알을 79%까지 깎아내는, 고도의 정미 과정을 통해 남은 21%의 쌀알로 만든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의 정미술. 국내 최초로 1분에 3천회 이상 회전하는 원심분리 시스템 공정을 도입, 깔끔하고 부드러운 은은한 과일향이 감돈다. 전국 백화점 및 일부 호텔 내 식당과 고급 음식점에서만 판매된다.

금복주의 프리미엄 증류주 '백로(白露)'는 국내산 고구마를 원료로 사용한 증류소주다. 전통 흑곡(검은 누룩) 발효와 장기 숙성, 냉동여과 공법 등의 현대적 증류 기술을 접목해 하얀 이슬 방울처럼 맑고 깨끗한 주질을 자랑한다.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감칠맛이 특징이다.

'제로 투'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소주다. 국내 최초로 찹쌀과 백미, 2가지 증류원액 블렌딩으로 맛이 부드럽고, 과당제로로 칼로리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정은빈 기자

한울 오복 컬렉션 행운 추첨 이벤트

AMORE PACIFIC CORPORATION

아모레퍼시픽이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한정판 '한울 오복 컬렉션' 세트를 출시했다. 한울은 한국의 이로움으로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긴 브랜드다.

브랜드 대표 제품을 다섯 가지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자연 원료의 이로움을 쌓아 건강한 피부 균형을 전달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한울 오복 컬렉션은 ▷촉촉한 복 '빨간쌀' ▷진정된 복 '어린썩' ▷환하게 밝히는 복 '달빛유자' ▷차오르는 복 '함찬콩' ▷팍 잡은 복 '부들밤' 등 한울의 다섯 가지 복(福)으로 나눠 각각 화장품 세트를 구성했다.

제품 패키지에는 한국 전통 매듭 기법인 도래매듭을 다섯 번 지어 만든 '도래매듭 참'을 달아 오복의 기운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매듭은 패키지에서 분리해 가방이나 소지품에 매달아 연출할 수 있게 제작, 소장 및 선물 가치를 높였다.

한정판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동봉된 내지를 통해 행운 추첨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스테이플리오 숙박권, 브랜드 프루아와 함께 제작한 오복 담은 에코백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전국의 아리따움 매장과 대형 마트, 온라인 아모레몰, 한울 네이버 공식 스토어, 올리브영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전 세계 고객에게 사랑을 받아온 라네즈 '크림 스킨'은 높은 보습력과 산뜻한 사용감을 바탕으로 한 저자극 스킨케어 제품. 이번에 한 단계 더 발전했다.

'라네즈 크림 스킨 세라뮤테이트TM 리파이너'는 기존 제품에 '세라뮤테이트TM' 성분을 추가로 담았다. 이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세라마이드와 피부 지탱력을 높여주는 펩타이드를 결합한 성분. 보습 효과와 더불어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을 키워준다.

또 라네즈만의 고압 블렌딩 기술(Micro Blending TechnologyTM)을 적용해 피부에 깊고 빠르게 흡수된다. 사용 즉시 피부 수분량이 8배 증가하고, 120시간 피부 속보습 효과를 선사한다. 새 패키지에는 전용 미스트 펌프를 개발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리필용 제품도 함께 출시해 지속 가능성도 강화했다.

김세연 기자 ksy121@imaeil.com

양질의 젖산 칼슘 건강 지키는 핵심

이신화 칼슘 Yisinhwa Calcium

'새로운 칼슘의 세계를 만날 기회' 이신화칼슘이 설을 맞아 칼슘 보충제 '이신화 락타에씨드 칼슘 골드'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라고 강조한다.

'이신화 락타에씨드 칼슘 골드'의 원료로 사용되는 젖산 칼슘(Calcium Lactate)은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도 섭취량의 제한을 가급적 두지 않는 고품질의 칼슘 원료다. 마그네슘 락테이트(Magnesium Lactate)와 'Dsm 비타민 D', 아연 글루코네이트, 다양한 유산균(probiotics)이 제품에 함유돼 있다.

이 제품의 주성분인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요할 뿐 아니라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 특히 비트(beet)에서 추출한 당질을 발효해 얻는 식물성 젖산 칼슘이어서 흡수가 매우 쉽다. 젖산은 인체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영양소이기도 하다.

칼슘은 위장에서 산(酸)을 강화해 염기와의 균형을 조절, 건강을 증진시켜준다. 혈액 속에서도 칼슘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양질의 칼슘을 찾아 매일 적극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하는 이유다.

밥을 짓거나 요리할 때, 음료나 커피 등에 넣어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식생활은 풍요로워졌으나 고르게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 많은 게 요즘이다. 인체에 미네랄 부족 현상도 심각, 흡수가 쉬운 칼슘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스틱 분말로 만들어져 하루 2포 섭취하면 된다. 가급적 온수에 탄 뒤 저어 섭취하라는 게 이신화칼슘 측 조언이다.

이신화칼슘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 양질의 칼슘은 꼭 필요하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각종 병원체와 싸울 수 있게 강력한 면역 체계가 필요한 때"라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과 함께 챙길 게 칼슘이다. 편리하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놨다. 미네랄을 보충하는 데도 '이신화 락타에씨드 칼슘 골드'가 좋다"고 했다.

김세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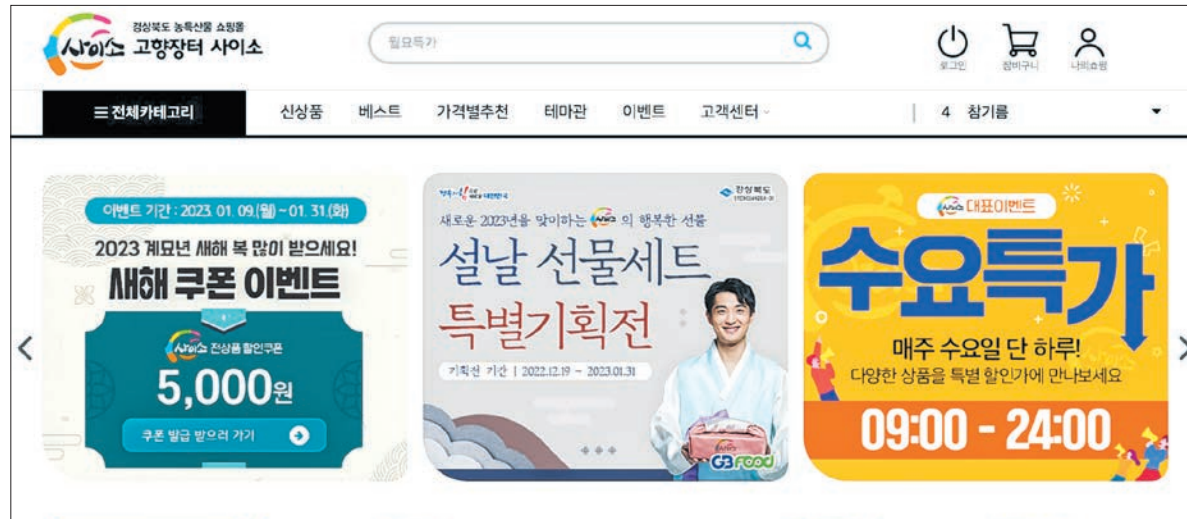
2023



경북 1700여 농가 1만여종 농식품, 한 곳에서 골라 사이소~

쇼핑몰 '사이소' 농·특산물 풍성
이달 말까지 할인 쿠폰 4종 제공

경상북도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가 명절 선물을 쇼핑하기 좋은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안동 '하회탈'이나 신라 '천년의 미소'를 담은 로고에다, 이름 또한 경상북도 느낌이 물씬 나는 '사이소'('사세오'의 경상도 사투리)는 2007년 4월 문을 열었다. 경북 1천700여 농가 및 농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1만여 종 농식품을 판매한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경북 우수 농산물, 6차 산업 인증제품 등 각종 인증제품관, 전통주 특별관, 통합과수브랜드 데일리관 등 다양한 기획관이 있다.



사이소 홈페이지 갈무리

설날·추석 명절 선물세트 기획전, 가정의 달 특판전, 매주 수요(일) 특가 이벤트 등 시기별·테마별 이벤트로 고객을 모으고 있다. 올해 설 선물세트 기획전 경우

이달 말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설 선물 할인 쿠폰' 4종을 각 1천장 씩 모두 4천장 나눠주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우체국쇼핑몰, 네이버, 카카오톡, SSG닷컴, 11번가, 롯데온, 쿠팡 등과도 제휴해 소비자 판매 경로를 확대해 왔다. '사이소 모바일 쇼핑몰'을 구축하고 제로페이와 N페이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자체 쇼핑몰 최초로 적립포인트 제도를 도입,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제페토 사이소월드'를 개설해 '메타버스 수도 경북' 입지도 키운다. 사이소는 오픈 첫해인 2007년 매출액 1억9천만원에서 2022년 382억원으로 20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원도 2천500여 명에서 8만여 명으로 늘었다. 경북도는 사이소를 통해 농업인 소득을 늘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를 이어줄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사이소 상품권을 제공해 매출 확대를 꾀하고 비교적 취약하던 수산물·수산식품 입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준현 기자 hjh@maeil.com

100% 사탕수수 포장지, 가치 소비 선도

자연 생분해 되는 햄퍼박스
감각적 디자인 더해 특별함

신세계백화점이 설을 맞아 친환경 선물세트를 기획, '제로 웨이스트' 백화점으로 도약 중이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신세계백화점이 친환경 패키지를 확대하면서 이번 설,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해 폐기물을 방지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실천에 앞장선다.

신세계는 설을 맞이해 100% 사탕수수로 제작, 자연 생분해되는 햄퍼박스를 선보인다. 와인부터 신선, 가공식품까지 식품관의 모든 상품을 고객이 취향껏 포장할 수 있는 박스로 신세계 디자인팀이 직접 제작에 참여, 친환경 소비 실천은 물론 디자인의 특별함까지 더했다. 전 점포 식품관 내에서 구매 후 직접 포장할 수 있다. 가격은 3만원.

신세계백화점은 재생 소재와 재활용 가능성을 높은 포장재를 사용한다. 한우, 과일 등 선물세트 전체의 85%를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선물세트로 기획했다.

전 점포에서 종이로 만든 과일 바구니를 만나볼 수 있다. 평소엔 가벼운 손가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도 감각적 디자인을 더했다. 사과, 배 등 과일 선물세트와 와인을 담은 종이 패키지도 달라졌다. 무(無)코팅 재생 용지에 콩기름 인쇄로 종이 박스를 제작했다. 축산과 수산 선물세트를 담은 친환경 보냉백도 확대 도입한다. 2021년 추석, 업계 최초로 페페트병을 재활용해 선보인 친환경 보냉백을 기존 75%에서 전 상품(100%)으로 확대 도입했다.

'제로 웨이스트' 백화점으로 도약 중인 신세계는 업계 최초로 종이 전단지(2011년)와 쇼퍼백자(DM, 2016년)를 없애고, 전자영수증을 도입(2017년)했다. 2020년에는 연간 약 2천400만장이 사용되던 비닐봉투를 없앴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은 "선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 맞춰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친환경 패키지를 확대 도입하게 됐다"고 했다.
정은빈 기자 bean@maeil.com

100만원 이상 '초프리미엄' 한우 날개

더현대대구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설을 맞아 20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했다. 실속을 찾는 소비자와 고급 선물을 찾는 소비자가 함께 늘고 있어 '가성비, 가성비 투트랙 전략'으로 고객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Tasty Daegu(B1)식품관과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현대식품관 투홈·현대H몰에서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지난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 선보인 100만원 이상 초(超)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는 대부분 상품이 조기 완판되는 등 프리미엄 선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더현대대구는 명절 대표 프리미엄 선물로 불리는 한우 선물세트를 역대 최대 물량인 1만5천세트 가량 선보인다. 100만원 이상 초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50% 늘리고, 품목 수도 기존 40종에서 80종으로 늘렸다. 최고가 한우 세트도 1++등급 한우 중에서도 마블링 최고 등급(No.9)만 사용한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250만원)'이 대표적이다.

증가하는 와인 수요에 맞춰 초프리미엄 와인 컬렉션 세트도 선보인다. 프랑스 5대 와인인 샤토 무통 로칠드 버티컬(5병, 1천만원), 샤토 오브리옹 버티컬(5병, 800만원) 등 20여 종의 프리미엄 세트가 준비돼 있다.

수산물 세트 경우 특대 크기 최상위 등급 참조기만을 선별해 전통 섭간 방식으로 염장한 '현대명품 참굴비 10마리 수(秀) 세트(350만원, 35cm 이상)'와 마리당 1.6kg 이상인 특대 크기만 선별한 '현대명품 특대갈치세트(65만원, 5.6kg)' 등이 있다. 또 명절 대표 과일인 사과, 배는 물론 최근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른 프리미엄 디저트 선물세트 물량도 지난해보다 50% 이상 확대해 내놓는다.
정은빈 기자

프랑스 5대 와인 컬렉션 세트
특대만 선별·염장 명품 참굴비

더현대대구가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는 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더현대대구 제공

한우 등급 올리고~ 청과 당도 올리고~

대구 롯데백화점(대구점, 상인점)이 설 명절을 맞아 20일까지 본격적인 선물세트 본 판매에 나선다.

롯데 백화점은 이번 설은 지난 설보다도 직접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프리미엄' 선물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리미엄 명절 선물로 꼽히는 '한우' 세트 경우 2022년 추서에 판매된 매출이 2021년 추석 때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구지역 롯데백화점은 주요 선물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상품을 더욱 강화하면서 가치소비 흐름에 맞는 친환경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먼저 한우 등급과 청과 당도를 상향하고 인증 수산물을 확대 도입하는 등 선물의 품질을 더욱 높였다. 지난해 판매된 전체 한우 선물세트 중 1+ 등급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코로나19 사태 이전(2019년) 대비 약 30%포인트 증가한 점을 감안해 올해는 1+ 등급 이상의 프리미엄 한우 선물 세트 품목 수를 40% 이상 늘렸다.

대표 상품은 ▷안성맞춤 한우 구이용 엄선 세트(129만5천원) ▷의성마늘한우 프레스티지 4호 세트(110만원) ▷안성맞춤한우 로얄 GIFT(57만원) ▷의성마늘한우 프레스티지 7호 세트(75만원) 등이 있다. 또한 청과 선물 세트는 ▷프레스티지 샤인/사과/배 GIFT(18만 5천원) ▷푸드에비뉴 특선 한라봉/사과/배GIFT(14만원) 등으로 과일의 평균 당도를 기존보다 약 10% 높여 선물세트의 품격을 더욱 높였다.

특히 지난 추석 때 처음으로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던 '보냉가방' 회수 친환경 프로모션은 '꽃감'과 '정육' 세트뿐 아니라 '선어' 선물세트로까지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별 특화 상품 및 매장 미입점 상품에 대한 구매도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정은빈 기자

한우 1+ 이상 품목 40% 늘려
사과·배 등 달콤함 10% 높여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이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품평회 거친 최고의 상품만 고집

대백프라자가 설을 맞아 선물의 고급화와 중저가 확대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시행한다.

고급품으로 개발된 '더 프라임(The-PRIME)', 지역친화 선물상품으로 선보이는 '로컬 그린푸드', 5만원 이하 실속형 가격 만족 선물 상품인 '굿프라이스(Good Price)' 등을 기획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안했다.

대백프라자가 이번 설 명절을 준비하는 마음은 남다르다. 지역 백화점 중에서는 유일하게 명절 선물 상품 품평회를 진행, 과일부터 정육, 수산물 등에서 최고의 상품을 고집한다. 유일하게 남은 지역 백화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대백프라자의 대표 명절 인기 선물은 청과와 정육이다.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 대백프라자의 고유한 청과브랜드 '아름다운 과수원'은 더프라임 사과·배세트를 13~15만원, 더프라임 샤인머스켓·제주향기세트를 10~11만원에 판매한다. 정육 분야에서는 안창살, 업진살, 제비추리 등 한우 특수부위로 이뤄진 '더 프라임 한우 특별한 구이세트'(150만원)를 비롯해 즐거운 명절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20~30만 원대의 점용 갈비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대백프라자 석태희 식품팀장은 "매장에서 만난 고객으로부터 명절 선물의 질이 정말 좋다는 얘기를 듣는 게 고객에게서 듣는 최고의 새해 덕담"이라며 "이번 설 명절에도 고객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했다.

한편 대구백화점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해 직원 참여형 사회기부 프로그램 '대백 한마음 플리마켓'을 9일 대백프라자 12층 문화센터에서 진행했다. 1998년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26번째 지속해온 행사다. 마련된 성금은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과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정은빈 기자

5만원 실속형 '굿프라이스'
지역 친화 '로컬 그린푸드'

대백프라자가 맞춤형 설 선물세트로 실속과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대구백화점 제공

굴비도 생필품도 지갑 걱정마세요

이마트&홈플러스

고물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대형마트는 제각각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며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먼저 이마트는 이번 설 굴비 선물세트 판매가 동결을 결정했다. 이마트는 오는 22일까지 굴비 선물세트를 지난 명절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굴비 원재료인 참조기 산지 시세는 지난해 10월 급등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1월 참조기 어획량은 2021년 같은 기간보다 40%, 25% 각각 줄었다. 이 기간 참조기 산지 시세는 15.2%, 20.8% 올랐다. 더해서 이마트는 제주 대왕갈치, 옥돔, 금태 등으로 구성된 인기 프리미엄 세트 판매가도 동결했다.

이상훈 이마트 수산물세트 담당 바이어는 “프리미엄 세트 수요를 고려해 고급 어종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가격 역시 동결해 선택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할인 혜택과 PB(자체 상표) 상품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물가 안정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이튿날 ‘2023 위풍당당 프로젝트’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전개해 수요가 높은 먹거리, 생필품 등을 최저가로 선보였다. 적용 품목은 행사를 시작한 지난해 2월 우유, 두부, 계란, 콩나물 등 12개 품목에서 연말 41개로 확대했다. 또 홈플러스는 빅데이터 기술로 ‘AI 최저가 격’ 상품을 선정하고, 이들 상품을 매장에서 이마트물 가격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 만큼 포인트 ‘홈플러스니’를 적립해 주는 ‘물가안정 최저가 보장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조도연 홈플러스 브랜드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에 지친 고객을 응원하기 위해 위풍당당 프로젝트를 연중 전개할 방침이다”고 했다.

정은빈 기자 bean@imaeil.com

고물가에 지친 고객들 위해 가격 동결·최저가 구매 보장



이마트는 오는 22일까지 굴비 선물세트를 지난 명절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마트 제공

전국 최고 품질 경산대추로 면역력 강화

경산시

경북 경산시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인 ‘경산몰(gsmall.cyso.co.kr)’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정직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경산몰은 유통단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작거래 장터다.

설명절 차례상이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면 ‘경산몰’을 방문해 보자. 경산몰에는 쌀과 잡곡, 과일류, 채소류, 축산물, 가공식품(과일즙, 원액·청·음료 등), 꿀·홍삼, 김치·장류·참기름, 한과·떡·빵류, 전통주 등 600개 이상의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다. 차례상과 명절 선물로 손색 없는 우수한 지역의 농특산물들을 판매한다.

전국 최대 생산량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경산대추는 풍부한 일조량으로 알이 굵고 당도와 무기질이 풍부하다.

대추는 영양가가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대추에 함유된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가 있다. 숙면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된다. 대추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체온이 상승해 소화 기능과 면역력이 강화된다.

현재 경산몰에서는 주로 건대추와 대추로 가공한 대추차, 슬라이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경산몰에서는 이달 30일까지(예산소진시 까지) 2023 설맞이 전품목 30% 할인 이벤트와 신규 가입회원에게는 5천원 쿠폰발급(선착순1천명)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만 이 쿠폰은 1만5천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하고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다.

경산시는 오는 19, 20일 시청 주차장에서 사과, 배, 만감류 등 과일과 버섯류, 장류, 가공식품 등 59개 품목을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설맞이 농·특산물 판매전을 연다.

김진만 기자 factk@imaeil.com

차·슬라이스 가공품도 차례상·선물 저렴하게



경산 대추

10+1·모두 무료배송...많이 살수록 이득

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설을 앞두고 온라인 공식 쇼핑몰인 ‘구미팜’을 통해 소비자에게 눈과 입이 즐거운 건강 먹거리를 실속있는 가격으로 풍성하게 제공한다.

구미 대표 농·특산물쇼핑몰 구미팜은 20일까지 설 맞이 할인 이벤트를 갖고 우량의 구미 농특산물들을 판매할 예정이다. ‘구미는 산업도시라서 특산물이 없다’는 오해를 불식 시키듯 구미팜에는 쌀·잡곡, 과일·채소, 채소·버섯, 가공·장류, 건강식품, 정육 등이 있어 폭 넓게 명절 선물을 고를 수 있다.

판매 품목은 햅쌀 같이 담백하고 차진 밥맛이 나는 ‘일선정품’ 쌀, 제조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초생 재배한 신고배, 사과, 골든키위 등이 있다. 또한 깨끗한 물에서 수경재배한 뿌리채 배송되는 채소,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된 표고버섯 등이 있으며 자연 배련 연잎을 담은 연잎차, 목장에서 아침에 짠 1등급 우유로 만든 요크르트, 건강보조식품인 사과즙과 홍삼엑기스, 아카시아 꿀 등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구미시는 설 맞이 행사로 ‘구미팜’을 통해 1만원 이상 구매시 2천원, 3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10여개 업체 품목에 한해서는 10%할인 및 ‘10+1’ 행사도 함께 진행, 대량 구매시 유익하다. 특히 구미팜을 통해 구매하는 모든 상품은 무료배송이다.

설 명절 이후에는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금오산 일대에 구미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구미시는 19억원을 투입해 구미 금오산도립공원 대추차장 예결리 옆 부지에 연면적 566.9㎡, 2층 규모의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을 오는 4월에 개장한다.

지난해에 직매장 출하능가 조직화를 위해 출하능가 인증제도를 실시했고, 430여 농가는 농산물 안전성 교육을 이수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새해 설 명절 선물은 우수한 구미 농특산물이 많이 입점해 있는 구미팜을 통해 실속있는 가격으로 행복과 진심을 전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광 기자 kwang623@imaeil.com

농특산물 온라인몰 ‘구미팜’ 1만원 이상 구매 할인쿠폰



구미시는 구미의 우수한 농특산물들을 불필요한 유통과정 없이 온라인 공식 판매처 ‘구미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1+등급 85%...한우 최대 20% 저렴

(주)민속

군위군에 있는 (주)민속은 친한우 사육부터 도축·가공·유통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대 축산 전문 기업이다.

민속그룹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판매 인터넷 쇼핑 전문회사인 (주)민속친한우 ▷도축·가공 전문 법인(주)민속엘피시 ▷가공, 한우 유통 전문 (주)민속한우 ▷한우 사료, 톱밥 무역 전문인 ㈜우호커머스 ▷식당 (주)민속한우갈비 등이 있다.

민속은 경북 북부지역에 있는 직영 및 위탁농장 50여 곳에서 한우를 사육해 도축 및 가공을 하고, 이를 자체 물류시스템을 통해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생협, 육가공회사, 식육점, 식당 등에 공급한다. 해외시장도 개척, 홍콩에도 수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자체 브랜드인 ‘민속친한우’를 설립했다. ‘민속친한우’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한우보다 유통 단계를 대폭 줄인 데다 최상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최고급 한우다. 1등급 90% 이상, 1+는 85%에 달하는 등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면서도 같은 등급의 한우라면 소매가 기준으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저렴하다.

‘민속친한우’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한 우수축산물인증위원회로부터 2년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됐다. 우수 축산물 브랜드는 전문평가단이 품질, 위생, 안전성, 브랜드 관리 등을 심사해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난해에는 ‘민속친한우’가 생산되는 도축·가공 전문회사인 (주)민속엘피시에 20억을 투자해 도축 라인 시설을 교체했다. 이런 투자에 힘입어 (주)민속한우는 농장 부분에서 2022년 HACCP 우수 작업장상을, (주)민속엘피씨는 2022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우수상을 수상했다.

권혁수 (주)민속 대표는 “품질에 있어서는 어디 내놔도 자신이 있다”며 “앞으로 ‘민속친한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희대 기자 hdlce11@imaeil.com

2년 연속 우수 축산브랜드 최상 신선도·품질 자랑거리



민속친한우

농가가 직접 농수산물 등록, 배송합니다

경주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경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경주몰’(www.gjmall.net)이 인기를 얻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16년 ‘경주몰’을 오픈했다. 지난 2011년 KTX 신경주역에 경주농특산물 판매장을 연 이후 2013년 불국점, 2014년 서울잠실 롯데월드몰 점, 2015년 경주 노동동 본점을 개점한데 이은 다섯 번째 농특산물 판매장이자 온라인 매장이자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경주몰을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참여형 오픈마켓으로 개편했다. 일반 쇼핑몰은 운영자가 상품 등록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반면, 참여형 오픈마켓은 인터파크·G마켓처럼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등록하고 배송하는 방식이다.

일반 쇼핑몰 운영방식으로는 농가가 판매 금액의 8~15% 정도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지만, 경주몰을 참여형 오픈마켓 방식으로 개편, 생산자의 유통비용(수수료)을 크게 줄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든 농특산물판매장 본점이 협조해 그동안 취급하지 못했던 각종 신선 농수특산물까지 구매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2천500만원 수준이던 경주몰 연간 판매액은 지난해 1억4천만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경주시는 오는 24일까지 ‘2023년 경주몰 설맞이 20% 특별할인’ 행사를 연다. 5만3천원에 판매하는 ‘이사금 경주쌀 20kg’을 4만2천4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그밖에 경주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공예품 등을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위한 연결고리를 강화해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널리 알리고 유통을 활성화시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도훈 기자 hoon@imaeil.com

참여형 오픈마켓 ‘경주몰’ 이사금 쌀 20kg 특가 판매

경주의 주요 농산물인 이사금 쌀.



우직하고 똑심있는 한우, 상표도 등록

김천시

경북 김천시의 자체 한우 브랜드 ‘우똥’은 공기 좋고, 물 좋은 김천의 자연 속에서 자라고 인정받은 1등급 이상 한우에만 허락된 프리미엄 한우브랜드다. 육질등급 1+ 이상 등급 출현율 51.8%로 전국평균 보다 높은 명품 한우다.

김천 한우 ‘우똥’은 우수한 유전 형질을 타고난 암소와 최상위 보종 씨수소의 뛰어난 우량 형질을 이어받고, 검증된 고품질 사료와 양질의 건초만을 먹여 높은 등급의 육질 좋은 한우로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맛을 보장한다.

또 김천 한우 ‘우똥’을 위한 전용 동물병원 운영과 무항생제 사료공급, 친환경 및 HACCP 인증제, 청결하고 깨끗한 사육환경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더불어 김천 한우 전자경매 시장 운영으로 우수한 개량형질의 소를 확보해 출생부터 도축까지 직접 관리·감독하고 랑형통 관리와 이력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다.

‘우똥’은 ‘우직하고 똑심 있게 최고의 자리에 도달하여 대한민국 명품한우로 우똥 솟아나라!’는 의미로 공기 좋고 물 맑은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한우만의 특성을 담은 상표다.

김천시는 지난 2020년 한우 브랜드 개발 역을 끝내고 2021년 3월 특허청에 ‘김천 한우 우똥’을 출원했으며 같은 해 9월 29일 상표등록을 마쳤다.

김천 한우 ‘우똥’은 김천 지역에서 혈통(고등 포함) 등록된 한우로 지역 내 사육장에 16개월령 이상을 사육하고 1등급 이상의 한우에게만 붙여지는 브랜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한우의 품질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브랜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 체인망을 갖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통한 유통을 진행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소재 김천한우브랜드 전문판매장 설립해 전국 최고 한우브랜드로 만들겠다”고 했다.

신현일 기자 hyunil@imaeil.com

1+이상 등급 출현율 51.8% 지역 혈통 우수 한우만 판매



김천한우 우똥

찰떡 양쪽에 고물 듬뿍 ‘엄마 손맛’

안동 버버리찰떡

100년 전통의 ‘안동 버버리찰떡’(www.buburi.com)은 전국적인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수작업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버버리찰떡은 고두밥으로 찐 찹쌀을 떡메로 쳐 찰떡을 만들고 정성껏 고물을 묻히거나 깔아 둔다. 찰떡 1개당 무게는 80g 정도. 세 번 정도로 베어먹기 좋도록 만들어 낸다. 40g 정도의 찰떡에다 10g의 고물을 밑에다 깔고 30g의 고물을 위에다 얹어 낸다.

오랜 세월 숙련된 손으로 만들어 내기에 떡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가지런하다. 버버리찰떡은 1922년 안동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1년 한 차례 명맥이 끊어졌다가 2004년 들어 새롭게 부활했다.

이 떡은 일제시대 때부터 안동지역 인근에서 새벽에 출발해 안동장으로 몰려들었던 장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던 한끼 대용식이었다.

안동지방 전통혼례에도 등장한다. 폐백 때 머느리를 덜 나무라라는 뜻에서 ‘버버리 찰떡’을 사다 시어머니 입에다 억지로 물리는 풍습은 아직도 안동에서 이어진다.

이렇게 명맥이 끊겼던 버버리 찰떡은 2004년 10월 ‘안동 버버리 찰떡’(대표 이보량)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대표와 남편 신형서씨는 옛날 버버리 찰떡을 만들어 팔았던 할머니들을 찾아 비법을 배우고 현대화해 상품화시켰다. 제조 방식은 기피(팔 껍질 벗기기)와 포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통 방식 그대로 수작업을 고집하고 있다. 떡메 치기와 버무리기, 고물 입히기와 떡 만들기 등 일련의 과정을 옛 그대로 재현. 할머니들의 손맛을 이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상품은 50개들이 1세트에 6만5천원, 70개 들이 8만9천원, 100개 들이 12만5천원, 150개 들이 18만4천원에 판매된다.

엄재진 기자 jinee@maeil.com

1개당 80g 세 번 베어먹기 한 끼 식사로도 안성맞춤



안동 버버리 찰떡이 100년 전통을 이어가면서 국민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매일신문 DB

시·군 최초 스마트 HACCP 안전 먹거리

달성군

대구 달성군 농·특산물 핵심 브랜드 ‘참달성’은 2006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참달성 쇼핑몰’을 구축해 277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쌀, 찹쌀, 한우 및 농산물 가공제품 등 70여종의 다양한 달성군 농·특산물을 판매, 매년 20% 이상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52억원의 판매고를 올려 누적매출액 200억원을 돌파했다.

‘참달성 쇼핑몰’은 롯데닷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농협하나로마트 달성유통센터를 비롯해 성서점, 지역 로컬푸드, 송해기념관 판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망을 확대 중이다.

달성군 농산물가공의 또다른 핵심 브랜드 ‘마스터파머’는 2018년 6명의 농업인이 가공 법인을 설립한 이래 2022년까지 총 59명의 농업인이 가공창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9년 2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2천900만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1억9천만원 등 농산물 가공을 통한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2020년 5월 HACCP 인증을 취득했고, 2022년에는 전국 시·군 최초로 스마트 HACCP를 인증 받아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마스터파머’는 지역 로컬푸드 및 농협유통센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을 비롯 인터넷쇼핑몰, 서울 상생상회 등 전국적으로도 가공제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 대구점 입점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있다. 2022년에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도 입점해 달성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참달성 쇼핑몰과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정옥진 기자 penchok@maeil.com

홍도라지 조청으로 ‘목 건강’ 선물

봉화군

봉화군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인 ‘봉화장터’가 설맞이 농특산물 특별 할인행사에 나선다. 봉화장터는 24일까지 전상품을 대상으로 3만원이상, 5만원이상 구매 시 각 7천500원, 1만2천500원의 쿠폰을 지급한다. 10만원 이상 구매 시 25% 할인이 적용된다. 또 신규회원 가입시 5천원 쿠폰도 지급한다. 쿠폰은 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1인당 1일 1회, 최대 50만 원까지 할인된다. 봉화장터는 2007년 다양한 소비자 확대와 판로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돼 운영되고 있는 봉화지역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번 할인행사에는 봉화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77개 품목을 선보인다. 명절 선물세트 상품도 판매한다. 현재 봉화장터에는 92개의 업체가 입점해 지역에서 생산된 잡곡과 사과, 송이, 한우, 장류, 참기름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봉화지역 대표 농산물인 ‘봉화사과’는 씨앗 주위에 노란색 꿀 층이 있어 속칭 꿀사과로 불린다. 공기가 맑고 밤낮 기온 차가 큰 고랭지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음데다 색깔이 선명해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다. 3kg, 5kg, 10kg, 15kg, 고급선물세트로 나눠 판매한다.

기관지와 호흡기에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는 ‘도라지 조청’도 설 선물로는 안성맞춤이다. 봉화장터에서 지난해 매출 3위를 기록할 만큼 효가가 입증된 인기 상품. 조기 품질이 우려된

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예약 주문도 가능 봉화에서 재배한 참깨·들깨로 정성껏 찐 ‘참기름과 들기름’도 설 선물로 준비중이다. 손으로 여벌 세척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최대한 건져내 생산했다.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세트 구성이라 선물용으로 좋다.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봉화장터의 농특산물은 농가 직매송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봉화군 관계자는 “코로나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비자들에게 설 선물용으로 최고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말했다.

마경대 기자 kdma@maeil.com

봉화 홍도라지 조청. 봉화군 제공



장터 할인쿠폰 대방출 92개 업체 품목도 다양



봉화 참기름·들기름 세트

‘백진주 쌀’ 서두르지 않으면 품질

안동농협의 경영방침은 ‘경’(敬)이다. 진실된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다.

안동농협은 대표 상품으로 ‘밥이 다르다 백진주 쌀’을 판매하고 있다. ‘안동생명콩두부’, ‘생강이 다르다 명품안동생강’, ‘하이진저’, ‘하이진저 레몬생강청’, ‘에이플 사과’, ‘미강마스크팩’, ‘헴프씨드’, ‘헴프씨드 오일’, ‘단백한 헴프씨 단백질바’ 등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대표 상품인 ‘백진주 쌀’은 서두르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는 품질 대란 상품이 다. 2002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으로 2011년 전국 최초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관리, 안정성을 확보했다. 2016년에는 ‘밥맛이 남다른 미스 토리아’를 수상하기도 했다.

‘안동생명콩두부’는 콩으로 만드는 건강한 세상, 우리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땅과 정성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가공, 생산해내고 있다. 100% 안동생명콩을 원료로 사용하고, 잔류 농약검사와 GMO 분석등을 통한 안전한 제품이다. 온두부제조방식으로 두부전통의 맛을 유지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HACCP지정으로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이다.

‘하이진저’는 안동농협의 주력 농산물인 명품 안동생강을 가공한 음료다. 70Kcal(1병기준)의 저칼로리 음료로 ‘무알콜 하이엔드 진저비어’다. 맥주는 아니지만 맥주처럼 발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어라고 이름 붙였다. ‘하이진저 레몬생강청’은 ‘하이진저’의 베이스가 되는 생강청으로 아린 맛을 없애고 레몬을 더해 상큼하게 만들었다. 탄산과의 환상적 궁합에다 125kcal 저칼로리로 설량을 줄인 건강한 생강청이다.

‘에이플 사과’는 영국여왕과 영국왕실이 인정한 고품격 사과다.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안동농협 공판장 방문을 기념해 만들었다.

제품 구입은 안동농협(https://www.eandong.com), 안동농협 인터넷쇼핑몰인 ‘경이로운 물’(https://n-hwondermall.com)에서 할 수 있다.

엄재진기자

안동농협

영국여왕이 인정한 사과 콩두부·생강음료도 주목



안동농협 백진주 쌀

오미자·버섯·약돌한우 주문 쇄도

문경시

경북 문경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문경사랑새장터’ 특별할인행사를 27일까지 진행한다.

또 새로 오픈한 쇼핑몰 ‘문경 새재의 아침’과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통합플랫폼구축을 기념하기 위한 설맞이 할인 이벤트도 31일까지 함께 진행한다.

문경 하면 떠오르는 오미자(전국 생산량 45%)와 사과(전국 생산량6위)와 관련된 다양한 가공상품을 비롯해 약돌한우세트, 표고버섯 등 200종류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평소 보다 4~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문경새재의 아침은 전 상품 30% 할인해주며 신규 회원에게는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생산자에는 판로의 기회를 주고 소비자들에는 설 선물 부담을 덜어 주는 실속 행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문경특산물 최고의 온라인 직매장으로 자리 잡은 이 쇼핑몰 2곳은 농가와 생산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증기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건강한 먹거리를 내놓은 결과 지난해 약 39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년 대비 15% 늘어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설 선물용으로는 국내 최고 품질의 문경오미자로 만들어 새콤달콤하고 색깔까지 화려한 오미자청과 와인, 한과, 오미자김, 당도 높고 포장까지 예쁜 ‘백설강주가 사랑한 문경사과즙’,약돌한우세트 등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경사과와 증류주, 산양삼, 표고버섯, 송화고버섯, 백화버섯, 아카시아꿀, 생강청, 꽃감, 고랭지 텃밭에서 말린 황태포 등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새재장터와 새재의 아침은 유통 단계가 없는 산지직송 서비스와 공모를 통해 결정된 세련된 포장과 빠른 배송도 장점이다. 5만원 이상 구입시 택배비는 무료다. 고도현 기자

농축산 200개 최대 25%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

꽃감·한우 등 720개 모두 30% 할인

상주시

경북 최대 농업도시 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명실상주’ 30%할인전을 27일까지 진행한다.

상주 꽃감(전국 생산량 60%)을 비롯해 한우, 쌀 등 720여개 전 품목에 걸쳐 30% 파격 할인 판매해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설 선물 부담을 덜어 준다.

상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도시다. 시설오이, 한우, 육계, 꽃감,쌀, 배, 양봉, 샤인머스켓 등 웬만한 농산물은 생산량과 품질 모두 전국 1, 2위를 오르내린다.

상주시가 보증하는 대표 브랜드 ‘명실상주’는 알려진 이름과 실제의 내용이 서로 꼭 맞다는 의미의 명실 상부(名實相符)와 상주를 합성한 것으로, 최고 품질, 이름값하는 상주시를 나타낸다.

할인행사에선 명실상주한우 갈비세트,곰탕, 꽃감, 과일, 햅쌀, 사골, 유기농식품,가공식품, 건강식품, 꿀, 차세트, 전통주, 찹쌀 고추장, 수제식혜, 사과즙, 송화고버섯 등 720여개 전 품목이 대상이다.

할인행사외에도 명실상주물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회원가입을 하면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데,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1만5천원 이상 구입시). 또 우수후기를 남기면 매주 5명을 추첨해 2만원의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상주시는 ‘명실상주물’을 이용하는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년 판매 상품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배송, 품목별 매출 분석 등 고객 응대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박호진 상주시 유통마케팅과장은 “지속은 물가를 고려해 명절 선물 부담을 덜고 마음은 풍족하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다양한 상품과 예쁜 포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명실상주물’입점 농가도 연중 모집하고 있다. 각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명실상주물’을 검색하면 사이트로 이동된다.

상주시 유통마케팅과 명실상주물 담당자(054-537-7508)에게 문의를 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고도현 기자 dory@maeil.com

전국 최고 당도와 식감 샤인머스켓

영천시

“설 명절 선물, 여기 다있어요!”
경북 영천시와 영전축협은 농특산물 쇼핑몰 별빛촌장터(01000.yc.go.kr)와 영천와인(www.ycwine.or.kr), 영전별빛한우(ycstarhanwoo.com)에서 설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별빛촌장터는 영천시가 2002년 개설했다. ‘별이 많이 뜨는 맑은 지역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 장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170여 개 농가(업체)가 입점해 전국 최고 당도와 식감을 자랑하는 샤인머스켓, 사과 등 과일류와 함께 전통장류, 양념류, 양장·한방제품 등 640여 종의 우수 농특산물을 최대 2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또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와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하나의 화면에서 다양한 상품 주문과 관리를 할 수 있다.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입금액의 5%를 적립금으로 준다.

국내 최대 포도 주산지에서 생산된 영천와인은 연간 27만병을 생산하며 국내 와인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베를린와인트로피 등 국내·외 와인품평회에서 매년 수상자를 내며 품질도 인정받았다.

지역 10여 개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레드와인 10종, 화이트와인 13종, 로제와인 8종을 비롯한 50여 종의 와인을 20% 할인 가격에 제공한다.

영전별빛한우는 고기의 마블링이 별빛을 닮아 ‘최고의 맛이 쏟아진다’는 지역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경북 최고 품질의 한우로 각광받고 있다.

연간 1천두 이상의 출하(도축) 물량 중 ▷1++등급 28.6% ▷1+등급 36.7% ▷1등급 28.8%의 우수한 출현율을 기록하며 매년 100억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우 선물세트를 비롯해 사골곰탕, 고기곰탕 등 간편 파우치 형태의 상품을 최대 3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각종 선물과 제수 용품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640여종 최대 20% 할인
한우·와인도 특가 판매



영천 와인.

영천시 제품

강선일 기자 ksi@maeil.com

성주군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경북 ‘성주 참외’가 지난 6일 첫 출하되면서 올해 참외 조수입 6천억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성주군 월항면 이원식(64)씨 시설하우스 10동에서 참외 40상자(10kg)를 출하, 한 상자당 평균 15만원에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납품돼 전국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성주군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참외 조수입 5천억원대 기록을 세웠다. 성주군은 지난해 참외 조수입 5천763억원, 2021년 5천534억원, 2020년 5천19억원, 2019년 5천50억원을 올렸다.

역대 농가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역대 농가는 2021년보다 101호 증가한 1천713호로 나타났다. 참외 조수입 증가는 참외 당도가 우수해 첫 출하부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성주군은 파악했다.

스마트농업 보급 앞장
조수입 5천억대 기록



이병환 성주군수(왼쪽)가 올해 명품 성주 참외 첫 출하를 위한 참외 수확을 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성주군은 고품질 참외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등 지원 ▷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및 농촌인력 증가센터 운영 ▷참외 품질 고급화를 위한 토양환경개선 지원, 친환경 농자재 재료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참외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참외 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위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스마트 장비 보급사업으로 무인방제기, 자동관수관비 시스템 지원 ▷스마트농업 보급사업으로 참외수경재배 기술 농가보급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참외 생산량 예측 모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 밖에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태국, 호주 등 신규 시장 개척 ▷온라인 유통 확대를 위한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꾸러미 사업 지원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등 참외 유통의 다변화를 모색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4년 연속 성주 참외 조수입이 5천억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참외 조수입 6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용 기자 yong126@maeil.com

간고등어·소주…뭘 골라도 ‘100점’

안동시

안동 청정 자연의 신선한 숨결을 머금은 농·축·특산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일부 개정돼 농축산물에 한해 2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지며 선물세트 판매에 탄력이 붙었다.

안동 특산물 쇼핑몰인 ‘안동장터’(https://andongjang.andong.gr.kr)는 설 맞이 2~15%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한우’는 특유의 깊은 맛을 간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2022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각종 평가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았다. ‘안동한우’는 양질의 사료로 평균 30개월, 800kg 이상의 소만 출하한다.

안동소주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주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안동소주는 최근 전통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해가며 매출이 상승 흐름에 있다. 안동264와인은 ‘베를린 와인 트로피’금상을 수상하며 탁월한 맛과 우수한 품질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으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안동사과는 비옥한 토질과 큰 일교차, 풍부한 일조량때문에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식감이 우수하다. 2018년부터 매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의 생일상에 오르며 높은 품질과 맛을 인정받고 있다.

안동간고등어는 단일 생산 브랜드로는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쌓아왔다. 산약은 산에서 나는 장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몸에 보약이다. 안동의 800여 농가가 연간

市 쇼핑몰 ‘안동장터’
등록상품만 3,930개



설 명절을 앞두고 안동지역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버 안동장터’에서는 2~15%의 할인행사에 나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7천 톤, 전국 산악 생산량의 약 70%를 생산한다.
안동생강을 활용한 가공품도 큰 인기다. 최근 미식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의 명품 백화점에 납품되어 고급 식자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안동은 경북 지역 최대 생강 주산지로서, 생강알이 굵고 단단하며 향이 깊은 최고 품질의 생강을 생산하고 있다.
안동시 대표 농·축 특산물 쇼핑몰인 ‘사이버 안동장터’는 안동에서 생산되는 110여 가지 농·축 특산물을 산지자로 직거래하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안동시가 2004년 4월 구축한 등록상품이 3천930여개 이른다. 임재진 기자 jinee@maeil.com

‘1등 품질’ 영양사과·버섯·꽃차

경북 영양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영양온심마켓’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양지역의 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았다.

영양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지대가 높은 곳이 많아 이곳 특산물은 식감과 당도가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영양온심마켓에서 인기를 끄는 설 선물로 영양사과와 버섯, 꽃차 등이 있다. 영양온심마켓에서는 여러 농가의 영양사과가 판매되고 있지만, 고급 설 선물로는 두 아농장(F&S)이 출하하는 ‘범등사과’가 유명하다. 두아농장은 영양지역 해발 450m 고랭지에서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단맛과 새콤한 맛의 어우러짐이 일품인 ‘로열품종 미안바 부사’를 재배하고 있다. 범등사과는 이런 사과 중에 크고 상처 없이 자란 특품만 선별해 붙이는 고급 브랜드다.

여성농부 박영희 씨가 재배하는 ‘착한송이버섯’도 눈여겨볼 만 하다. 착한송이버섯은 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의 장점이 합쳐져 쫄깃한 식감과 향이 일품인 버섯 품종이다. 줄기까지 먹을 수 있다는 특징과 특유의 맛과 향으로 저렴하게 고급 버섯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추운 겨울날 눈과 코, 입까지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꽃차도 영양온심마켓의 인기 품목 중 하나다. 꽃차 소믈리에이자 약선차 지도사인 윤동희 대표가 직접 재배하는 ‘송이꽃차’는 종류도 다양하다. 구절초, 국화, 당아욱, 팬드라미, 메리골드, 백목련, 빗꽃, 장미, 팬지 등 종류만 9가지다. 각 꽃차들은 색깔과 향, 효능까지 다양해서 선물 받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 영양군은 지역 내 특산물이 좀 더 좋은 품질로 재배되고 출하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기자 solve@maeil.com

영양군

큰 일교차 높은 지대
식감·당도 특히 좋아



영양 두아농원에서 재배·출하되는 범등사과 브랜드의 모습.

영양군 제공

소백산 정기 받은 웰빙 농특산물

영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에게는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주시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을 통해 인삼과 한우, 사과, 쌀, 가공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설 맞이 할인 행사도 벌인다.

‘영주장날’은 소백산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인삼, 사과, 한우 등 고품질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120여 개 농가와 업체에서 2천700여개의 품목을 판매 중이다. 매출액 55억 원으로 경북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고향장터 사이소 내 매출액 1위다. 설맞이 할인 행사로 수삼 32%, 가공제품 최대 51% 할인판매하고 있다.

풍기인삼은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삼 시배지에서 자란 풍기인삼은 소백산 자락의 깨끗한 환경과 비옥한 토질에서 자라 조식이 충실하고 향이 강할뿐 아니라 사포닌 함량이 높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식품으로는 단연 최고다. 판매중인 인삼제품은 수삼과 찌서 말린 홍삼, 홍삼농축액, 홍삼을 발췌에 담긴 홍삼정과, 홍삼절편, 홍삼엑기스, 홍삼뿌리제품 등이다.

한국농림협회 인증원으로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웰빙인증을 획득한 영주사과 역시 최고의 설 선물이다. 청정한 소백산록의 풍부한 일조량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며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고 육질이 조밀,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영주한우는 소백산록의 큰 일교차로 마블링이 잘 이루어져 있고,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가 많아 육질이 부드럽고 풍미가 좋아 인기가 높다. 2008~2020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13년 연속 웰빙 인증을 획득,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한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14년 연속 선정돼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영주한우는 소백산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속에서 한우고급육 표준사양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사육된다. 고급육 출하 실적도 92%에 달해 1등급 한우 출현율이 전국 최고다.

마경대 기자 kdma@maeil.com

영주시

건강에 으뜸 풍기인삼
한우·사과도 최고 선물



명품 영주한우. 영주시 제공

알싸

의성군

마늘 먹인 최고 한우, 주문 당일 포장

‘2023년 새해에는 ‘의성장날’ 선물세트로 행복과 진심을 선물하세요.’

경북 의성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의성장날’이 설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설 선물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다.

의성장날이 취급하는 품목은 의성마늘과 마늘 가공품(흑마늘 등), 의성진(眞)쌀, 각종 과일, 의성마늘소, 고추, 장류, 가공식품, 특용작물 등 의성 농특산물 70여 개다.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만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만큼 가격이 시중가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더해 이번 설 기획전에서는 전 품목 10% 할인 판매, 쇼핑몰 신규 회원가입 시 5천원 쿠폰 지급, 전 품목 무료 배송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의성군에 따르면 현재 설 선물로 인기가 가장 좋은 품목은 의성사과와 의성마늘소, 의성마늘 및 마늘 가공품, 의성진(眞)쌀 등이다.

‘의성사과’는 껍질이 얇고 단단하면서 과즙이 많아 맛과 향이 좋고 당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다른 지역보다 일교차가 심하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여름철 평균기온이 24℃로 사과 재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 한지형 토종마늘인 ‘의성마늘’은 즙액이 많고 독특한 향기와 매운맛이 감돌며 저장성까지 강해 전국 농산물 시장에서 인기가 가장 높다. 의성은 국내 한지마늘 최대 생산지다.

‘의성마늘소’는 마늘경작 농가에서 직접 수매한 의성마늘만 먹임으로써 최고의 한우 등급을 자랑한다.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주문 당일 산소포장기를 이용해 포장, 배송한다.

의성장날은 2019년과 2020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2019년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장날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의성군이 보증하는 우수 농특산물인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구매 메리트가 있다”며 “이번 설 선물은 의성장날에서 믿고 장만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lily@maeil.com



의성군이 마련한 ‘의성장날’ 선물세트.

상큼

청송군

명품 사과 5kg·8kg 최고 7만9천원

‘청송사과’라는 이름이 브랜드가 된 지는 오래됐다. 10년 넘게 대한민국 사과 시세의 기준이 된 청송사과는 맛과 품질, 가격 등 전국 모든 사과 중 가장 우위에 있다.

청송사과의 상품성은 지리적 자연조건과 농업 기술력에 있다. 청송군은 해발 250m 이상의 산간지형이자 고지형 분지이며 생육 기간에 일교차가 13.4℃로 커서 사과 재배에 아주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는 등의 날씨 여건 또한 맛있는 사과를 탄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송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목의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데다가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하고 있다. 관수 및 지주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질 좋은 퇴비를 사용한다. 이런 여러 조건이 맞아 들어가 명품 청송사과를 탄생시켰다.

청송사과의 탁월한 상품성은 이미 시장에서 입증돼 있다. 지난 2019년부터 동일 원산지 단일 품목으로는 드물게 전국 146개 이마트에 청송사과가 특판 행사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내 최대 농산물 도소매 매장인 서울하나로클럽(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매년 판촉 행사를 갖고 있으며 전국 대형 상점에서도 판매를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근 청송사과는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했다. 청송사과가 대한민국 최초로 인도네시아 사과 수출 300t 쿼터 승인과 함께 청송사과주스 5년간 무제한 수출 승인을 받기도 했다.

청송군은 이번 명절 청송사과유통센터와 연계해 산지에서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후지(부사)와 시나노골드(황금사과), 엔부(속빨간사과) 품목을 5kg과 8kg으로 나눠 사과 크기별로 4만2천원~7만9천원 사이로 판매하고 있다. 자세한 판매정보는 청송사과유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준홍 기자 apple@maeil.com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송사과.

달콤

칠곡군

고향장터서 1+등급 프리미엄 벌꿀

경북 칠곡군 인터넷쇼핑몰 ‘칠곡몰’은 오는 27일까지 농특산물 등 설맞이 전품목 30% 할인 판매를 한다. 품목 할인은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되며, 택배비를 일부 지원한다. 칠곡몰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5천원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칠곡몰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또는 고향장터 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벌꿀, 표고버섯, 쌀, 참기름, 들기름, 김, 버섯, 조청, 가공품 선물세트 등 280여 품목 상품을 판매한다.

전국 유일의 양봉특구에 걸맞게 프리미엄 벌꿀만을 취급하며, 대표 브랜드는 ‘하니밤’이 있다. 농산물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탄소동위원소비, 농약 및 항생제 검사 등 25가지 검사를 통해 1+등급 이상의 벌꿀을 믿고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양봉산물 생산시스템을 표준화해 고품질화를 고집하고 있다.

국내산 통참깨, 통들깨를 한 번만 냉압착해 짠 생참기름, 생들기름도 있다. 참깨와 들깨는 농가가 직접 또는 계약재배로 생산한다. 냉압착 생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72%이상 함유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영하 40도 진공상태에서 동결시킨 뒤 저온건조해 영양소나 색상의 파괴를 최소화해 고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동결건조 딸기, 참외, 사과를 어린이 간식으로 인기가 높다.

동결건조된 과일로는 생넛또의 효소와 영양성분을 그대로 담은 생생넛또는 국내산 콩 100%에 특허 균주로 유산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요쿠르트, 샐러드, 된장국 등 다양한 레시피로 즐길 수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신선·저렴한 가성비 높은 설 선물을 구입은 칠곡몰이 제격이다”며, “농가소득 증대와 칠곡몰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옥 기자 hello@maeil.com



1+등급 이상의 칠곡 천연벌꿀.

알뜰

포항시

포항마켓 농특산물 최대 30% 할인

경북 포항시는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포항마켓’과 지역 농특산물판매장에서 우수 농특산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행사 기간은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35개 업체에서 250개 품목으로 참여했다. 포항시의 대표 브랜드 ‘영일만친구’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지난 2013년 상표 등록된 ‘영일만친구’는 지난 2013년, 2014년과 2016년부터 2019년 4년 연속 등 총 6회에 걸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행사의 주요 품목은 쌀, 한과, 사과 선물 세트, 건오징어, 꿀, 조청, 버섯, 고추장, 젓갈, 해물탕·물회(말기트), 찰보리빵 등이다.

포털사이트에 ‘포항마켓(http://pohangmarket.pohang.go.kr)’을 검색하거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포항마켓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결제 시 페이북에서 모바일 포항사랑카드를 등록하면 지역사랑 카드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 할인행사와 함께 포항마켓에 신규로 회원가입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5천원을 적립해 준다.

상품구매 후 SNS(인스타그램)에 후기를 작성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1만원 쿠폰까지 지급된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항농특산물 판매장에서도 20일까지 30개 업체 전 품목에 대해 10~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판매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만든 발효식품을 비롯해 한과류, 전통주, 건강식품 등이다. 손님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권도 배부한다.

배성규 포항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로 지역 농가와 가공업체의 매출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우 기자 sdw@maeil.com



포항마켓 최대 30%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

쫄깃

예천군

눈 내린 듯 하얀 분·달콤한 식감 콧감

경북 예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예천장터’를 통해 농특산물 특별판매 행사를 한다.

이번 특별판매 행사기간 동안 군은 예천장터 신규가입 고객에게 4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구매 금액별로 즉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10+1 덩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한다.

예천장터는 참기름·들기름, 한과·떡국·잡곡세트, 건강식품, 사과·배·은풍준시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품질의 농특산물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설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로 안성맞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예천 은풍면 동사리에서 생산되는 콧감인 ‘은풍준시’가 본격 출하돼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은풍준시는 눈이 내린 듯한 하얀 분과 특유의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자연풍 건조와 수작업 방식 제조과정 덕분에 전통의 콧감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행운을 상징하는 네일클로버 모양으로 감을 깎아 건조대에서 40~60일을 말린 후 2차로 2~3일마다 아침에 넣고 저녁에 거뒀들이는 과정을 7번 정도 반복하면 ‘은풍준시’가 탄생한다.

예천장터에 입점한 은풍준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찬 바람과 건조한 날씨 덕분에 올해는 어느 때보다 품질이 좋아 예천장터를 통해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군은 입점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선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점검을 진행하는 등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장터 이용 고객이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민 기자 yun1011@maeil.com



쫄깃한 식감 자랑 ‘은풍준시’.

뜨끈

영덕군

바다 내음 물씬 해풍미·대게 어묵 국물

“2023년 설날, 바다 내음 물씬 영덕을 선물하세요!” 영덕군의 인터넷 쇼핑몰 ‘영덕장터’가 설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최대 30% 할인판매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영덕장터는 경상북도 농특산물 오는 쇼핑몰인 ‘사이’소와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주소는 <https://ydmall.cyso.co.kr>이다.

영덕장터는 다른 육지 지역과 달리 바다와 관련된 상품들이 많다. 영덕에서 생산되는 쌀 ‘해풍미’는 말 그대로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네랄과 철분 함량이 높은 청정 영덕의 비옥한 토질에서 생산된 쌀로 밥맛이 구수하다. 좋은 원료만을 선별 건조해 15~16%의 적절한 수분을 유지해 당일 가공 당일 출고한다.

영덕 강구항에서 직송되는 영덕박달홍게도 인기다. 박달은 살이 꽉찬 홍게로 먼 바다 조업을 통해 가까운 바다에서 잡힌 놀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판매자의 설명이다.

얼리지 않은 신선한 계장을 간편하게 찌먹는 ‘영덕 붉은 대게장’도 눈에 띄는 상품. 100% 자연산 계장으로 먹기 쉬운 파우치형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음식으로 입맛을 돋운다.

계살과 함께 비빔밥으로 탄생하기도 하고 연어와 어우러져 초밥으로도 즐길 수 있다. 크래커와 상추, 방울토마토의 맨 위에 살포시 내려 얹은 카나페 레시피도 있다.

홍게 대게 어묵도 영덕 장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품이다. 추운 날씨 뜨끈한 국물이 그립다면 홍게 대게 어묵을 선택해 볼만하다.

이밖에 간편 손질 반건조 오징어, 해풍 맛은 복숭아 병조림, 수제강정 선물세트, 영덕 사과, 동물복지 계란 등도 인기가 높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영덕의 산물은 독특한 풍미를 자랑한다. 이번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영덕의 맛을 함께 즐기거나 영덕의 맛을 선물해 보시기를 권한다”고 했다.

김대호 기자 dhkim@maeil.com



영덕 강구항에서 직송되는 대게.



노인영의 풍수이야기

〈7〉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골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토끼는 다산(多産)과 지혜(知慧), 풍요(富)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이 기운을 받아 경제가 활성화되고 출산율이 높기를 기원한다. 달성군(達城郡) 하빈면(河濱面)에는 이러한 기운을 품고 있는 마을이 있다. 묘리(妙里)는 사육신(死六臣)의 한 분인 순천 박씨(順天 朴氏) 취금헌(醉琴軒) 박팽년(朴彭年·1417~1456) 선생의 후손 '박일산'(朴一珊)이 멸문지화(滅門之禍)의 순간을 넘기고 우여곡절 끝에 대를 잇고 정착한 순천 박씨 집성촌(集姓村)이다. 마을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외부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지세이다. 토끼굴을 연상하게 하는 특이한 지형이다. 이곳 순천 박씨를 일명 '묘골 박씨'라고 한다. 묘골 마을 이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마을 터가 묘(妙)해서 묘골이라고 했다는 설, 마을의 유래가 묘해서 묘한 동네라는 의미, 하빈사(河濱祠), 낙빈(洛濱), 육신사(六臣祠) 사당이 있어 사당 묘(廟) 자를 써서 묘골이라 했다는 것이다.



순천 박씨 집성촌인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골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밖에선 안 보여 토끼굴 연상



청룡방 상계 묘소와 달

검은 털 가진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형상

토끼 등에 해당하는 곳엔 묘소 줄이어…봉분 검은색 당초엔 '토끼 卯', 역사 의미 담아 '묘할 妙' 사용한 듯

묘골을 풍수학적으로 규명해 보자. 세간에서는 이곳 묘골을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용이 자신의 조상 산을 바라보는 형), 또는 회룡고미형(回龍顧尾穴·용이 머리를 돌려 자신의 꼬리를 바라보는 형)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회룡과는 거리가 멀고 용형(龍形)은 더더욱 아니다.

용형으로 보려면 산세가 그에 걸맞아야 한다. 용은 신출귀몰하기 때문에 용맥의 움직임이 변화무쌍하여야 하고, 용의 행도(行度)가 금·수형(金·水形)으로 행룡(行龍)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곳 산세는 용맥의 변화가 크게 없고, 사신사(四神砂)가 평평한 토성체(土星體)이다. 토끼나 소, 말 등 네 발 달린 짐승의 등을 상징하는 것이 토성이다.

그럼 묘골의 산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토끼 형상이다. 묘골 청룡방 산등성이에 오르면 검은 털을 가진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형상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핵심 포인트이다. 토끼의 등에 해당하는 곳에 묘골 박씨 윗대의 묘소가 줄이어 있다. 겨울철 묘소 봉분 색깔이 희한하게도 새까맣다. 이곳 주위의 좌향은 계좌정향(癸坐 丁向)이다. 별자리 오행으로 토성이며, 풍수 물형으로 보면 옥도망월형(玉兔望月形)이다.

동양철학에서 계(癸)는 수(水), 토끼 묘(卯)는 나무(木), 정(丁)은 달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동요(반달)에 나오는 '달 속의 토끼와 계수나 무'가 그려진다. 따라서 묘골의 당초 이름은 토끼 '묘'(卯) 자를 써서 묘골(卯谷)이라 했을 것이나 마을 터가 특이하고 거기에 사육신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결부시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묘할 '묘'(妙) 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산 박준규 전 국회의장 생가 표지석과 우물

9선 국회의원 역임한 송산 박준규 배출

최다선·국회의장 3번, 한국 의정 사상 초유의 기록 생가터에서 바로 보이는 천마사 기운 많이 받은 듯

지가서(地家書)에서 토끼형은 '자손이 번창하고, 지혜로운 인재를 배출하며, 부자가 출한다'라고 한다. 실제로 후손들도 번성하였고, 큰 부자와 인물도 배출하였다. 형상으로 보면 조산(朝山) 천마사(天馬砂)가 있으니 이때쯤씩 큰 귀인이 배출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수려한 사격 하나가 그 역량을 발휘할 정말로 지대하다.

근대에 들어 묘골이 배출한 대표적인 인물은 3번의 국회의장과 9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산(松山) 박준규(朴浚圭·1925~2014)가 있고, 부자로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1910~1987) 회장의 배우자 박두을(1907~2000) 여사가 이곳의 지기를 받고 태어났다.

송산은 대한민국 정계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함께 최다선 의원이며, 13~15대 국회에서는 잇달아 세 차례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지역구 9선과 세 번의 국회의장은 한국 의정 사상 초유의 기록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구마모토 의과대학 재학 중 8·15 광복을 맞아 귀국하여 서울 대학교에 편입한 후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미국에 유학하여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한·미·일 3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자유, 민주, 실용을 몸소 체험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독재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가치가 상충하던 시대에 공화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싱크탱크 역할을 한 지역의 거물 정치인이었다.

송정사(崇正祠) 앞에는 송산의 생가터임을 알리는 표지석과 우물이 있다. 생가터에서 보면 천마사가 뚜렷하게 보인다. 송산은 이 천마사의 기운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육신 박팽년의 직계 18대손이고 박두을의 5촌 당질(堂姪)이다.



삼성 이병철 회장 부인 박두을 여사 생가터

삼성 이병철 회장 부인 박두을 여사

박준규 부친 양조사 인수 후 '삼성상회' 간판 걸어 예의범절 밝고 검소했던 내조 덕분에 재벌로 성장

박두을은 아버지 박기동의 4녀로 태어났다. 유년 시절 여사의 관상을 본 한 스님이 "왕비가 아니면 거부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여사는 21세에 집안 어른들의 주선으로 이병철과 혼인한다.

이 회장의 집안도 경남(慶南) 의령(宜寧) 일대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임에도 불구하고 "시집이라고 왔더니 집도 좁고 그렇게 가난해 보일 수 없었다"라는 말을 자식들에게 자주 했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친정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가늠할 수 있다. 친정 생가터는 마을 중심맥의 말락지(末落地)에 있는 양택지로 부자터이다.

이병철 회장이 1938년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걸고 대구 서문시장 인근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가와 연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성공 신화를 만든 원천은 송산의 부친 취운(醉雲) 박노익(朴魯益·1888~1958)이 운영하는 양조사(釀造社)를 인수한 덕분이다. 이것이 큰 밑천이 되었다.

삼성이 재벌로 성장하기까지는 박두을 여사의 공이 지대하다. 박 여사는 "바깥 활동은 되도록 삼가고 집안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해 왔으며, 예의범절에 밝아 집안이 두루 화목하였고, 몸치장, 얼굴 치장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검소하였다"라고 한다. 훌륭한 내조 덕분이라는 칭송이 늘 따라다닌다.

이렇듯 묘골의 출신 인물을 보면 지가서에서 말하는 토끼형의 발음과 일치하며, '인결(人傑)은 지령(地靈)'임이 증명된다. 묘골은 생기가 모이고 앞과 뒤가 안 온하게 생긴 부자 터로, 영구한 양택지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어떻게 이런 자리와 인연이 되었을까? 참으로 묘하다.

풍수가·철학박사

대학생, 지역민, 예술가 ‘합작품’

지역민 연계 미술 프로젝트
경북대 스페이스9 19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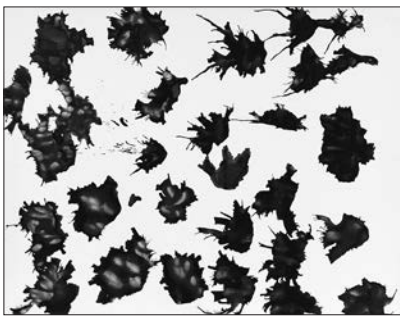
경북대학교 대강당 전시실인 스페이스9에서 ‘우리의 호흡이 미술이 될 때’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역민 연계 미술 프로젝트 워크숍 ‘같이, 가치’의 결과 발표 전시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진행된 이 워크숍은 최선 작가가 주도했으며 경북대 재학생 11명, 산격3동 주민 13명이 참여했다. 공감과 소통을 핵심 키워드로, 낯선 소재와 기법을 활용한 미술작품을 함께 기획, 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워크숍에서 제작한 공공미술 작품 30점과 최선 작가의 작품 20점을 만나볼 수 있다.

공공미술 작품 중 ‘나비’는 산격동 주민들의 ‘숨’으로 만들어졌다. 파란색 잉크를 캔버스에 소량을 떨어내고, 그것을 입으로 불어서 남겨진 잉크의 흔적이다. 호흡하는 것, 즉 살아있는 자체가 예술임을 의미하면서도, 예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산격회화’는 산격동 주민들이 감장



‘나비’

경북대 제공

한 김치의 국물을 이용해 제작한 작품이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지만 지역마다 감장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집집마다 다른 레시피가 존재한다. 산격동 주민 각각의 삶에 대한 작은 이야기가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난다.

김영하 경북대 대외협력처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대학 캠퍼스에 열린 문화공간을 구축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기획부터 제작, 전시까지 대학생과 지역민, 예술가가 협업해 새로운 커뮤니티 아트를 선보였다. 예술 세계에서 나아가 지역민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19일까지. 053-950-2817.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이 시대의 화랑, 故 심정민



‘천년의 불꽃, 김유신’ 공연 모습.

뮤지컬컴퍼니에 제공.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

경북도청, 경주 엑스포 개최 관객 호평
수익금, 故 심 소령 추모사업기금으로
14·15일 총 4회 대구오페라하우스서

故 심정민 소령의 추모사업 기금마련을 위한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이 14일과 15일 각각 오후 2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대구오페라하우스 무대 위에서 열린다.

수원의 한 공연기지에서 F-5E 전투조종사로 복무중이었던 故 심 소령은 작년 1월 훈련 중 전투기 기기결함으로 인해 비상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 학교와 민가의 피해를 우려해 화성시 태봉산에 전투기를 추락시켜 순직하신 의인이다.

‘심정민 추모사업회’와 ‘천년의 불꽃, 김유신’의 제작사인 ㈜뮤지컬컴퍼니에는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과 창원 등 전국 공연을 통해 故 심 소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이 공연으로 생긴 수익금은 고 심 소령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중·고·대학생 마라톤과 순국 현장 방문 행사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평 심정민 추모사업회 이사장은 “심 소령의 위국헌신 정신이 이 뮤지컬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간

접적으로 흡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초연한 이후, 지난달 29, 30일 경주 엑스포에서도 개최돼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유신 역으로 출연하는 배우 서도진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와 ‘영웅’ 등에 출연한 우리나라 뮤지컬계 중랑급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 또 KBS 드라마 ‘오케이광자매’에도 출연했다.

한편, 고 심 소령의 모교인 대구 능인고 측은 동창회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뮤지컬 관람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소령의 유가족은 14일 오후 2시30분에 있을 첫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정다미 연출가는 “故 심 소령을 이 시대의 화랑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배우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로 심 소령의 추모 사업 기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람은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 02-737-8485 심현재 기자 gjswo302@imaeil.com



故 심정민 소령

대구 무용에 동유럽이 열광

이준옥 안무가 작 ‘아포칼립스’
슬로베니아 공연 큰 호평 받아

이준옥 안무가(사진·대구시립무용단 전 트레이너)가 이끄는 도도무브댄시어터와 대구시립무용단 3인방 무용수(김초솔·박정은·도효연)가 지난달 23일 동유럽 슬로베니아 슈판스키 보루치 극장에서 대구 무용의 위상을 높이는 해외 공연을 했다.

이번에 슬로베니아에서 선보인 작품은 지난 세계안무축제에 선보였던 신작 ‘아포칼립스’(Apocalypse)로 ‘인간이 도래시킬 미래를 상상하며, 인간의 욕구와 이기를 자연과 사회 속에서 어떤 조화로움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물음표를 던져 큰 호평을 받았다.

인간의 대한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표현이 내포된 이 작품은 대구문화재단과 슬로베니아의 예술단체 JSKD의 후원을 받아,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형식으로 슬로베니아에서

열렸다.

이준옥 안무가는 “대구시립무용단 출신 무용수들과 유지원 음악감독이 예술 수준이 높은 동유럽에서 인상깊은 공연을 마쳤다”며 “대구 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공연 후 소회를 밝혔다. 나나 메스코 JSKD 대표는 “마치 인류에 대한 경고로 느껴졌다. 아름다운이 권력이 되어, 견장을 수 없이 휘둘러져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또 초청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한편, 도도무브댄시어터는 이준옥 안무가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 단체로 ‘길 도(道), 이물 도(到)’를 써서 ‘움직임에 대한 갈증을 찾아 길에 이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심현재 기자



법인부동산

대구

동명부동산(주)하동명, 동7144-6107/7140-2022-0003

가내공업, 공장, 창고
동구 준주거, 대 240, 건 106
큰차진입, 11억 3천만, 금매
동구 물건 다량 053)751-2800

급매 송정리 500 1억
대구 칠곡군 대로 근처
평지 반듯한 땅
농막, 텃밭추천 010-9387-0096

급매★팔공산내동 4,628㎡
1400㎡ (분할가능)
당35만
전양출은 남향 010-5553-5152

범어동 병원상가
1층, 105평(정용63), 대규모 아파트
조성중, 개발호재 다수
매매가26억 053)755-4000

달서구

KI부동산(주)하동명, 동7144-6107/7140-2022-0003

★대구최대부동산★
공장전용 부동산
최우수 부동산
최대물건보유, 전화주세요 588-0097

★칠곡 동명임야 매
당15만
110,000㎡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010-9973-0097

★팔공산플라이빌
★단지 매매★
대231㎡~340㎡, 건100㎡

A.가구,가전,침구류
★완벽 셋팅 풀옵션
B.수영장과 조명

C.팔공산 돌레길
갯바위,도립주차장
★편리한 대중교통

D.수익형관광객숙소
★공유숙소 플랫폼 활용
★관리사무소 운영으로
★청소까지 플랫폼

E.성수기1월1천만원
수익예상,평수기1월300만원수익예상
대출80%
F.사업자 매매가4억5천만
원 010-9973-0097

서구

대동부동산(주)하동명, 동7144-6107/7140-2022-0003

6층빌딩
대720,건3960,역세권
월1600만,45억인수금
월2000만,건380
최고성권,대로코너
35억인수(초역세권)010-2509-9996

달구벌대로
대855,당5천만
3층,병원부지
대585,건1740대로접
당39억(당2,200만)
금매(당값도 안됨) 010-2509-9996

대지부동산(주)하동명, 동7144-6107/7140-2022-0003

모 텔임대,보8억,월2500만원
객실40실,매출8500이상
12억인수, (유) 053)561-6561
모텔 대710㎡,매출5500이상
상가유 053)561-6561

모 텔,10억인수(유)대680㎡
매출7700이상,매출8500이상
10억인수, (유) 053)561-6561
카모텔 대1007㎡,월19실
시설 및 매출향호 053)561-6561

호 텔26억인수유대10248㎡
룸50,신축수준,매출년13억이상
23억인수, (유) 053)561-6561
호텔 대1150㎡,준신축
시설최상,매출1억 053)561-6561

모 텔사무나7억인수(유)유지영
시설강조,대270,상가1240인수인
3억인수, (유) 053)561-6561
카모텔 대1007㎡,월19실
시설 및 매출향호 053)561-6561

유지영부동산(주)하동명, 동7144-6107/7140-2022-0003

특급프랜차이즈카페
달구벌 대로초역세권수익투자
한방에1777㎡(분할可)
당5800만,전속중개 010-8896-4599

특급프랜차이즈카페
달구벌 대로초역세권수익투자
한방에1777㎡(분할可)
당5800만,전속중개 010-8896-4599

연수익5.3%메디컬 빌딩
102억
연4,500만, 용지無
약국 입점, 대587㎡
건3,632㎡ 010-8896-4599

프랜차이즈 코너
상가
국책사업 특급 개발호재
40억/1630만, 대725㎡
투자 수익 한방에 010-8896-4599

개발호재초대단지
특급상가
일반상업,대288㎡
초대방 투자용
문당13억9천 010-8896-4599

달구벌대로 상가 부지
초급매
1653㎡(500)
3300㎡(1000)초역세권
시청호재, 투자권 010-3851-5504

달구벌대로
305억
더블렉세권
대1,770㎡
용지無,공실無,전체 프랜
차이즈 건물(병원,웨딩
건축강추)전속중개 010-4501-3935

달구벌대로카페상가
프랜차이즈
월7500
대1750㎡
당5800만,전속중개010-9760-5069

대동부동산(주)하동명, 동7144-6107/7140-2022-0003

풀빌라 다용도부지
전35,000㎡,위치조망확실,당25만,고령
온천수유,캠핑장,파크골프,전원주택
유원지,넓은 하천점 053)556-3600

“급매” 대형상가
대1010㎡,초역세권,위치 상권 확실
총97억,세용인40억,보17억,월2760만
급해서 할감에 처분 053)556-3600

(주)삼성부동산(주)하동명, 동7144-6107/7140-2022-0003

월3000,몽땅48억
대770㎡,건3,350㎡,15억인수
대단지(최요지,현 대형마트
010-6547-4488

월1억2천,전층약국
병원
대667㎡,건3734㎡,99억
인수,전층 약국병원인수
7만세대 최요지,현 대형마트
010-6547-4488

범어사거리! 빌딩
대1,650㎡,건6,877㎡,당5,000만
100억인수,약국+병원빌딩최고자리
010-6547-4488

교회나 사옥 최적 빌딩
대652㎡,건999㎡
인수,1만세대 밀집지
010-6547-4488

월3100전층약국병원
대1,040㎡,건2,636㎡,27억인수
전층 약국 병원인수,사거리코너
최요지 010-6547-4488

수성구

최신부동산(주)하동명, 동7144-6107/7140-2022-0003

장원아너스
가든1,2,3차
경남지역명
범어청구하이츠,호성백년가약국
라운2차,범어센트레빌,빌리브
세로빌,아크로타워 053)741-0070

(주)경동부동산(주)하동명, 동7144-6107/7140-2022-0003

월1억출54억인수가
대4,270㎡,건12,600㎡
통상가 (보11억,용자125억)
금매 1666-0577

스타벅스 급매매
보3억,월12%,대지약2,591㎡
건약429㎡,매80억,용60억가능
17억인수가 1666-0577

★나대지 급매매
대지606㎡,건265㎡,9억5천
당520만 15m도로접
1666-0577

★원대오거리 인근
근린상업지역,금매,대218㎡
건379㎡,대로변점,당1500만
회사사옥최적지 1666-0577

남산동 나대지 급매
대330㎡,건125㎡,신축하기 좋은
부지,재개발 지역투자,13억7천
용80%가능 1666-0577

침산동 최요지상가
건120㎡,1층 월250만출
가능(용5억可)
2억인수 금매 1666-0577

수성구최요지골프존
급매매
월매출8500만,순수익
4000만이상,매85억
조절가능,20억인수가능 1666-0577

21면 계속

벤투 후임 누구? “모든 가능성 열려”

필러 축구협 전력강화위원장
전문성·경험·동기 부여 등
5개 선임 가이드라인 공개
“감독 4년 맡기는 방안 선호”

마이클 필러 대한축구협회 신입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데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필러 위원장은 최근 사의를 표한 이응수 위원장에 이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임무를 소화하게 됐다. 차기 한국 축구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을 총괄하게 될 그는 이날 부담 소감과 새 감독 선임에 대한 기준 등을 말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뒤 축구협회가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국내 지도자를 선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필러 위원장의 선임으로 외국인 감독 가능성도 급부상하고 있다.

필러 위원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해 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차에 맞게 새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새 감독이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지금) 난 답할 수 없다”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감독을 선임할 것인지, 새 감독으로 어떤 지도자를 고려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감독 선임에 대한 5가지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는데 ▷전문성 ▷경험 ▷동기부여 ▷팀 워크 ▷한국에서 생활 가능 여부 등이다.

차기 감독의 계약 기간에 관해서는 여러 변수가 있어 이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신은 다음 2026 북중



마이클 필러 신입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월드컵까지 4년을 맡기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했다.

필러 위원장은 “계약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협상의 결과로 확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다만, 내 개인적인 의견은 장기 계약을 통해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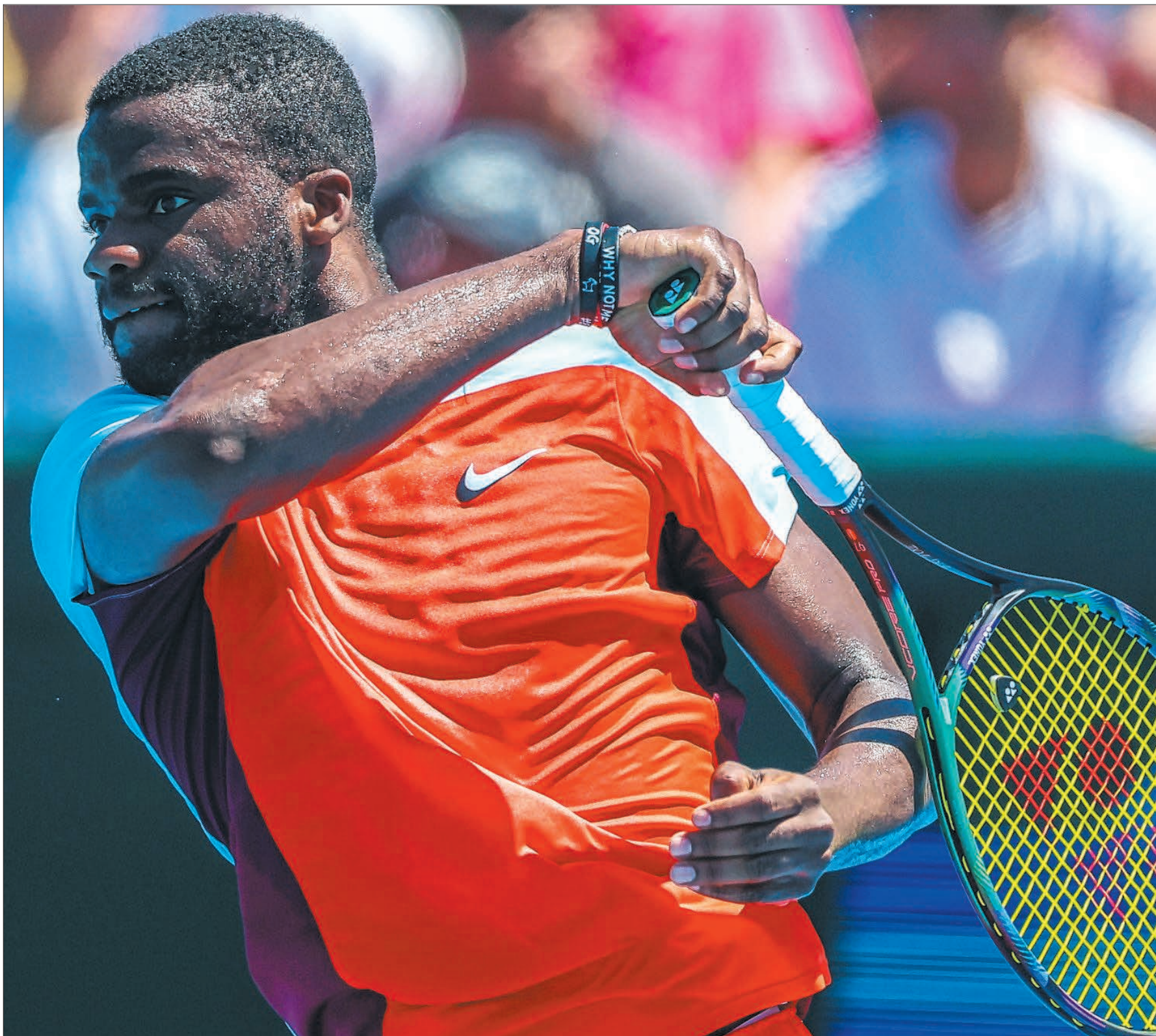
필러 위원장은 2018년 4월 축구협회 지도자 교육 강사로 부임하며 한국 축구와 인연을 맺었다.

그해 10월부터는 한국 축구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기술발전위원장을 두 차례 지냈다. 초등부 8대8 경기 도입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며 호평받았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독일축구협회 지도자 강사, 독일 15세 이하(U-15)와 U-18 대표팀 코치, U-21 대표팀 스카우트 등을 역임했다.

축구협회는 필러 위원장 선임을 발표하면서 그를 ‘유럽의 선진 축구를 직접 경험했을 뿐 아니라 유소년부터 프로, 대표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축구의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소개했다.

신종언 기자 shyoung3@maeil.com



티아포 힌찬 리턴

11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쿨롱 클래식 남자 단식 경기에서 미국의 프란시스 티아포가 오스트리아의 도미니크 팀을 상대로 포핸드 리턴을 하고 있다. 티아포는 지난해 US오픈에서 우승 후보 0순위로 거론됐던 라파엘 나달을 격파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며 4강전에 오른 25세 신예다. 연합뉴스

삼성에 연봉 백지위임 오승환 “팀 반등 백의종군”

작년 16억원으로 팀내 최고액
KBO리그 전체 선수 중엔 7위
올 ‘통산 400세이브’ 달성 노력
다 조기 출국 시준 준비에 만전

팀 내 최고참 선수로서의 책임감일까. 삼성라이온즈 ‘끝판대장’ 오승환이 2023년 연봉계약을 구단에 백지 위임했다.

11일 삼성은 오승환이 팀의 최고참 선수로서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팀 성적에 대한 책임과 올 시즌 개인과 팀의 반등을 위한 ‘백의종군’의 의미로 올해 연봉을 구단에 백지위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오승환은 지난해 7위에 이름을 올렸고 다년계약을 제외한 투수 중 최고의 연봉을 받았다.

국내 복귀 이후 두 시즌 연속 30세이브 고지, 한 시즌 최고령 40세이브 등 KBO리그에서 아무도 가지않은 길을

출장해 57이닝을 책임지며 6승 2패 31세이브 평균자책점 3.32의 성적을 거두고 리그 세이브 4위로 시즌을 마쳤다.

2021시즌 11억원의 연봉을 받았던 오승환은 그 해 44세이브 평균자책점 2.03을 찍으며 리그 세이브왕을 차지하는 등 삼성의 확실한 뒷문을 책임지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지난해에는 팀 내 1년 계약 선수 중 최고 인상액인 5억원이 올라 16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KBO리그 전체 연봉 7위에 이름을 올렸고 다년계약을 제외한 투수 중 최고의 연봉을 받았다.

국내 복귀 이후 두 시즌 연속 30세이브 고지, 한 시즌 최고령 40세이브 등 KBO리그에서 아무도 가지않은 길을



오승환

대 최다 연패인 13연패에 빠졌을 때 오승환은 3연속 불륜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흔들렸다. 7월 한 달 동안에만 불륜세이브 5개를 남겼다.

구위가 떨어진 모습에 다시 제 모습을 찾기 위해 마무리가 아닌 중간 투수로 기용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27일 포항 한화전에서 6회에 마운드에 올라 중간 계투로 나섰다. 그가 6회 이전에 등판한 건 2010년

6월17일 사직 롯데전 이후 4천423일 만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후반기부터는 다시 ‘끝판대장’으로서 면모를 다시 되찾았다. 박진만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된 지난해 8월에는 10경기 3승 5세이브 평균자책점 0.90을 찍으며 부활을 알렸다.

올 시즌을 앞두고 오승환은 새로이 각오를 다졌다. 올 시즌 30세이브만 더 올리게 된다면 KBO리그 통산 400세이브 고지를 밟게 된다. 이어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까지는 단 8세이브만을 남겨두고 있다.

오승환은 10일 구단 전지훈련지인 일본 오키나와로 조기 출국해 팀 합류 전 개인훈련을 진행하며 시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우정 기자 kwj@maeil.com

56% “대표팀 감독 국적 상관없다” 청년층 단 1%만 “국내파 뽑아야”

51% “계약기간 다음 월드컵까지”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파울루 벤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뒤를 이을 지도자의 국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후임 감독의 임기를 다음 월드컵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 정도였다.

11일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23~2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국적은 상관없다”고 답했다.

19%는 외국인인, 10%는 국내 지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나머지 1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능력과 공정한 선임 절차가 중요한 뿐 국적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이다.

다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내 감독 선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8~29세(30%)였으며, 이 연령대에서 국내 감독을 지지해 보낸 비중은 1%에 그쳤다. 30~39세 구간에서도 국내 지도자에 대한 지지는 3%에 그쳤다.

반면 50~59세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벤투 전 감독의 후임을 국내 지도자 중 고르는 데 찬성한 비중은 16%까지 올라갔다.

응답자의 51%는 신입 감독의 계약 기간을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보장하는 게 좋다고 봤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긴

후 성적에 따라 다시 평가하자는 의견의 비중은 29%였다. 4년간 임기 보장을 원했던 벤투 전 감독과 이전 끝에 동행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6%는 ‘모르겠다’고 답하며 평가를 유보했다. 벤투 감독과의 재계약 불발에 대해 응답자의 33%는 ‘좋지 않은 선택’, 20%는 ‘좋은 선택’이라 봤다.

이번 월드컵은 %가 넘는 국민의 관심을 끈 것으로도 조사됐다.

68%의 응답자가 월드컵에 관심이 컸다고 답한 가운데 남성(75%) 외 상당수 여성(61%)도 대회에 관심을 쏟았다.

한국시간으로는 늦은 시간에 치러진 우리나라 경기를 생중계로 시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75%로 파악됐다.

또, 88%의 응답자가 주변 사람들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답해 ‘국민 관심사’임을 입증했다.

일상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다는 응답자 비율도 25%로 나왔다.

특히 응답자의 73%가 월드컵 덕에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

‘애국심이 커졌다’, ‘애국가·태극기에 대한 감정이 좋아졌다’는 응답도 각각 67, 64%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이 뽑은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손흥민(45%) ▷조규성(16%) ▷이강인(14%) 등으로 조사됐다.

16강 진출을 이룬 벤투호의 성적에는 50%가 기대 이상이라고 호평했다. 기대 수준이었다는 평가는 37%였고, 9%는 아쉬웠다고 평했다. 신종언 기자

“반복 훈련으로 수비 자신감…좋은 활약 보여줄 것”



삼성 푸른사자 리포트 내야수 윤정훈

“반복된 기초 훈련으로 ‘야구 기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FA이적을 통해 베테랑 내야수 김상수와 오선진을 떠나보낸 삼성 라이온즈는 올시즌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내야 주전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신인급 선수들부터 선참들까지 미래 내야진을 이끌어야 할 주전 경쟁이 이미 내부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내야수 윤정훈(사진)도 한 발 내딛었다.

2022 신인드래프트에서 같은 내야수 포지션 이재현, 김영웅, 조민성과 함께 삼성에 지명된 윤정훈은 ‘국민 유격수’ 박진만 감독으로부터는 수비, 박한이 타격 코치에게는 타격 기술을 흡수해나

베테랑 빈자리 치열한 경쟁 예고
“어떤 타구든 처리할 수 있게 노력”

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역대급 훈련량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지옥의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도 처음부터 끝까지 소화해냈다.

윤정훈은 “역대급 훈련을 했다. 특히 런닝을 한 뒤 체력을 소모한 후에 수비나 기술 훈련을 하면 힘은 다빠졌지만 몸이 저절로 움직여졌다.

(박진만) 감독님 말씀대로 기계가 된 것처럼 수비 동작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며 “타격에서도 힘이 빠져있다 보니 오히려 스

윙이 더 자연스러워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비 훈련에서도 정해진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정말 공작는 기계가 돼가는 느낌이었다”고 덧붙혔다.

확실히 고된 훈련이었지만 스스로 좋아진 게 많이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힘들었지만 수비에는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자신감이 붙으니 타구를 보는 여유도 생기면서 감독님이 추구하는 안정감이 무엇인지 좀 더 알게 됐다”며 “어

떤 타구라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또 쉽게 처리하는 그런 수비력을 지난 시즌이 좋은 선수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반복된 훈련만이 답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타격 기술은 박한이 코치님이 많이 붙잡고 알려준다. 제가 다리를 들고 스윙할 때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무게중심을 뒤로 두고 휘두르도록 지도를 받았다.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이야기야 확실히 체득할 수 있게 계속 훈련해나가고 있다”고 덧붙혔다.

지난 시즌 윤정훈은 내야수 동기들과 달리 아직 1군 무대 맛을 보진 못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마음가짐이 남다르다. 올 시즌은 특히 유망주들에게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어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그는 “스프링캠프에도 꼭 참여해 저의 가치를 내보이고 싶다.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남겼다. 김우정 기자



“올해 세계 성장률 3.0%→1.7%…침체 위험 매우 크다”

세계은행 성장 둔화 경고

7개월 만에 1.3%P 낮춰 전망
긴축 정책·우크라 전쟁 영향
美 성장률 0.5%·유로존 정체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투자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하향 조정 이유다.

세계은행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작년 6월 보고서에서 전망한 3.0%보다 1.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클 정도로 세계 성장 둔화했다”고 경고했다.

하향 이유로 주요 선진국이 고물가를 잡으려고 긴축 정책을 동시에 펼치면서 금융 환경이 악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유로존, 중국 모두 취약한 상태이며 이들 경제의 파급 효과가 신흥 경제와 개도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더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산 가격이 동시에 하락

하고, 투자가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 국가에서 주택시장이 매우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의 95%,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거의 70% 대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췄다. 특히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 2.5%에서 올해 0.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침체 가능성도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물가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이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그 어떤 새로운 악조건이 세계 경제를 침체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성장률을 기준 전망보다 1.9%포인트 낮은 0.5%로 하향했다. 1970년 이후 공식 침체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유로존의 경우에도 1.9%포인트 하향하면서 성장이 정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2.7%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4.3% 성장률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외부 수요 약화를 반영해 작년 6월보다는 0.9%포인트 낮췄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 경제와 개도국의 성장률은 작년 3.8%에서 올해 2.7%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전망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그리스 마지막 국왕 콘스탄티노스 2세 별세 그리스의 마지막 국왕 콘스탄티노스 2세(원쪽)가 10일(현지시간) 아테네에서 82세로 별세했다. 1964년 즉위한 고인은 그리스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채택하면서 왕실이 해체된 1973년까지 국왕으로 군림했다. 사진은 2011년 10월 17일 영국 버크셔주 크로손 웰링턴 대학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엘리자베스 2세 당시 영국 여왕과 대화를 나누는 콘스탄티노스 2세의 모습. 연합뉴스

美 가정집 뒷마당서 버섯이 겨울잠에 빠진 흑곰

미국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 흑곰이 들어와 겨울잠에 빠졌음에도 가족들이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사연이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하트퍼드 카운티 플레인필드에 거주하는 비니 다슈크워치는 지난달 30일 집 뒷마당에서 팻블레이어 품종의 반려견 칼리와 놀아주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 안전하던 칼리가 야의 마루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등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슈크워치는 의아한 마음에 마루 밑을 살펴봤고 그 순간 겨울잠에 취해 비몽사몽한 모습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흑곰을 발견했다.

그는 “곰은 우리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편안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



미국 가정집 뒷마당 마루 밑에서 겨울잠에 빠졌던 흑곰 트위터 캡처

**가족들 그대로 두기로 결정
SNS 영상 조회수 1500만회
코네티컷주 “알아서 떠날 것”**

을 전했다.

그는 곰에게 ‘마티 베어나드’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 그 이름을 딴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잡든 곰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게재했다. 영상의 조회수는 단숨에 1500만

회까지 올라갔다.

신고를 받은 코네티컷주 환경보호국은 1월 말쯤 겨울잠에서 깬 곰이 알아서 떠날 거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데크 아래 살게 내버려 두되 된다고 말했다. 다만 곰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는 것은 금물이라는 당부를 남겼다.

코네티컷주에 따르면 흑곰은 북미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곰으로 식물 열매와 곤충을 주로 먹지만 때때로 새끼 사슴과 같은 작은 포유류를 공격할 때도 있다.

흑곰은 곰 가운데 완전히 동면을 취하는 종류는 아니지만 겨울철에는 체온과 심박수가 떨어지며 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코네티컷주의 흑곰 개체수는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1000마리 이상이 이 지역에 머물고 있다. 김기원 기자 kiragu@imaeil.com

‘비자 받지 않고 여행’ 한국 여권 순위 올해도 2위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를 따지는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도 세계 199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교류 전문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이날 공개한 2023년 1분기 세계 이동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여권을 소지했을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를 지수화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일본(193개국)이었다.

이어서는 한국(192개국)과 싱가포르

(192개국)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작년 1분기에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192개국으로 공동 1위였고, 한국은 독일과 함께 공동 2위(190개국)를 기록했었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 이어서는 독일과 스페인이 190개국으로 올해 공동 3위에 올랐다. 이어서는 핀란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189개국)와 오스트리아·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188개국)이 각각 공동 4위와 5위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유럽 국가들의 여권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미국 여권은 186개국을 사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어 세계 7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러시아는 118개국으로 48위, 중국은 80개국으로 66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일반부동산

북구

■더블리크공인(김태동, 북구)가-15-2290

★창고, 공장★ 대255㎡

전83㎡

창고 6m, 최신축

4억2천

검단동 도로변

준공22년11월 010-7437-5535

■한백공인중개사(김성현, 북구)가5-2624

★창고, 공장★ 대145

전45

16억9000

농산물시장인근

철골중당대로변

010-8588-7112

■LG부동산(박중수, 달서)27290-2022-00098

★이층 통상가★

달서구 대160㎡, 대도로코너

커피, 반점 등 적지

몽땅12억3천, 초급매 053)643-8988

남구

■부자공인(최원정, 남구)27200-2022-00002

※호텔 급매

20억인수 대1,056㎡

월1억출, 장부공개 053)263-7101

※모텔 급매

모텔물건

대지772㎡, 부30, 브랜드올리브몰링

월6000출

대255㎡

월10억인수

053)263-7101

※펜션부지 남해

※해변 끼고

30,265㎡

대17억

053)263-7101

망! 경산 갑제

망+농막

자연북지

1114㎡(337)

053)263-7101

동구

■모두부동산(안근희, 동구)27140-2020-00130

★평화시장대로변

상가 826㎡(250)

당2,300만, 급매

053)942-4080

■금상부동산(홍세호, 동구)27140-2018-00149

모텔 동촌유원지

최고위치

2,376㎡(719)

1800만원/3.3㎡ 053)984-3450

수성구

■유명공인(박성현, 수성)27260-2016-00126

인도어

골프장/버거리200M

인근5만세대독점, 가격

협약, 대13,223㎡(4000) 뛰어난 경관

투자기회, 추가스크린, 커피숍, 투자

시수익성 최상급 010-3701-0772

급매, 月1010

29억(협의)

주차장 건물, 대지1,350㎡, 사무실

식당, 세차장, 대형건물 고정주차장

투기투자최선 010-3701-0772

급, 초대형

사무나, 헬스, 화이트

니스, 수익대폭 호

전중, 매도가46억, 감정가75억, 대출조

건 전용, 월매출 확장세, 대도로인근 독

점위치, 순반급중세 010-3701-0772

■리타스트림(노유진, 수성)27260-2017-00196

월315출

7억, 카페, 투, 스포름

방3화2고급+다림방2화1, 주인쓰고

대179㎡, 전360㎡, 수성구코너, 보2억

4500+용4억1500만고053)768-9000

40억, 대1040㎡

전2540㎡, 약국

병원, 체인점, 치과, 학원, 법인사무실

대도로3연코너, 보4억8000+용자25

억2000만고 극비매 053)768-9000

■리타스트림(노유진, 수성)27260-2017-00196

월315출

7억, 카페, 투, 스포름

방3화2고급+다림방2화1, 주인쓰고

대179㎡, 전360㎡, 수성구코너, 보2억

4500+용4억1500만고053)768-9000

40억, 대1040㎡

전2540㎡, 약국

병원, 체인점, 치과, 학원, 법인사무실

대도로3연코너, 보4억8000+용자25

억2000만고 극비매 053)768-9000

■리타스트림(노유진, 수성)27260-2017-00196

월315출

7억, 카페, 투, 스포름

방3화2고급+다림방2화1, 주인쓰고

대179㎡, 전360㎡, 수성구코너, 보2억

4500+용4억1500만고053)768-9000

40억, 대1040㎡

전2540㎡, 약국

병원, 체인점, 치과, 학원, 법인사무실

대도로3연코너, 보4억8000+용자25

억2000만고 극비매 053)768-9000

■리타스트림(노유진, 수성)27260-2017-00196

월315출

7억, 카페, 투, 스포름

방3화2고급+다림방2화1, 주인쓰고

대179㎡, 전360㎡, 수성구코너, 보2억

4500+용4억1500만고053)768-9000

40억, 대1040㎡

전2540㎡, 약국

병원, 체인점, 치과, 학원, 법인사무실

대도로3연코너, 보4억8000+용자25

억2000만고 극비매 053)768-9000

■리타스트림(노유진, 수성)27260-2017-00196

월315출

7억, 카페, 투, 스포름

방3화2고급+다림방2화1, 주인쓰고

대179㎡, 전360㎡, 수성구코너, 보2억

4500+용4억1500만고053)768-9000

40억, 대1040㎡

전2540㎡, 약국

병원, 체인점, 치과, 학원, 법인사무실

대도로3연코너, 보4억8000+용자25

억2000만고 극비매 053)768-9000

■리타스트림(노유진, 수성)27260-2017-00196

월315출

7억, 카페, 투, 스포름

방3화2고급+다림방2화1, 주인쓰고

대179㎡, 전360㎡, 수성구코너, 보2억

4500+용4억1500만고053)768-9000

40억, 대1040㎡

전2540㎡, 약국

병원, 체인점, 치과, 학원, 법인사무실

대도로3연코너, 보4억8000+용자25

억2000만고 극비매 053)768-9000

■리타스트림(노유진, 수성)27260-2017-00196

월315출

7억, 카페, 투, 스포름

방3화2고급+다림방2화1, 주인쓰고

대179㎡, 전360㎡, 수성구코너, 보2억

4500+용4억1500만고053)768-9000

40억, 대1040㎡

전2540㎡, 약국

병원, 체인점, 치과, 학원, 법인사무실

대도로3연코너, 보4억8000+용자25

억2000만고 극비매 053)768-9000

■리타스트림(노유진, 수성)27260-2017-00196

월315출

7억, 카페, 투, 스포름

방3화2고급+다림방2화1, 주인쓰고

대179㎡, 전360㎡, 수성구코너, 보2억

4500+용4억1500만고053)768-9000

40억, 대1040㎡

전2540㎡, 약국

병원, 체인점, 치과, 학원, 법인사무실

대도로3연코너, 보4억8000+용자25

억2000만고 극비매 053)768-9000

■리타스트림(노유진, 수성)27260-2017-00196

월315출

7억, 카페, 투, 스포름

방3화2고급+다림방2화1, 주인쓰고

대179㎡, 전360㎡, 수성구코너, 보2억

4500+용4억1500만고053)768-9



경북지역 여성들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2023 경북여성 신년교례회'가 11일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여성단체협의회 제공

“30만 여성리더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경북여성 신년교례회 개최

23개 시군 600여명 참석
“지방시대 선도 역할 담당”

경북지역 여성들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2023 경북여성 신년교례회'가 11일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애) 주최로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이자 국회의원,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주낙영 경주시장, 도 및 시·군의원 등 정·재계 인사 및 도 단위 기관단체장과 경북의 여성 지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 다양한 여성단체 활동을 돌아보고, 계묘년 새해 더 크게 더 새롭게 도약하는 경북을 만드는 데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새해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도립국악단의 대북공연을 시작으로 경북여성단체 활동 영상물 상영과 축하공연, 시루떡 자르기 등 새해 인사와 덕담

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 '지방시대 선도경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경북여성단체와 경북도의 새해 염원을 담은 메시지도 전달했다.

김경애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의 최종 목표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여성들의 힘을 모아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돌봄보육사업으로 지역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언제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여성 지도자 여러분께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 주관단체인 경북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23개 도단위 회원단체와 23개 시군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1980년 창립 이후 여성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30만여 명의 회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근 기자 mincho@imaeil.com



담수회 창립 60주년 계묘년 신년인사회 (사)담수회(회장 박연택)는 11일 담수회관에서 우종의 대구향교 전교를 비롯해 유관 유림단체장,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0주년 2023 계묘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한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 신년회 개최 (사)한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회장 허태조)는 10일 대구 수성구 삼천궁에서 이종선 상임의장을 비롯한 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산림재난 총력 대응과 산불 없는 한 해를 다짐하는 신년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대구본부 '공명선거 결의대회' 농협중앙회 대구본부(본부장 손원영)는 11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손원영 대구본부장 등 대구 내 지역농협 조합장, 지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선관위 지도 사항과 선거 추진 계획, 농·축협 사고 사례를 공유했다.



이재학 봉촌농장 대표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이재학 봉촌농장 대표(전 대구경북한우협동조합장)는 최근 칠곡군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 봉촌농장은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가족사육 전문 농장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5천여 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노비즈협회 대경지회 난방비 500만원 기탁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회장 정효경)는 10일 코로나 19 장기화와 불경기로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500만원을 동구청에 기탁했다.



비엔지평화상사 백미 1천만원 상당 기부 (주)비엔지평화상사(대표 남상식)는 10일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봉기)를 방문해 설맞이 사랑의 백미 10kg 417포(1천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남구자원봉사센터는 이날 후원받은 백미를 설 명절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지오엠티에스 마스크 10만장 기부 (주)지오엠티에스(공동대표 표정엽·김민재)는 9일 경북 군위군(군수 김진열)에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했다. 마스크는 군위군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에 전달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연예술경영대상' 등 7개 상 수상

대구오페라하우스 '심청' 제작
대구예술연합공간 60% 대관
“조직 안정화·도약 최선 노력”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공연예술 ▷시민문화향유 ▷문화예술교육 ▷관광 4개 부문에서 공연예술경영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대상, 교육부장관 표창 등 7개 상을 받았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지난해 누적 방문객 40만 명, 평균 84%의 좌석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제19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니벨룽의 반지' 전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자체 제작 오페라 '심청'을 선보이며 '2022년 공연예술경영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구공연예술연합공간은 연평균 140여 개의 예술단체가 이용하고 있고 지난 10월까지 대관율이 60%를 넘으며 '공연예술연합공간 운영기관 평가 우수상'을



왼쪽부터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연예술경영대상, 대구공연예술연합공간 우수상, 관광본부 제12회 2022 대한민국 SNS 관광 분야 대상 수상 모습.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공

수상했다. 문예진흥원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도 ▷뽕뽕한 잔액 소진 이벤트 ▷가맹점 안내 책자 제작 ▷이용 편의를 위한 e그린우편 발송 등을 통해 문화 소비계층의 이용권 확대를 이끌고자 했다. 이로 인해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원대상'을 받았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대구시교육청과 연계한 'D-Art(로) 프로젝트',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과 협력한 '클래식 오아시스'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관광본부의 대구 관광 공식 SNS(제멋대로 대구로드)는 '제12회 2022 대한민



국 SNS 시상식 관광 분야 대상'에 이어 '제15회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 지역 관광 부문 대상'을 받았다.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생동감 넘치는 화풍 김정기 대구미술협회장 별세

대구수채화협회장도 역임

김정기 대구미술협회 회장이 10일 별세했다. 향년 57세. 수채화와 유화로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의 모습을 그려온 그는 화화적 순수성이 돋보이고 생동감 넘치는 화풍으로 많은 이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고인은 계명대 미술대학 및 예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1년 대구미술발전인상, 2016년 대구미술인상, 2019년 정수미술대전 초대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대구청년작가회 회장을 맡았을 당시 대한민국 청년비엔날레를 주관했으며 한유회 회장, 대구사생회 회장, 대구수



채화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지난해 2월 4년 임기의 제22대 대구미술협회장에 당선돼 활동을 이어왔으나 지병이 악화돼

유명을 달리했다. 대구미술협회장의 남은 임기는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빈소는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VIP 301호이며 4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13일(금) 오전 6시 30분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선하 씨와 아들 김동욱·재훈 씨가 있다.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안동JC 특우회 회장단 이·취임식

경북 안동JC 특우회는 10일 안동 묵향 대회의실에서 박대원 신임 회장 취임 등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재경영덕군향우회원 '설맞이 장보기 투어'

영해만세시장 100여명 방문

재경영덕군향우회 회원 100여 명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일 영해만세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은 군청 직원과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아 물가자미, 농수산물, 휴게간장 등 고향의 특산물을 구입하고 현대화된 시장 시설을 둘러봤다.

남후식 재경영덕군향우회 회장은 “향우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영덕군과 군의회, 시장 관계자분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를 통해 회원들의 애향심이 더욱 고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을 통해 대형버스 입차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고향 영덕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보답하고자 영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해만세시장은 1965년 개설돼 매월 5, 10일 열리는 5일장에 뿌리를 둔 상설시장이다. 예로부터 안동과 영양 등의 내륙지방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관문 역할을 했으며,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8일 동해안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거행된 장터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시장이다.

김대호 기자 dhkim@imaeil.com

노재승 한국탄소학회장



노재승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최근 (사)한국탄소학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노 교수는 한국탄소학회 학술이사과 재무이사, 부회장, 선출직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고부가 인조 흑연 기술개발, 탄소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탄소 복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다양한 정부 과제 수주를 통해 탄소소재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

1999년 창립된 한국탄소학회는 1천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탄소 분야 학회다. SCI급 국제 학술지인 'Carbon Letters', 기술지인 '탄소과학과 기술' 등을 발간하고 있다. 노 신임 회장은 “한국탄소학회 회원들이 탄소 분야에 새로운 영감과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탄소 학문 발전과 산업을 선도하는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lch888@maeil.com

박현철 영덕고향사랑기부 1호



포항시에 거주하는 영덕군 출신인 박현철(사 진 왼쪽) STM 대표가 고향사랑기부제 영덕군 1호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 대표는 이날 최고한도액 500만원을 기부했다.

박 씨는 “내 고향 영덕의 발전에 힘을 보탬 수 있어서 뜻깊은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더욱 많은 출향민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귀중한 담례품도 받고 고향 영덕을 위한 상생의 미덕을 실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고향사랑을 실천해 주신 깊은 뜻에 큰 감명과 고마움을 느꼈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례했다.

김대호 기자 dhkim@maeil.com

장준용 김천고향사랑기부 500만원



장준용 부산시 동래구청장이 김천시 고향사랑기부액 최고한도인 500만원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11일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기부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은 장 구청장이 처음이다. 장 구청장은 별도의 연락 없이 온라인으로 기부금을 전해 왔다.

김천시 대덕면 출신인 장 구청장은 유년 시절을 김천에서 보내고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제38대 동래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다.

장준용 구청장은 “고향인 김천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일 기자 hyunil@maeil.com

“잘 가르치는 대학, 학생들 스스로 다니고 싶은 대학 만들 것”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취임
조환길 대주교 등 500여명 참석
“구성원들과 생산적인 소통 지속”

대구가톨릭대 제28대 성한기 신임 총장 취임식이 11일 교내 중앙당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환길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천주교대구대교구장)을 비롯해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 5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축복 기도, 총장 약력 소개, 취임 선서, 임명장과 학교 열쇠 인계, 이사장 식사(式辭), 총장 취임사, 구성원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 상영, 축가 등으로 진행됐다.

성한기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생이 사랑받고, 교직원이 존중받고, 교수가 존경받는 문화를 정착시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학을 이루는데 힘쓰고자 한다”며 “잘 가르치는 대학, 인성 교육, 비교과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 학생들이 스스로 다니고 싶은 대학으로 만

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에 최역점을 두고, 구성원들과 진지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생산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소화(소통과 화합)가 잘 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임 슬로건을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 Together We Can’으로 제시했다.

대구가톨릭대는 이번 취임식을 코로나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대학 구성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담례품도 제공하지 않았다. 절감된 행사 운영비는 추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성한기 총장은 성공관대 산업심리학과 경영학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에서 심리학과 석·박사를 수료했다. 1990년부터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로 부임해 입학처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1일 제28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aeil.com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성한기(오른쪽) 대구가톨릭대 신임 총장이 조환길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으로 부터 학교 열쇠를 인계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제공

“나를 다시 일어서게 도와준 구미는 제2의 고향”

천하장사 이태현 교수 공무원 특강

“이종격투기 선수로 좌절 느낄 때
‘제2의 씨름’ 도전 제안 항상 감사”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교수가 11일 오전 구미시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특강을 했다.

이날 이 교수는 특강에서 씨름 선수 시절의 경험, 이종격투기 선수로서 도전과 실패, 구미에서 다시 일어난 과정 등 백두장사 최다승 타이틀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이 교수는 “구미와의 인연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절 구미초등학교에 전학을 가면서 시작됐다”며 “씨름을 그만두고 이종격투기 선수 생활을 하며 좌절을 느낄 때 다시 씨름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곳이 구미다.



천하장사 이태현(오른쪽) 교수가 11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수요특강에서 씨름의 역사, 선수 시절 경험담, 실패 후 반등한 내용 등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구미시 제공

구미를 고향처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련을 겪는 기간도 있었지만 천하장사 3회, 지역장사 12회, 백두장사 20회, 기타 장사대회 5회 등을 포함해 최다 상금 기록을 세웠다.

그는 “이종격투기 은퇴 후 좌절하고 있을 때 구미시청 팀으로부터 ‘제2의 씨름’ 도전을 제안받았고, 결국엔 백두장사 최다인 20회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씨름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도 교수, 해설위원, 홍보대사 등 씨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용인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구미시의 향후 변화가 기대된다”며 “저 역시 씨름의 세계 진출과 씨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광 기자 kwang623@maeil.com

전정승 대표이사 아녀소사이어터 대구 214호

부부 회원 부모님 이어 가입

전정승 대경안전컨설팅(주)의(주)자우버 대표이사는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녀소사이어터 대구 214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전 대표이사는 어린 시절부터 이웃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

경주에서 과수원을 하시던 전 대표이사의 부모님은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면 누구라도 밥상을 차려 대접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어려운 집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남몰래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다.

전 대표이사는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2019년 2월 어머니를, 2021년 2월엔 아버지를 대구 아녀소사이어터 회원에 가입시켜 드렸다. 이를 통해 아버지 고(故) 전수종 옹과 어머니 고 박영자 여사는 대구 첫 번째 고인(故人) 부부 아녀소사이어터가 됐다.

여기에 전 대표이사 본인도 이번에 214호로 가입하며 부모님과 함께 아녀소사이어터 회원이 됐다.

전 대표이사는 “이웃을 도우시며 환하게 미



소 지으시던 부모님이 생각난다”며 “형편이 좋아야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윤정훈 기자 hoony@maeil.com

인물 수첩

손석훈 성주군 소상공인연합회장



성주군 소상공인연합회 손석훈(51) 신임 회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과 지위 향상을 위해 성주군연합회를 결성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이 행복한 성주를 만들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현장에서 소통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손 회장은 성주읍이장협의회 사무국장, 귀뜸성주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성주군지부협의회 등을 맡고 있다.

전병용 기자 yong126@maeil.com

대구시행정동우회 ‘회지’ 제17호 발간



대구시청과 구청 등에서 퇴직한 공무원 1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대구광역시행정동우회가 최근 ‘대구행정동우회지’ 통권 제17호를 펴냈다.

책에는 동우회 회원들이 회화, 사진, 서예, 시, 수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한 문화 작품이 실려 있다. 회화 작품 2점, 사진 작품 9편, 서예 작품 6편, 시 작품 7편, 수필 작품 14편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이의의 전 대구시장의 ‘도시개발의 예측성’, 이종수 전 대구시장의 ‘김무연 시장과 나’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도 만나볼 수 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건의하는 내용인 권진현 대구시행정동우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작성한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는 글도 실렸다. 배주현 기자 pearzoo@maeil.com

오늘의 운세 1월 12일(음력 12월 21일) 더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쥐

▶36년생 현재 자신의 모습이 탐착지 않으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을 수 있겠어요. ▶48년생 큰 병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면 사소한 병이라도 소홀히 넘어가선 안 됩니다. ▶60년생 불필요한 지출이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입이 좋은 하루입니다. ▶72년생 지금 내 가 지키고 있는 자리가 남들이 탐낼 만큼 매력적인 듯하네요. ▶84년생 마음이 쉽게 요동치니 주변의 유혹에 솔직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소

▶37년생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의욕이 다소 줄어들게 될 수 있겠어요. ▶49년생 내 재산에 조금씩 흠집을 내는 사소한 원인들이 발견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61년생 오늘 내 재산을 잃고 싶지 않다면 주변의 부락을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73년생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웬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86년생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람과 빠르게 관계가 진전되며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범

▶38년생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50년생 철저한 지출을 세우고 여행을 떠나야 금전 문제로 허덕이지 않겠어요. ▶62년생 두 사람을 돈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묘안이 필요한 날입니다. ▶74년생 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지만 웬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86년생 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토끼

▶39년생 이때까지 머리론만 생각해 왔던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에 좋은 날입니다. ▶51년생 이때까지 좋은 인연을 맺어오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를 배신할 수 있겠어요. ▶63년생 생 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나 귀인의 도움으로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75년생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내 의지와 다르게 판단만 듣게 될 수 있겠어요. ▶87년생 애정운이 최고이니 평소 자신의 이상형과 가깝다 여긴 상대에게 접근해 봐도 좋겠어요.



용

▶40년생 재량이 밀려들어오길 원치 않는다면 잠시라도 방심해선 안 되는 날입니다. ▶52년생 건강에 약간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재물은 좋은 흐름을 보이는 날입니다. ▶64년생 지나친 양보는 손해로 이어짐을 명심하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 날입니다. ▶76년생 지 나친 잔소리는 모두에게 해로우니 남에게 충고하는 일을 자제해야 하는 날입니다. ▶88년생 나와 상대의 사이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뱀

▶41년생 당신이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복이 달라질 수 있는 날입니다. ▶53년생 여유가 생겨 나니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고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65년생 새로운 길이 열리니 좋은 환경이 아닌 듯하니 신중하게 처신하세요. ▶77년생 미혼이라면 나의 인생을 함께하고픈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89년생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니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말

▶42년생 바람에 흔들리던 배가 중심을 잡고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운입니다. ▶54년생 시간을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성과가 생겨나는 날입니다. ▶66년생 생 군계 믿었던 사람이 지니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 날입니다. ▶78년생 마음이 너그워지면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 날입니다. ▶90년생 진절만 마음씨와 따뜻한 표정을 지으면 상대의 마음을 흔릴 수 있는 날입니다.



양

▶43년생 조금만 슬픈 이야기들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아파지는 하루입니다. ▶55년생 마음이 잘 통하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날입니다. ▶67년생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는 날이니 최 생 굳게 믿었던 사람이 나와 다른 행보를 보이니 다소 실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79년생 생 군계 믿었던 사람이 지니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 날입니다. ▶91년생 상대와 작은 다툼이라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나의 예민함을 감출 필요가 있어요.



원숭이

▶44년생 슬픔이 지나 가면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날입니다. ▶56년생 많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짐하면 금전의 움직임이 재빠르게 진행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68년생 생 오늘은 웬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수 있어요. ▶80년생 상대와 작은 다툼이라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나의 예민함을 감출 필요가 있어요.



닭

▶45년생 매사를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나의 직관력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57년생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듯 해 내 괴로움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하는 날입니다. ▶69년생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내 편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는 하루입니다. ▶81년생 일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잊지 말고 챙길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93년생 생 문제는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순리대로 풀어가야 되는 날입니다.



개

▶46년생 당신이 성취시킨 일을 욕심내며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어요. ▶58년생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하루입니다. ▶70년생 날이 내 편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는 하루입니다. ▶82년생 항상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일 뿐이지, 기존의 것을 따를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94년생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잘난 체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돼지

▶47년생 자신의 생각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니 머리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어요. ▶59년생 추운 겨울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바리던 이들이 술을 풀리는 날입니다. ▶71년생 금전 지출 문제로 생각이 달라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83년생 중요한 만남이 생기니 온몸에 긴장이 감도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95년생 삶이 다소 지루한 듯하니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봐도 좋은 하루입니다.

혁신을 이끌어갈 도전적인 질문을 가진 리더



KBS1 '신년 기획 최초의 질문' 오후 10시

KBS 1TV '신년 기획 최초의 질문'이 12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도전적인 질문으로 혁신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는 방법을 살펴본다. 최재천 교수는 질문을 가진 리더를 길러내는 하버드대학에 주목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며 자신과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며 목표를 찾아낸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가슴 뛰는 질문이 없는 곳에 인재가 머물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정동 교수. 누구에게나 새로운 것을 꾸꾸는 기업가 정신이 있고, 리더가 도전적 목표를 제시할 때 구성원들의 잠재력 또한 최대

한 발휘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과연 우리의 리더는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한편 자율주행차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계적인 공학자 제바스찬 스텐에게는 특별한 인사 원칙이 있다. 혁신적인 일을 할 때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거침없이 질문하며 문제점을 찾아야 높은 수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이신혜 기자 tvbox@maeil.com

cpbc
FM 100.5 MHz
김천가톨릭평화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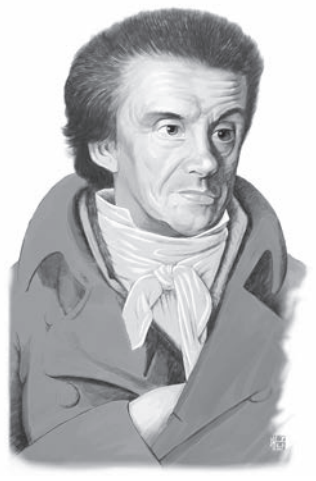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야
오후 4시 5분
每日新聞 뉴스
낮 12시

오늘의 역사

1746년 1월 12일
교육개혁가 페스탈로치 탄생

세계적인 교육개혁가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가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다. 그는 루소의 교육론 '에밀'을 읽고 감동받아 어린이 교육에 일생을 바쳤다. 교육의 목적을 머리와 마음과 손의 조화로운 발달에 두고 노동을 통한 교육을 인간 도야의 근본 원칙으로 삼아, 올바른 사회로의 개혁에 이바지하는 일꾼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교육론은 많은 국가에서 받아들여져 루소와 함께 신교육의 원천이 됐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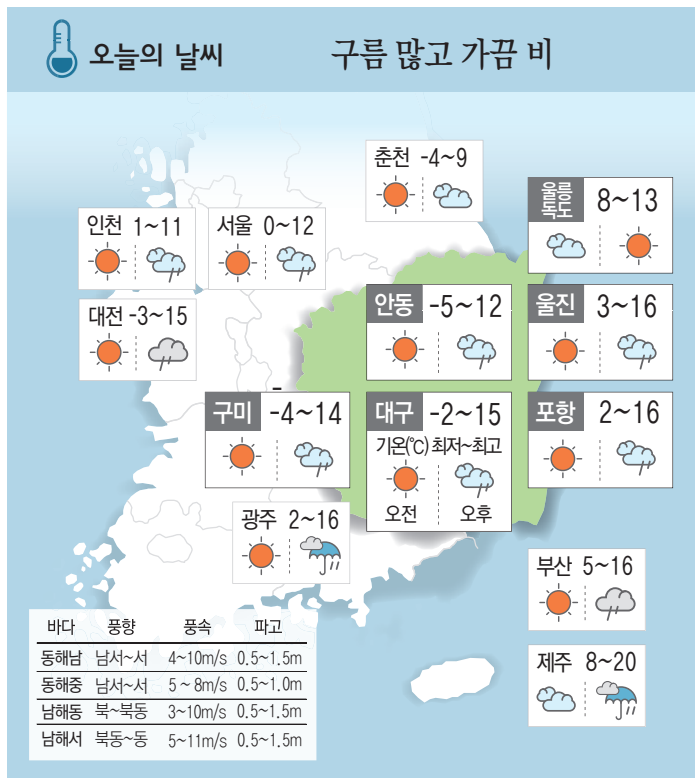
TV 프로그램

KBS1	KBS2	MBC	TBC/SBS	EBS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한국인의 밥상(재)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12:00 KBS 뉴스 12	5:00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볼만한 아침 M&W 9:00 KBS 아침뉴스타임 20 일일연속극 <내 눈에 공작지>(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자구춘누스 11:00 일일드라마 <대풍의 신부>스페셜 12: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0 포버든앨리(재) 6:00 MBC 뉴스투데이 7:20 대구 MBC 뉴스투데이 50 일일드라마(여성의 게임)(재)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45 기보 좋은 날 10:45 뽀빠리 좋아좋아 스페셜 11:15 꾸러기 시사교실(재) 45 시간강사 다이나믹 12:00 12 MBC 뉴스 25 금토드라마(금혼령)(재)	5:00 네트워크특선(재) 6:00 모닝와이드 1부 / 25 모닝와이드 2부 7:10 TBC 코로닝 뉴스 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15 TBC 뉴스 30 열린TV 시청자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12:00 SBS 12 뉴스 / 20 민방 네트워크 NEWS 50 금토드라마(법편)(재)	5:00 왕초보 영어 30 클래스 e (2) / 50 한국기행(재) 6:10 세계테마기행(재) 7:00 코미디스타쇼 15 하프와 친구들 (종합) 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8:00 당동당 유치원 2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35 한글용사 아이야 50 고고다아노 우리동네공룡(재) 9:05 최고다! 호기심박자 20 시용 / 35 베이비핑크의 최한현 모험 40 우정랑랑 은하안전단(종합) 10:10 한국의 둘레길(재) /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 10 EBS 교육연단 1:00 글로벌야생 찾아 삼만리 50 명의(재) 2:45 한국의 둘레길(재) 3: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35 꾸러기 천사들 4:05 영어 스토리 타임 15 페퍼 피그 / 25 한글용사 아이야(재) 40 당동당 유치원(재) 5:00 EBS 뉴스 / 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30 번개맨과 안전맨(재) 45 번개맨과 안전맨 6:00 생방송 뚱뚱지 해결단 7:00 정글 플래시 30 한국의 둘레길 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 50 극한직업 10:45 공상가들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55 클래스 e (1) 12:15 EBS 비즈니스 리뷰 30 지식채널e(1)/35 지식채널e(2) 40 네가 빠진 세계
1: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0 KBS 뉴스 10 이태원 찰사 국정조사 공청회 4:00 사시간전 5:00 KBS 뉴스 5 30 라이브 오늘	1:00 영상앨범 산(재) 3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3:00 KBS 뉴스타임 10 두라동실 몽개강원 2(재) 30 TV유치원 4:00 누가누가 잘하나 5:00 알쓸달쓸 캐치 티니핑 15 꼬마공룡 크앙 30 농천애 따라잡기 50 동함뉴스톱 ET	1:55 2시뉴스 외전 3:55 기보 좋은 날(재) 4:55 5 MBC 뉴스 5:10 실화탐사대 스페셜	2:00 뉴스브리핑 4:00 테마 스페셜 5:00 SBS 오뉴스 30 TBC 대경뉴스광장 50 생방송 굿데이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7 대구경북 40 한국인의 밥상 8:30 일일연속극 <내 눈에 공작지>	6:30 2TV 생생정보 7:50 일일드라마 <대풍의 신부> 8:30 세컨 하우스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생방송 연금복권 10 일일드라마 <여인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8:30 TBC 8 뉴스	
9:00 KBS 뉴스 9 신년 기획 최초의 질문 2편 50 더 라이브 11:30 KBS 뉴스라인 12:10 예셀의 전당(재) 1:00 국립오페라단 푸치니 오페라(라 보엠) 2:3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40 한국의 인류유산(재) 45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 3:45 아침마당(재)	9:50 국제에미상 수상기념 다시보는 (연호)(재) 11:00 연중 플러스 12: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동함뉴스톱 ET(재) 1:00 사람의 가족(재)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9:00 예선추적프로젝트 빅뱅커 40 전국시대 스페셜 10:00 신아과대회 11:20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스페셜 12:50 금토드라마 <금혼령>(재)	9:00 관계자 외 출입금지 10: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2:00 굿데이 스페셜 최강1교시(재)	

케이블·위성TV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 스카이라이프 1588-3002 • (주)이피지 02)569-5995
※지면관계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스포츠	스포츠+	SBS 골프	SBS 스포츠	바둑TV
11:00 날아라송이37 13:00 V리그 최고의 경기 16:00 V리그(여자부)한국생명·현대건설 18:50 V리그(남자부)현대캐피탈·KB손해보험 21:30 EVERYDAY 스페셜V 24:00 V리그(남자부)현대캐피탈·KB손해보험	10:00 카타르월드컵 2022 8강 HL +잉글랜드:프랑스 13:00 미들급 +인드라데:니콜슨 15:00 호주프로야구 +오클랜드:필름 코리아 18:30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2-2023 21:30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2-2023 24:00 2020 도쿄올림픽 여자양궁 개인 HL	10:10 임진현의 인생샷 12:10 2022 KPGA KB금융 스타챔피언십 FR 14:40 2022 SGC프린트 더 매치 챔피언십 17:00 SGC프린트매치 투어프로 스페셜 안소현 조민준 19:20 임진현의 인생샷 22:30 제1회 이시즈카이 ICC 칸즈 트로피	10:10 22-23 V-리그 여자부 한국생명·현대건설 12:25 웰컴저축은행 PBA팀리그 2022-2023 15:25 웰컴저축은행 PBA팀리그 2022-2023 18:50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한국도로공사 21:00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KB손해보험 23:00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한국도로공사	10:30 22-23 해니온행 M2배틀 Super Match 1권 한태희/공우 13:00 2022 크라운해태배 16강전 변상일·김현일 15:00 2022 크라운해태배 16강전 신민준·박지현 17:00 명국 Replay 최정·유지준 19:00 2022-2023 K6국민은행 바둑리그 2R 셀트론·Kox 23:00 제77회 해비매 여자주니어 결승 2번기 2국 최정·김현일
영화·경제	OCN	스크린	씨네프	SBS Biz
	11:40 미니언즈 13:30 크레이지리치아시안 15:50 미생:그들이 있었다2 18:30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21:10 인절 23:00 협상	11:40 이장 13:35 더퍼터 15:35 이너프 17:55 백범이론8 19:15 FBI 21:15 NCIS4	11:35 CSI:9 13:35 NEW고스트버스터즈2 15:40 캄샹:미친놈들의 전쟁 17:45 밤의 여왕 20:00 마션이스탄불2 22:00 마션이스탄불3	11:25 백브리핑 시사각각 14:00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17:55 뉴스 프리즘 19:30 Biz 포커스 21:00 안벌 박주식 22:30 용감한 토크쇼 직설
그림마 야구	KBS 드라마	MBC 드라마	SBS Plus	tvN
	10:40 무엇이든 물어보살 13:20 살림하는 남자들2 16:00 신상출시 편스토랑 19:50 옥탑방의 문제아들 21:10 차트를 달리는 남자 23:30 무엇이든 물어보살	11:50 라디오스타 13:30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17:10 여자와 한국살이는 처음이지? 18:50 나 혼자 산다 22:30 라디오스타 24:10 인생무여인 여행이야	11:3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4:2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7:10 미운 우리 새끼 19:10 나는 솔로 20:40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23:50 동상미용2 너는 내 운명	10:00 네 어깨를 봐 탈골 댔잖아 12:20 환초:빛과 그림자 15:40 조선 청신과 의사 유세봉2 19:10 한도초과 20:40 스킨 23:50 서를 체크인
캐릭터 만화	MBN	TV조선	JTBC	채널A
	10:00 생생 정보마당 12:40 알토란 스페셜 16:30 뉴스파이터 17:50 MBN 뉴스와이드 20:10 알약방 22:20 불타는 트랜맨	10:30 더 위대한 유산 13:00 보도본부 핫라인 17:00 시사소식이었지 정치다 19:00 일광달로 21:00 TV CHOSUN 뉴스9 22:00 미스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11:40 세계 다크투어 13:00 대행사 17:00 정치부 회의 19:50 JTBC 뉴스룸 20:50 한블리 22:30 사랑의 이해	10:30 신랑수업 스페셜 13:00 새집은 처음이라 ver 1.5 15:50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17:20 뉴스 TOP10 20:10 나는 똥신이다 22:40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어린이·가족	투니버스	JET생애TV	챔프	YTN 사이언스
	11:00 이상한 과학자게 전천당 14:00 아이엠스타 17:00 도토리 19:00 미카엔로니2 21:00 나모비지 스프링캠프 24:00 아누야샤	10:00 리틀하어로 제이 14:30 슈퍼패밀리 인세레인저 16:30 티타닉 19:00 이상한 과학자게 전천당 21:00 건담 수성의 마녀 23:00 베크간 배틀 베크구어	10:00 도라수니월드 PART 2 13:00 브레드 이발소 15:00 극장판 안벌 자두야 18:00 신 도라에몽 21:30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22:00 소년탐정 김전일 Original	11:40 Science of Spid Sports 13:00 Disasters Engineered 2 15:20 Extreme Ice Machines 18:05 Alaska: The Next Generation 4 20:00 Cruising With Jane McDonald 3 23:00 Alaska: The Next Generation 4
캐릭터 만화	cpbc TV	불교BTN TV	CGN TV	BBC World
	10:20 2023 신년대담 14:00 요한이 만난 사람들 16:00 강길웅 신부의 영성강좌 19:00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 21:00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 24:00 요한이 만난 사람들	11:30 생활 속 영불수행 13:00 이충희 최란의 감사합니다 16:00 진명스님의 지대방 19:00 BTN뉴스 21:30 BTN인문학 TV고승전 23:15 불교TV 수상사 일요초청법회	11:10 바이블킹 13:00 생명의 삶 16:20 카일 아이들문의 무슨 일이 있어도 19:30 구약의 세계로(오십소)2 21: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23:00 생명의 삶	11:00 BBC World News 14:30 World Business Report 16:00 BBC World News 19:00 BBC News 21:00 Live With Lucy Hockings 23:30 World Business Report
캐릭터 만화	EBS플러스1	JET생애TV	챔프	YTN 사이언스
	5:00 [개념완성 문항면] 물리학 I 50 [개념완성 문항면] 생명과학 I 6:40 [개념완성 문항면] 화학 I 7:30 [2024 수능개념] 정리의 개념은 맨트스도미플레너 8:20 [2024 수능개념] 정리의 개념은 맨트스도미플레너 9:10 [2024 수능개념] 손은의 손은의 화학 II	10:00 [2024 수능개념] 한성원의 SOS 지구과학 II 50 [2024 수능개념] 문항면의 퍼펙트 경제 11:40 [2024 수능개념] 유성원의 완벽한 세계사 12:30 [개념완성] 윤리와 사상 (상위권을 위한 발전) 13:20 [개념완성] 윤리와 사상 (상위권을 위한 발전) 14:10 [개념완성] 정치와 법 15:00 [개념완성] 정치와 법 (상위권을 위한 발전)	50 [개념완성] 정치와 법 (상위권을 위한 발전) 16:4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17:3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화학과 통계 18:20 [올림포스] 영어 독해 II (상위권을 위한 발전) 19:10 [올림포스] 영어 독해 II (상위권을 위한 발전) 20:00 [올림포스] 기하 (상위권을 위한 발전) 50 [올림포스] 기하 (상위권을 위한 발전)	21:40 클래스 e (1) 22:00 [올림포스] 미적분 (상위권을 위한 발전) 50 [올림포스] 미적분 (상위권을 위한 발전) 23:40 대도서관 점(JOB)쇼 24:10 [개념완성] 화학 II (상위권을 위한 발전) 1:00 [개념완성] 화학 II (상위권을 위한 발전) 50 지식채널e(1) / 2:00 EBS 비즈니스 리뷰
캐릭터 만화	EBS2	불교BTN TV	CGN TV	BBC World
	6:00 EBSe 생활영어(재) 30 EBSe 생활영어 7:00 왕초보 영어(재) 30 왕초보 영어 8:00 Seesame street 30 매일 10분 영어 9:00 초등 1년 EBS 겨울방학생활	20 초등 2년 EBS 겨울방학생활 40 초등 3년 EBS 겨울방학생활 10:00 초등 4년 EBS 겨울방학생활 20 초등 5년 EBS 겨울방학생활 40 초등 6년 EBS 겨울방학생활 11:00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12:00 형사 가제트 13:00 로보가 폴리	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4:00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30 워드지 무적자 15:00 번개맨과 안전맨 45 픽시 16:00 스콜랜드 - 과학 17:20 나를 위한 매일 수업 18:00 그린조끼 구조대	30 수퍼 와이 19:05 형사 가제트 30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 20:00 한국의 둘레길 20 지식채널e(1) 21:00 인간과 바다 22:0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3:20 EBS 비즈니스 리뷰



5일간 예보	영남	서울	충청	강원	호남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영남	서울	충청	강원	호남	
영남	서울	충청	강원	호남	
영남	서울	충청	강원	호남	
영남	서울	충청	강원	호남	

“밤에도 안심하세요”- 야간진료 병원

소방구급대 119

대학교병원

경명대 동산병원(성서) 1577-6622
경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서문지점) 250-8114
www.dsmc.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688-0077
www.dcmc.co.kr

경북대학교병원 1666-0114
www.knuh.kr
영남대학교병원 1522-3114
www.yum.ac.kr

종합병원

파티마병원 1688-7770
fatima.or.kr 대구구역 열

광명병원 252-2401
kwakh.co.kr 사성내거리

구병원 560-9114
gooh.co.kr 지하철2호선 죽전역 4번출구

천주성심병원 790-0555
Sungsam21.com 지하철2호선 신매역 5번 출구

수성메트로병원 743-7777
남부정류장내거리 지하철2호선 만촌역

요양병원

경주서림노인전문요양병원 054-743-6200
www.kjho.co.kr 동구대-영천, 고령 방향

성주연세실버타운 054-533-1600
www.sysd.or.kr

대한사회복지의료관공립의료원 060804-4412730

심야약국 · 365 연중무휴 약국

■ 365 연중무휴 약국

· (중구)대하약국 254-8164
· (동구)팜프라자약국 607-2733
· (서구)경명약국 355-7255
· (북구)형우당약국 358-9696

■ 365 자정약국

· (중구)복음약국 252-1325

· (북구/칠곡)강북약국 323-8736
· (달서구)삼일약국 568-3375
· (달서구)메디칼중앙약국 586-7900
· (달서구)중앙약국 615-0007

· (중구)한성약국 425-5575

당직 변호사 (12일)전우수 (13일)정대규 053)741-6338
FAX: 053)751-6006

작명전문
아기이름 · 개명

우리나라 대표 이름연구소·40년 전통

큰이름

053-241-3456

큰이름 ▾

교보문고 옆 미도빌딩 9층

마스크도 패션이다

발렌키에서 만들면 다르다!

의약외품 | 식약처허가

KF94 마스크

입체구조로 쾌적하게,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하게,
밀착구조로 안전하게,
다중필터 ——
미세먼지방역

MADE IN KOREA



대형1매입

감염원차단

부분4중구조필터

고탄력밴드



100%
국내생산

화이트

블랙



발렌키 KF94 새부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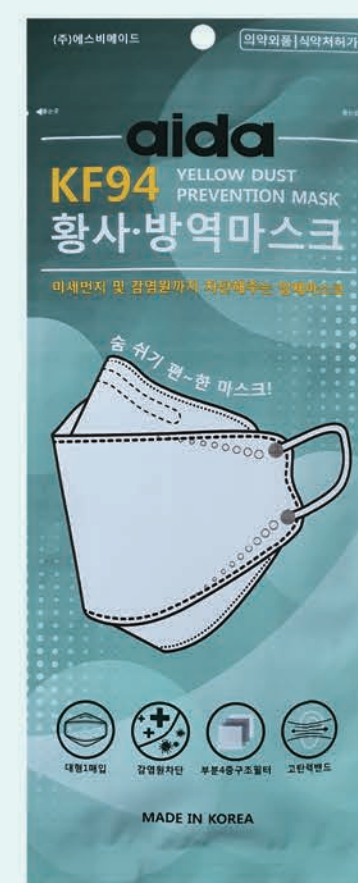
코와 입의 라인을 분리하여
편안함을 높여주는
새부리형 마스크!

KF94 정전필터

유해물질로 부터
완벽하게 보호한다!



(2D 마스크)



(3D 마스크)

2D / 3D / 덴탈마스크 / 아동용마스크

NAVER

발렌키마스크



상품상담전화 : 053-552-7088
상품주문휴대폰 : 010-7498-7088
상품주문팩스 : 053-555-7188

Balenkey
발렌키

주소, 현실을 넘어 디지털 세상으로

기 고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

바야흐로 작금의 시대는 넘쳐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하루에도 수없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생성해 내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데이터 다르다 보니,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에 일치ற்ற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주제 없이 연결해 줄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코드는 주민등록번호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식별 코드는 무엇일까? 바로 주소다. 이제 주소는 가상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고, 파편화된 정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2026년까지의 주소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 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소 정보 기반의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소 정보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상이 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까?

첫째, 공간 데이터 분석에 주소를 활용하면 보다 정밀하고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상권 분석의 경우 구역 단위로만 이루어지던 것을 앞으로는 주소 기반 데이터로 분석하며, 골목마다 도로마다 상권을 분석할 수도 있고 건물 단위별로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상권 분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때, 도로명, 도로구간,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더 나아가 사물 주소, 공간주소, 시간주소, 입체주소와 같이 고도화된 주소 단위로 데이터의 획득과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주소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내비게이션 등에서 사용 중인 위치 정보는 대수 서구에 소재한 동일한 장소를 ‘중리진달래2차아파트’ ‘중리진달래아파트2차’ ‘중리진달래2차아파트’와 같이 정보 제공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주소는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에 따라 동일한 위치 정보로 제공되며, 이를 사람과 기계가 모두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과 로봇이 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주소가 고도화되면 주소 기반의 서비스(ABS: Address Based Service)란 새로운 혁신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셋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모빌리티, 사회안전망 등의 다양한 공공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 달서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주소 정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자동차·공유전자전기 및 키보드 등의 이용 정보 데이터를 상호연계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를 융합하거나 새로운 혁신 서비스의 발굴이 활성화될 것이다.

주소는 그동안 시대 변화에 걸맞게 진화해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변화시켜 왔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주소는 또 한 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모든 데이터가 주소로 연결되어 '주소로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가 하루빨리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김승동의 새論새評



서울미디어
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정치학 박사)

다음 달이면 러시아 우크라 침공 1년
오랜 전쟁에 밀바닥 보인 러 국민들

최근엔 반전·푸틴 비판 여론도 확산
러, 이성 되찾고 침략 전쟁 중단해야

성탄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지난해 2월 24일이나 거의 1년이 다 돼 간다. 우크라이나는 정교회 신자가 다수라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는데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지난 연말에 성탄절을 맞았다. 각박한 의미가 있었음에도 성탄절 이브인 지난 6일 오후에도 키이우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경보가 울렸고 주요 발전시설과 도심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을

등에 포격 피해가 이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선제공격을 해 대응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아찔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교회 성탄절을 기념하자며 러시아군에 내린 36시간 휴전 명령이 무색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러시아 군인 부인들이 지난 4일 푸틴 대통령에게 대대적 동원령 발령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 미망인 단체는 또 징집 연령 남성들이 러시아를 떠나지 못하도록 경계를 폐쇄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렇게 요구할 충분한 도덕적 권리가 있다” “우리 남편들은 다른 남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죽었지만, 그들이 도망가면 누가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라고 외쳤다. 이들은 또 “2차 대전 당시 스탈린이

군에 내린 '후퇴 금지 명령'과 유사한 지시를 내릴 것도 요구한다"고 했다고 한다. 주장의 요점은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 남의 남편도 죽으라고 하는 것'이이고, '자신들의 죽음이 두려워 남의 남편들과 아들을 총알받이와 방패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쟁미망인들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전쟁이 원래 그렇지만 말바다에 드러난 인간 본성을 보니 전 전쟁도 부श्य지만 인간이 더 부श्य다.

사실 놀랄 것도 없다.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가진 악한 존재다. 배가 고프면 자기 자

식도 잡아먹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성경(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에피소드는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망하고 타락해 가는 과정에서 사미리아에 먹을 것이 없자 인간들이 보여준 한 단면이다. 대체로 세상의 거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 주지만 타락하고 악하면 이런 막장을 살아 가는 것도 인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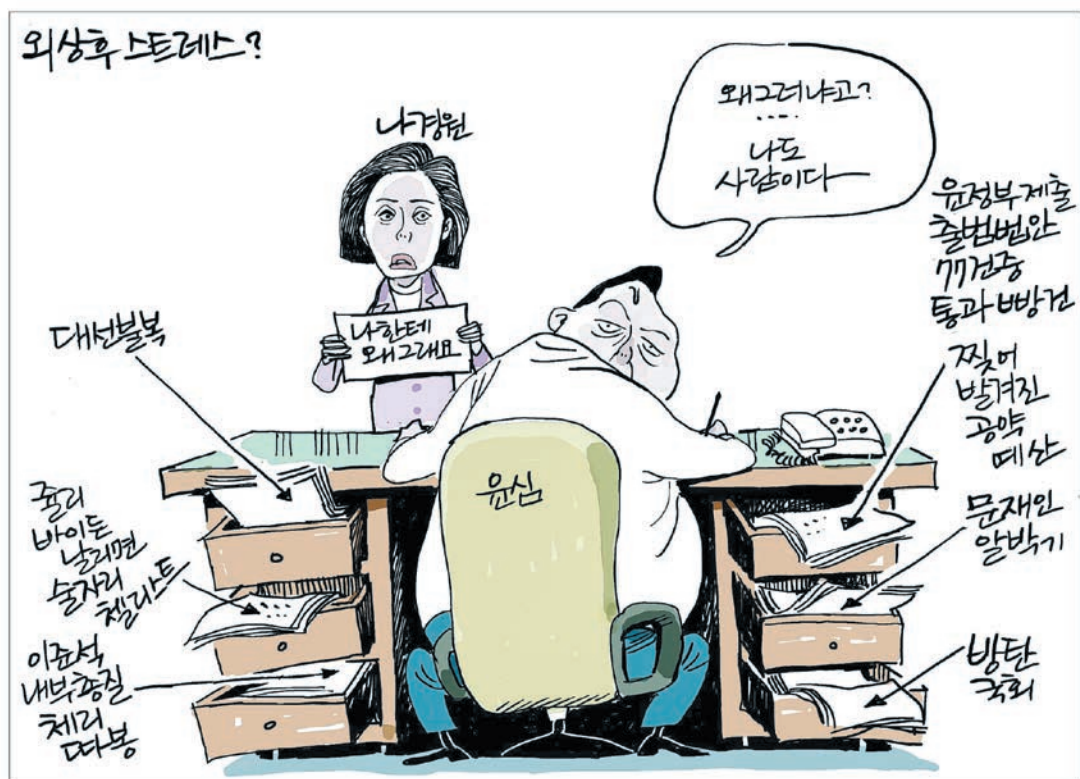
러시아 전쟁 미망인들도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남의 남편과 자신들까지 죽도록 해야 할까? 그들이 두려움을 피하고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전쟁을 그만두면 된다. 몇 백만 되는 우크라이나 땅파기를 꼭 빼고도 압제해야 하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때문에 벌써 1천초 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전쟁을 오래 끌면 끝수록 러시아의 피해도 더 늘어간다. 이 전쟁에서 푸틴이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 중인 것이 아닐까 싶다. 잃은 게 더 많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 내 반전 여론과

투틴 정권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쟁에 대한 공포와 염증이 러시아인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제대로 된 무장과 훈련 없이 전선에 투입되고 사망·부상자와 포로가 급증하면서 반정부 활동도 강해지고 있다. 마치 월남전에 집결 강요했던 당시 미국과 같은 상황이다. 때마침마다 러시아의 국력과 영향력은 매우 약화되면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종이호랑이로 쪼그라들 수 있다. 벌써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승계한 것은 불법이라면 서 러시아를 모든 국제기구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체성 확립과 러시아의 예측에서 반드시 벗어나겠다는 국민적 단결을 공고히 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뒀다. 설사 어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더라도 전쟁 전 계 아닐 것이다. 'ջշտա' (젯)지만 잘 싸웠다. 다시 힘을 키워 앞장가는 러시아 손아귀를 벗어나 친유럽 쪽으로 합세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 돌아가자.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이제 맞는가? 또 성경(이사야 2장, 미가 4장)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김경수의 毒日 회평



왜 그러냐고?? 너도 내 입장 돼 봐봐



○...당국의 금리 인상 자체 권고로 두 달 전 연 5% 넘던
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추락, 대출 금리는 그
대로, 은행들, 유리하면 발 빠르고 불리하면 질질 끌고...서
민들은 속 터지고.

○…방탄 국회 뒤에 숨어 ‘당당하게’ 강조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에선 묵묵부답. 네이버 문건 제시에 급당황하며 정진상에게 책임 전가. 과연 ‘표리부동’의 화신(化身).

○...모텔에서 동급생 옷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했던
중학생들, 대학생이라 속여 모텔 들어갔고 방 안에서 술도 발견돼. 경찰
에도 큰소리치며 난동 부렸더니 놀랄 대목이 더 있을지도.

 매일신문 The Maeil Shinmun	담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	 매일신문 www.imaeil.com
발행인-인쇄인 정창룡 편집인 이동관 논설주간 김해용 뉴스국장 김수용 신문국장 이훈수		
대표전화 053)255-5001	본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71) 경북 본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NCK프라자 3층	우)41933 우)36759
대표팩스 053)255-8902	동부지역본부 054)276-0001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광고·인쇄·안내 080-711-2001		
구독·배달 안내 080-711-2002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1946년 3월 1일 창간 1960년 7월 1일 등록 가-293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령군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 농촌지역 **고령!**

청정 가야산 지류의 맑은 물과
낙동강변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령의 우수 브랜드 상품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

고령물 에서 다양한 농특산물을 구입하세요!

TK-부산-광주 신공항 연대

데스크 칼럼



이상준
사회부장

‘중추공항 적시한 TK신공항 특별
법안, 가덕신공항 이상 의도 노골화’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시키지 않겠
다’…

새해 벽두부터 부산 지역 언론에 등
장하고 있는 기사 제목들이다. 부산 여
론은 대구경북(TK)신공항에 결코 호
의적이지 않다. TK신공항 특별법 통
과가 부산의 가덕신공항 건설과 위상
강화에 악재라는 시간 때문이다.

TK인공항 특별법은 이제 단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매일신문 주최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2월 국회 통과 목표를 제시했다. 바로 다음 날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실 신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상반기 내 TK인공항 특별법 제정과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 계획을 밝혔다.

안타까운 현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부산 의원들이 TK신공항 특별법

을 ‘과도한 특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특별법 제1조의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이라는 문구다. ‘가덕신공항의 위상을 떨어넘는’은 ‘과육’이라는 것이다. 제3조 3항 ‘중장거리 운항과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비행장 규모’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반대하고 있다. TK신공항이 이를 근거로 3.5km로 예정된 가덕신공항보다 큰 3.8km 활주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을 2년 전으로 돌려보자. 지난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야말로 상식을 넘어선 이례적 법안이었다. 당시 국토부 2차관은 “입지 자체를 특별법에서 정한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중천 민주당 의원은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 값으로 만들지 아무도 모른다. 이를 결정할 사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뭘 만들지를 모른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당시 변창홍 국토부 장관에게 “가덕도는 2016년 가장 부적합한 입지 평가받았는데 각종 특혜를 몰아줘서 법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당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는 수도권 일극 공

항 체제를 우려하는 비수도권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앞서 “대구공항,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기에 대구경북, 광주가 지지를 보냈다.

당시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비교하면 '중추공항' '3.8km' 등 표현상의 문제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신공항의 근본적인 과제는 TK신공항과 부산 가덕신공항, 광주공항이 '경쟁'을 넘어 '상생' '연대' 관계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가덕신항도 열심히 해서 대구와 같이 영남권 양대 중추공항으로 추진하자”며 “대구와 부산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 가덕신공항도 남부권 중추
공항으로 추진하고, 활주로 길이도
3.8km로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신흥항 간 경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만 하다간 제로섬 게임이 되기 십상이다. 안 그래도 ‘지방’ 신흥항이라고 하면 무조건 판치부대 걸고 보는 수도권 아닌가. 지금은 대구와 부산이 광주와 함께 상생과 연대를 통해 각자의 신흥항 실리를 챙기는 것이 먼저다.

주도했다. 이로 인해 동독 친화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서독 법원의 간첩 사건 판결 건수는 1964년 200건에서 1970년 27건으로 급감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남한 내 북한 연계 지하조직이 제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번 간첩단 사건은 1992년 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의 뭉개 것이라고 한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간첩 수사 포기이다.

자유민주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2011~2017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는 문 정부 때인 2017~2020년 8건으로 격감했다.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 때 수사 중이던 사건이러니 한참 다. 문재현 정권이 남한을 간첩이 활개 치던 1970~1980년대 서독 판 막이로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경훈 논설위원 jghun316@imaeil.com

사설 社說

택시비도 오르는데, 시내버스 '막차 종점 운행' 시급하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한 '막차, 종점까지 운행'이 합의 후 8개월이 됐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시내버스 노사는 기존 오후 11시 30분에 종료했던 차량 운행 시간을 이튿날 0시 20분까지 50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막차 종점 운행'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감당무소식이다.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새해에도 운행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대구시와 시내버스 노사가 '막차 종점 운행' 방안을 내놓은 것은 시민 불편을 덜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늦은 밤 시내버스를 탄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야 하는 어이없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구 시내버스 129개 노선 가운데 93개 노선에서 막차가 종점까지 가지 않고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대구시는 '막차 종점 운행'을 위해 지난 연말까지 버스 노선 안내 정보,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이 자정 이후에도 정

“수성못 포기 못 해” 농어촌공사의 황당한 법령 개정 시도

한국농어촌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수성토 소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성못을 비롯해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됐지만 본래 기능을 상실한 농업기반시설 부지를 분리 과세 대상에 넣어 세액을 줄이자는 것이다. 대규모, 수성구, 수성군 세 지자체와 갈등의 골이 깊어 지방법령 개정 시도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농어촌공사의 '지방세 법령 개정 추진안'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중 공원용, 호수 등으로 사용되는 담수호 부지를 종합 합산 과세에서 분리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공원용 저수지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대구시에 무상 양여하기는 싫고,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오랜 기간 대구 시민의 쉼터 역할을 했고,

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 버스 위치, 정류장 도착 시간 등을 관제하고 표시하는 BMS(버스운영관리시스템) 업데이트 작업도 거의 마무리했다. 하지만 해결 못 한 난제가 있다. 기존 노선의 배차 간격 및 막차 출발 시간 조정 등이다. 26개 버스회사 및 노조와 종점 연장 운행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데, 아직 합의점을 찾기 못한 것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다. 대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 올해 대구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임금 인상분과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하면 2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를 지속하는 이유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다. 16일 부터 대구 택시요금이 오른다. 기본요금미 20% 이상 오르고, 할증 시점이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당겨진다. 심야에 이용이 많은 저녁. 연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된다. '막차 졸점 운행'이 더 시급해졌다.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는 데 시민들의 공로가 컸음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유하자면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이건 자동차가 아니고, 기름으로 움직이는 이동 수단'이라는 식이다.

대구 시민들의 눈에는 황당한 꼼수로 보인다. 수성못을 지금의 명소로 만든 일등 공신인 시민들을 상대로 쟁탈전을 벌여서야 쓰겠는가. 특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논리로 세금 면탈에 초점을 맞춘 데서는 어안이 병병해진다.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데 사용료를 요구하는 건 언어오도단이다.

대구시는 농어촌공사의 법령 개정 시도를 묵과하지 말기 바란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수생목 무상 양여의 당위성을 피력해야 한다. 농어촌공사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지역 정치 권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더구나 나서야 한다. 공익용 저수지가 된 지 오래인 수질도를 대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을 강등으로 흘려선 안 될 것이다.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 보복...정부는 굵힘 없는 원칙 대응을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응해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해 11일 우리 방역 당국이 “중국발 입국 방역 강화는 국민 건강·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당한 발언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철저한 방역 대응을 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국제 규범과도 부합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국발 자국 입국에 대해 코로나 검사 의무 강화 및 입국 제한 등 조치를 취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만 꼭 짊어서 각각 단기 비자와 일반 비자의 발급 중단 대응을 했다. 똑같은 행동을 한 나라에 대해 중국의 관용이 다르게 나타난 것인데,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두 나라만을 골라 감정적 보복 조치를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실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대책을 취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다. 중국이 코로나 감염 통계 발표를 중단한 상황에서 새해 들어 중국인 입국자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 확진 판정자가 나오는 판국 아닌가. 중국의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는 자국인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데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

상식적 대응을 한 나라에 대해 중국이 보복성 맞대응을 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주변국을 깔보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스레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 및 세제인들의 이미지는 나빠지게 된다. 혹여나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저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중국 위정자들의 오산이다. 국제 질서에서 강대국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다소간의 불편함과 마찰이 생기더라도 할 말은 하고 주권국으로서 당당해야 한다. 단기적으론 이것이 코로나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길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든 옳은 외교적 선택이다.

[illegible]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21227-중-148723



디케어센터의원
**GRAND
OPEN**

건강한 나를 위한 건강검진기관 디케어센터의원 22년 11월 오픈!

- 검진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의료진의 진료
- 고객의 건강 데이터와 추적검사 일정을 관리
- 평생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클리닉 상담과 교육시스템
- 검진 후 철저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질병예측 프로그램
-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협진시스템



상담 문의
053. 288. 3000

홈페이지
www.dcare.or.kr

방문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07
디센터 1976 2층

 디케어센터의원

나를 키우다
세상을 키우다

나를 지키다
가족을 지키다

60
1963-2023

KIU 경일대학교